2021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간행하였습니다.
(사업명: 율곡학 콘텐츠 개발 및 사회적 · 국제적 확산 사업)

2021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2022년 11월 15일 인쇄
2022년 11월 15일 발행

펴낸곳 파주문화원 부설 율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적 확산 사업단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2층(와동동, 운정행복센터)
전화 031 941 2425 ● 팩스 031 941 2511
홈페이지 http://www.pajucc.or.kr/
전자우편 pajucc@naver.com
인 쇄 처 도서출판 문사철

* 이 책은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

2021

한국유교레포트

한국학계의 유교연구 성과분석 및 전망

파주문화원

율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적 확산 사업단

발 간 사

유학이 처음 한국에 수용된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정설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이전인 것만은 분명하며, 유학이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한국사회를 주도한 것 또한 분명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주자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조선성리학이 정립되고 17세기 이후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주자학이 강력한 통치이념으로 작동되면서 유학사상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17세기부터 160여년에 걸쳐 『주자대전』에 대한 주석 작업이 진행되어 19세기 이항로(李恒老)에 의하여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箚疑輯補)』가 집대성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사상은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16세기의 사단칠정논쟁, 18세기의 호락논쟁, 19세기의 심설논쟁이 그 대표적입니다. 이 논쟁의 주역들은 자신의 학설을 정당화하고 논적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하여 사서오경 등 유교경전과 주자학에 대하여 치밀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대 유학연구자들에게 계승되어 한국학계에는 유학사상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 성과

가 축적되었으며 매년 새로운 논문과 저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비판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각 논문과 저서들은 개별적으로 발간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몇몇 전공자들에게만 읽힐 뿐, 학계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사업단은 2015년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유학 연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물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본 사업단은 개별 논문과 저서라는 구술을 꿰어 한국유학이라는 보배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는 치열한 논쟁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레포트를 계기로 연구자들의 연구물들이 사장되지 않고 학계와 사회의 이슈로 부각되어 생산적인 논쟁의 공간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중국어판 발간을 계기로 한국 유학의 현주소

와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9월 30일

명륜동 연구실에서

율곡학 콘텐츠 개발과 국제적 확산 사업단 단장 최영진

차 례

발간사 | 최영진 ▪ 4

제1부 중국유학

제1장 **선진 · 한당시기 유학 연구** | 김경희 ▪ 11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 박지훈 ▪ 47

제3장 **명대주자학과 양명학 연구** | 선병삼 ▪ 75

제4장 **청대 사상 연구** | 류희성 ▪ 107

제5장 **근현대 중국 유학 연구** | 류희성 ▪ 125

제2부 한국유학

제6장 **한국 성리학 연구** | 배제성 유한성 ▪ 153

제7장 **한국 양명학 연구** | 선병삼 ▪ 195

제8장 **한국 실학 연구** | 단윤진 ▪ 217

제9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 단윤진 ▪ 253

제10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 이원준 ▪ 279

제1부 중국유학

제1장

선진·한당시기 유학 연구

김경희

1. 머리말

본보고서는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선진·한당시기 관련 유학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1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논문 중에서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은 유학이나 유교에 관련된 논문으로 제한하였다.

2021년도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중국 선진·한당 시기의 유학과 관련된 논문은 총 72편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이 10편이고, 일반논문이 62편이다. 총 편수에서는 2019년도 86편, 2020년도 95편에 비해서 적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1년도에는 선진시기가 총 65편, 진한시기 7편이다. 2019년도에는 선진시기가 81편, 진한시기가 5편, 2020년도에는 선진시기가 87편, 진한시기 7편, 당나라 시기 1편이었다. 이전의 두 해와 같이 선진시기의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진한시기의 유학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유가사상을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 세 인물을 대표적으로 살펴보고, 유가 이론과 관련된 인물들을 함께 묶어서 기타 인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첫째 경학사상, 둘째 철학, 셋째 정치 및 경제, 넷째 교육, 다섯째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전체 72편의 논문 중에서 인물과 관련된 주제를 발표한 논문은 모두 50편이다. 인물별로 보면, ①공자: 19편, ②맹자: 17편, ③순자: 7편, ④기타인물: 7편이다. 선진 유가를 대표하는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이 43편이고, 기타 인물은 한대(漢代)의 유가 사상가로서 동중서(董仲舒)·왕충(王充)·정현(鄭玄)·양웅(揚雄)·왕필(王弼)과 당대의 공영달(孔穎達) 등이 관련된 논문은 7편이 있다. 인물별 전체 논문의 편수는 2021년도 50편으로 2019년도 50편과 2020년도 57편에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공자관련 논문은 2020년도에 24편에 비해 19편으로 소폭 줄었고, 순자관련 논문은 2020년도에 8편에 비해 7편으로 비슷하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20년도에 17편과 동일하다.

한대(漢代)의 유가사상가 관련 논문은 2019년 5편, 2020년 8편, 2021년도는 7편으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0년도에 동중서(董仲舒) 3편, 왕충(王充)·왕부(王符)·정현(鄭玄), 양웅(揚雄)·환담(桓譚)·왕충(王充)을 중심으로 각각 1편이고, 당대는 공영달(孔穎達) 1편이 있었다. 2021년도에는 왕충(王充)2편, 정현(鄭玄), 양웅(揚雄), 왕필·하안, 동중서(董仲舒)를 중심으로 각각 1편이고, 당대는 유일하게 공영달(孔穎達) 1편이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2021년도에는 공자·맹자·순자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되어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금년에는 동중서 이외에도 왕충, 정현, 양웅, 왕필·하안 등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어, 한대(漢代) 사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 공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외순	동양정치사상에서의 정의(justice) 개념의 재고찰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동방학 44	동양고전연구소
2	안외순	호혜적 공감의 문화정전 『논어』와 『맹자』	동방학 45	동양고전연구소
3	안외순	『논어』 '지명군자장(知命君子章)' 고석	한국철학논집70	한국철학사연구회
4	정세근	왕필의 신화와 『논어』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5	김형 정세근	공자의 권(權) 개념과 인간의 유형	범한철학100	범한철학회
6	김민재	공자와 묵자 사상의 동이점(同異點) 고찰과 도덕교육적 시사점 연구 — 겸애(兼愛), 상현(尙賢), 귀의(貴義)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105	동양철학연구회
7	이인화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유교 및 공자 인식과 국민도덕론 체계에서의 활용	동서철학연구102	한국동서철학회
8	이석주	제자백가의 사랑 –공자와 맹자의 '사랑'과 '원망'–	철학·사상·문화 35	동서사상연구소
9	금종현	질서와 분배의 측면에서 義 개념의 연속성 고찰 — 『논어』까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107	동양철학연구회
10	정균선	왕궈웨이가 본 중국 고대 철학의 주요 개념인 '성(性)'에 대하여 –공자·맹자·순자의 성(性)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유학연구소
11	안춘분	공자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관중(管仲)의 집권 평가	유학연구 56	유학연구소
12	권오륜 김정효	공자와 플라톤의 신체사상 비교	유학연구 57	유학연구소
13	김영민	『논어』「자로」18장의 역사적 재해석– 제국 형성기의 동학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7	유학연구소
14	황광우	克己復禮의 맥락이해 (contextual understanding) –『춘추좌전』과 『논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100	범한철학회
15	이강대	공자의 '道'에 관한 고찰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6	서정화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 효 사상의 본질적 의미 – '공자에게 있어서 삼년상과 제사는 효일까?'를 절문(切問)하는 과정에서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17	정강길	"人能弘道 非道弘人"에 대한 非본체론적 道 이해 – 과정으로서의 道와 眞理에서 進理로 –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18	손보미	『論語』 '學' 개념의 의학교육적 함의	동양고전연구82	동양고전학회
19	윤민향	'관계적 공격성'에 대응하는 고전교육의 응용윤리적 접근 연구 – 『논어』 읽기를 통한 치유와 인격함양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2021년도의 공자 및 『논어』 관련 논문은 모두 19편이다. 2019년도 21편, 2020년도 24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20편 내외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19년, 2020년도 각각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일반 논문은 모두 19편인데,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안외순의 논문은 『논어』에 나타난 정의(正義 justice) 관념에 대해 분배적 속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필자는 『논어』에 나타난 정의관에 대하여 도덕적 성격이 강한 것은 물론이고 분배적 성격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나아가 공정한 분배적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때 정치의 도덕적 정의도 구현되는 논리임을 설명했다. 기존의 경우 공자나 유교의 정의관에 대해 도덕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반면 필자는 공자의 분배적 정의관이 민에게 재화만이 아니라 교육도 분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균형적, 도덕적, 부민적(富民的) 특징도 지님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연구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의 측면에서 김영호는 『논어』 「요왈」 3장 '지명군자장(知命君

子章)'에 대한 한, 중, 일 역대 제가의 주요 주석을 예시하고 이를 분석, 검토, 정리한 바탕 위에 다시 현대 한, 중, 일의 주요 주석서를 참고하여 필자의 관견을 제시하였다.

공자의 '정치'와 관련된 논문은 4편이고, 교육에 기반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논문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손보미의 논문은 의학교육에 공감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논어의 '학(學)'과 의학교육에서 공감교육을 관련시켜 의학교육에서 공감교육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의 학문적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나머지 논문들은 공자의 도덕철학, 『춘추좌전』과 『논어』를 중심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맥락이해, 공자와 플라톤의 신체사상 비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추후 공자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기대된다.

2) 맹자 관련 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예진	孟子의 道德心에 關한 朱子學派 註釋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서정선	孟子의 王道政治論 硏究 : 恒心과 恒産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3	유뢰	맹자의 윤리사상체계 및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4	정세근	맹자의 심론	양명학 60	한국양명학회
5	장원태	딜레마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곡속장(觳觫章) –인(仁)과 지(智)의 관계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47	태동고전연구소
6	정혜진	『맹자』 사단(四端)의 한 해석: 칸트의 선험철학적 관점	동서철학연구99	한국동서철학회

7	정우진	『孟子』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得於心, 勿求於氣'에 대한 莊子적 해석	동양철학연구107	동양철학연구회
8	빈동철	전국시대의 '性'에 대한 담론과 인간의 본성 — 맹자와 순자, 그리고 『郭店楚墓竹簡』의 유가 텍스트로부터 —	동양철학연구108	동양철학연구회
9	한상륜	『관자』심기론의 맹자 심기론에 대한 영향 고찰 –백해(白奚)의 『직하학 연구』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100	한국동서철학회
10	양재성	『맹자(孟子)』 「이루(離婁)」편의 구성방식(構成方式)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84	한국학연구원
11	진상훈 신창호	성선(性善)에 기초한 맹자(孟子)의 교육관 비판	율곡학연구 45	율곡학회
12	이강희	맹자와 고자의 대화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4	한국유교학회
13	허 석 임병학	『대종경』과 『맹자』의 인과사상 고찰	유학연구 54	유학연구소
14	서재현 김도일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힘 –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한 『맹자』읽기 –	유학연구 57	유학연구소
15	정영수	맹자의 일치일란 역사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16	한송희	『맹자』에 나타난 고자 사상의 정치적 함의 — 『맹자』 「고자 상」 1~4장과 「공손추 상」 2장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107	동양철학연구회
17	이애란	『맹자』 불인지심(不忍之心)의 감각적 한계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접근	인문과 예술11	인문예술학회

2021년도 맹자 및 『맹자』 관련 논문은 모두 17편이다. 2019년 14편, 2020년 17편으로, 2021년에도 17편으로 전년과 동일한 편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19년 3편, 2020년에 2편이 발표되었고, 2021년에도 3편이나 나와서 향후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3편의 박사논문 중에서 서정선의 논문은 유교 왕도정치를 실현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국가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항

심(恒心)이라는 정신적 방법과 항산(恒産)이라는 경제적 방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필자는 맹자가 주장한 왕도의 실현방법으로서 항심(恒心)과 항산(恒産)에 주목하여, 이 논문의 핵심과제로 분석하였다.

일반논문 14편 중 6편도 각각의 제목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맹자의 심성론(心性論)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다. 그 중에 정세근의 논문은 신유학의 심성론에 따라 복잡해지지 않은 본래의 간결한 의미를 지닌 맹자의 심론을 중심으로 축자적으로 밝히고 있다. 필자는 맹자가 도덕의 감정기원설의 주창자이며 공감 윤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맹자에게 도덕의 근원은 심 곧 심정이라고 부각시켰다.

빈동철의 논문은 전국시대 여러 텍스트 속에서 나타나는 '성(性)'에 대한 주요한 담론을 사상사적 맥락에서 분석함으로써, 맹자와 순자를 포함하여 이 시기의 지식인들이 제시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하여 하나의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했다. 필자는 '성(性)'에 대하여 맹자는 그 시대 일반의 주도적인 사상적 흐름과는 달리 자신의 철학적 신념 속에서 그 용어를 특별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순자는 당시의 주도적인 '성(性)' 담론을 수용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전국시대 지식인들의 사유 속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었던 '성(性)'에 대하여, 그 개념의 실제적 의미에 접근하기 위하여 맹자와 순자, 그리고 곽점초묘죽간(郭店楚墓竹簡)의 유가 텍스트로부터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맹자 성론(性論) 연구의 외연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순자관련논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승환	荀子 樂論의 敎育的 含意	박사학위논문	韓國學中央硏究院
2	이연정	선진시대 도통(道統) 의식 검토 –순자(荀子)의 도통 의식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3	배다빈	淸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101	한국동서철학회
4	정영수	순자의 자연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범한철학 103	범한철학회
5	정재현	윤리–정치적 진리와 순자의 正名 –三惑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3	중앙철학연구소
6	윤태양	정동(情動, affect) 개념을 통한 순자 '정안례(情安禮)'의 재해석	시대와철학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7	엄진성 정병석	순자철학과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체육교육	철학논총 104	새한철학회

2021년도 순자 및 『순자』 관련 논문은 모두 7편으로, 2019년도 12편에 비하면 적은 편수이지만 2020년도 8편과 비슷한 논문의 수를 유지하고 있다. 박사논문은 2019년도 1편이 나왔고, 2020년에 1편도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최승환의 박사논문은 선진시기(先秦時期) 순자의 악론(樂論)이 품고 있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객관적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음악이 질박한 본성을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본성으로 변성(變性)하는데, 매우 강력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순자가 인간 본성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질박함(本始材朴)으로 파악함에 따라, 교육의 적절성이 후천적으로 선한 도덕의식의 내재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논리를 정당화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순자의 악론(樂論)을 새롭게 정립

하려고 시도하였다.

배다빈의 논문은 청유(淸儒)의 긍정적 순자관 및 순자와의 사상적 관계에 관한 토론 자체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루었다. 필자는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청유의 순자에 대한 이해는 여러 논리적, 개념적 오류가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류들은 그들의 순자에 대한 전체 평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순자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필자는 순자 사상과 접촉한 많은 청유 가운데, 비교적 대표성을 지닌 전대흔(錢大昕)과 대진(戴震)의 순자관 및 사상을 통해 청대 순자학사의 양면을 고찰하였다.

윤태양의 논문은 성악설에서 출발하는 순자 도덕철학에서 도덕적 행위의 수행과 도덕적 존재화의 가능성이 정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구체적으로 순자 성악설의 논리구조와 성(性)-정(情)-욕(欲)의 일원적 동력구조의 장·단점을 밝히고, 마음의 역할을 검토하면서 정을 두 차원, 즉 '발현되기 전의 정'과 '발현된 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정안례(情安禮)의 도덕적 경지가 '발현되기 전의 정' 차원에서의 변화에 의지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정동(affect)' 개념을 스피노자-들뢰즈-마수미의 다양한 함의를 통해 '발현되기 전의 정'을 더욱 잘 조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순자철학의 독창성과 사상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기타 인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김영주	王充의 비판유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	박동인	鄭玄의 讖緯理解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 – 감생제설과 우주생성론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4	율곡학회
3	조민환	조선조 유학자들의 양웅(揚雄) 이해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37	대순사상학술원
4	하가영	王充的自然元氣論與性命思想再詮釋	동양철학연구 106	동양철학연구회
5	정세근	왕필, 하안, 그리고 『주역』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6	신창호	동중서(董仲舒)의 국가주의(國家主義) 교육사상	온지논총 66	온지학회
7	이현철	『淵海子平』에서 드러난 '太極'과 '形體'에 대한 고찰–漢代, 王弼, 孔穎達의 『易』사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4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1년도 기타 인물과 관련된 논문은 7편이다. 2019년도 5편, 2020년 8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박사논문은 2019년, 2020년도 각각 1편이 나왔고 2021년에도 1편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2020년에는 여러 학자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공영달, 왕충, 양웅, 환담, 정현, 왕부, 동중서 등 한(漢)·당(唐)의 다양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021년에도 공영달, 왕충, 양웅, 정현, 왕필, 하안, 동중서 등 주요한 사상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발전될 것이 예상된다.

김영주의 박사논문은 왕충 비판유학의 논증 형식에서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주요 내용이 천인감응설과 참위미신에 대한 비판, 이와 더불어 유가의 이상 인격인 성인(聖人)에 대한 신

성화와, 이를 통한 유학의 종교화 등에 대한 비판에 있음을 고찰하였다. 필자는 기성의 유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는 왕충의 자연과학 지식과 철학적 기반을 논술하고, 왕충 철학에서 최대의 논쟁처가 되는 자연명정론(自然命定論)을 자연주의 인간관, 역사관과 인성론, 화복론(禍福論) 등으로 나누어서 탐색하였다. 왕충의 천인관계론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많이 축척되어 있지만, 이 논문은 왕충의 『논형』을 '비판유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왕충 철학의 독창성과 사상적 가치를 제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동인의 논문은 동한말(東漢末)에 살았던 정현(鄭玄)의 참위(讖緯)이해와 그 사회·정치적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시도하였다. 필자는 한대의 금·고문경학을 종합한 대유학자 정현이 참위로 경전을 주석하고, 참위서에 주석을 달 수 밖에 없었던 사회·정치적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정현의 『역위건착도』 주석이 정치적 목적과 철학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한 점을 탐구하여 국내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를 발표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논문들도 한당 유학자들의 『주역』, 국가주의 교육사상 연구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①경학사상 8편 ② 철학 41편 ③ 교육 5편 ④ 정치 및 경제 12편 ⑤ 기타 6편이다. 전년도 대비 조사 대상 전체 논문이 95편에서 72편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2021년도 철학사상, 교육,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전년도 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특히 경학사상은 전년도 16편에서 8편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학사상 분야에서는 『주역』이 2편, 『논어』 2편, 『맹자』3편, 『상서』1편이다. 경학 분야의 논문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출토문헌 관련 연구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2021년도 철학 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주역』 관련 박사 논문이 4편이고 일반논문이 12편이나 발표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역학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왕충에 관한 박사논문 1편이 발표되어, 앞으로 한대 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기(禮記)』와 『춘추』 분야는 연구자와 연구 성과가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도 정치 분야 연구에서 『예기』 「악기(樂記)」, 『춘추』, 『춘추 좌씨전』등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이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 경학사상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신예진	孟子의 道德心에 關한 朱子學派 註釋 硏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김영호	『논어』 '지명군자장(知命君子章)' 고석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영민	『논어』「자로」18장의 역사적 재해석– 제국 형성기의 동학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57	유학연구소
4	정우진	『孟子』 '不得於言, 勿求於心, 不得於心, 勿求於氣'에 대한 莊子적 해석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5	양재성	『맹자(孟子)』「이루(離婁)」편의 구성방식(構成方式)과 그 의미	한국학논집 84	한국학연구원
6	원용준	마왕퇴백서(馬王堆帛書) 『주역』을 통한 중국 고대역학(古代易學)의 재조명	유교사상문화연구 84	한국유교학회
7	이정석	『주역』 '삼진구덕괘'의 근본 문제에 대한 검토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8	이은호	『상서』고문(古文)변위(辨僞)의 성운(聲韻) 활용	유교사상문화연구 83	한국유교학회

2021년도 경학사상 분야의 연구는 8편으로, 2019년 18편, 2020년 16편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2020년에는 『주역』 분야가 6편이 발표되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었으나, 2021년도에는 2편으로 축소되었지만 작년과 같이 『상서』 1편이 발표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신예진의 논문은 맹자의 심(心)에 대한 견해가 잘 나타나 있는 〈不忍人之心章〉, 〈牛山之木章〉, 〈盡心章〉에 대한 주자학파의 주석(註釋)을 분석하고 그 핵심적 내용들을 '도덕심의 속성(屬性)과 근원(根源)', '도덕심의 회복(回復)과 함양(涵養)', '도덕심의 확충(擴充)'이라는 3개의 범주에 배치하고 심론(心論)을 체계적으로 고찰했다. 필자는 맹자와 주자 심성론(心性論)의 관계 및 주자의 심설(心說)에 대해 재검토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규명하였다.

원용준의 논문은 마왕퇴백서 『주역』을 현행본 『주역』및 기타 문헌자료들과 비교·고찰하여, 고대 역학의 한 측면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백서 『육십사괘』 고괘(蠱卦)의 상구효와 몽괘(蒙卦)의 괘사, 백서 『역

전』, 「이삼자문(二三子問)」편과 「요(要)」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규명하였다. 필자는 작년에 청화간(淸華簡) 서법(筮法)에 담겨 있는 전국시대 역학 및 점술에 대하여 한대 역학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석 고찰하였고, 금년에는 마왕퇴백서 『주역』을 현행본 『주역』및 기타 문헌자료들과 비교·고찰하여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지속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주역』이외에 이은호의 논문에서는 『상서』고문(古文)변위(辨僞)의 성운(聲韻) 활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논어』, 『맹자』, 『주역』, 『서경』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학연구 성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도 더욱 심도 있는 분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선천강	『周易』 해석의 諸樣相과 군자론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	김현미	『周易』과 『淮南子』를 통한 '意象論'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3	이도경	『周易』의 修養論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4	황서영	『周易』 점사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논리적 정당성에 준거한 명리통변의 병용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5	김영주	王充의 비판유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6	임병학 유병헌	「繫辭上」 제4장과 『주역』의 학문체계 고찰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7	이선경	주역의 죽음관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8	이난숙	『주역』에 담긴 '옥(獄)'의 의미와 해석 특징	유학연구 54	유학연구소
9	고윤숙	천지(天地)를 '본받음[以]'의 철학 —『주역(周易)』 건·곤괘(乾·坤卦) 「대상전(大象傳)」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10	고도연	기호학을 통한 『주역』의 이념과 감정 분석: 무왕 서사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1	한국동서철학회
11	주영우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주역』의 생명정신과 생태적 가치관	유학연구55	유학연구소
12	황광우	克己復禮의 맥락 이해 (contextual understanding) –『춘추좌전』과 『논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100	범한철학회
13	윤무학	五行의 원시적 배속과 상호관계 – 『左傳』과 『國語』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6	율곡학회
14	이석현	중국 재이관의 성립과 변용	인문사회과학연구 22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5	서정화	한대 천문역법 기록을 통해 본 '先天·後天' 의미 고찰 — 易과 曆의 가름과 조합에 대한 비근의 이해를 모색하며 —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16	안외순	호혜적 공감의 문화정전 『논어』와 『맹자』	동방학 45	동양고전연구소
17	정세근	왕필의 신화와 논어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18	김 형 정세근	공자의 권(權) 개념과 인간의 유형	범한철학 100	범한철학회
19	정세근	왕필, 하안, 그리고 『주역』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20	이인화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유교 및 공자 인식과 국민도덕론 체계에서의 활용	동서철학연구 102	한국동서철학회
21	이석주	제자백가의 사랑 –공자와 맹자의 '사랑'과 '원망'–	철학 • 사상 • 문화 35	동서사상연구소
22	금종현	질서와 분배의 측면에서 義 개념의 연속성 고찰 — 『논어』까지 텍스트를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23	정균선	왕궈웨이가 본 중국 고대 철학의 주요 개념인 '성(性)'에 대하여 –공자·맹자·순자의 성(性)을 중심으로–	유학연구56	유학연구소
24	이강대	공자의 '道'에 관한 고찰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25	서정화	『논어』에서 말하는 공자 효 사상의 본질적 의미 – '공자에게 있어서 삼년상과 제사는 효일까?'를 절문(切問)하는 과정에서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26	정강길	"人能弘道 非道弘人"에 대한 非본체론적 道 이해 – 과정으로서의 道와 眞理에서 進理로 –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27	정세근	맹자의 심론	양명학 60	한국양명학회

28	장원태	딜레마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본 곡속장(穀觫章) –인(仁)과 지(智)의 관계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7	태동고전연구소
29	정혜진	『맹자』 사단(四端)의 한 해석: 칸트의 선험철학적 관점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30	빈동철	전국시대의 '性'에 대한 담론과 인간의 본성 — 맹자와 순자, 그리고 『郭店楚墓竹簡』의 유가 텍스트로부터 —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31	한상륜	『관자』심기론의 맹자 심기론에 대한 영향 고찰 –백해(白奚)의 『직하학 연구』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32	이강희	맹자와 고자의 대화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4	한국유교학회
33	허 석 임병학	『대종경』과 『맹자』의 인과사상 고찰	유학연구 54	유학연구소
34	이애란	『맹자』 불인지심(不忍之心)의 감각적 한계에 대한 도덕 심리학적 접근	인문과 예술 11	인문예술학회
35	이연정	선진시대 도통(道統) 의식 검토 –순자(荀子)의 도통 의식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36	배다빈	清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1	한국동서철학회
37	정영수	순자의 자연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범한철학 103	범한철학회
38	윤태양	정동(情動, affect) 개념을 통한 순자 '정안례(情安禮)'의 재해석	시대와 철학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9	조민환	조선조 유학자들의 양웅(揚雄) 이해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37	대순사상학술원
40	하가영	王充的自然元氣論與性命思想再詮釋	동양철학연구 106	동양철학연구회
41	이현철	『淵海子平』에서 드러난 '太極'과 '形體'에 대한 고찰 –漢代, 王弼, 孔穎達의 『易』사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4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1년도 철학 연구 분야는 모두 41편이다. 2019년 48편, 2020년도 46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도에는 『주역』 관련 논문이 14편으로 매우 많은 논문이 나왔고, 2020년도 6편, 2021년에도 10편이나 발표되었다. 특히 철학사상 분야의 박사논문이 5편인데 『주역』 관련 논

문이 4편이고, 1편은 왕충(王充)에 대한 논문이 나와서 향후 『주역』 관련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나머지 논문은 공자·맹자·순자와 관련된 논문등과 선진·한당시기 유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포함되어, 논의의 내용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선천강의 박사논문은 갑골 복사(卜辭) 등의 고대 출토문헌 자료를 통해 고문자적 관점에서 『역경』 괘명, 괘·효사의 본래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또한 필자는 『주역』의 경(經)과 전(傳)의 관계, 경(經)에서 전(傳)으로의 사상적 전환을 착안점으로 삼아서, 단순한 점서로서의 『역경』이 윤리·철학서인 『역전』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유가학파들이 그들의 정치관· 윤리관·사회관을 덧붙여 그 해석을 확장시켜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역경』과 『역전』의 군자 개념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군자 개념에 대한 유가 윤리적 재해석 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도경의 박사논문은 『주역』의 수양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고, 『주역』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자연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필자는 『주역』에서 인간의 등급을 소인, 군자, 대인, 성인의 네 종류로 구분한 존재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또한 『주역』에서 말하는 수양논의 실천방법에서는 배움과 깨우침, 취상비류, 진덕수업이라는 세 항목으로 나누어 탐구하였다. 이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에 이를 수 있는 『주역』 수양방법론의 실제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일반 논문 가운데 윤무학의 논문에서는 춘추전국시대의 대표적 문헌에 반영된 "오행"의 원시적 배속과 상호관계를 검토하고, 『左傳』과

『國語』를 중심으로 춘추시대 상황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서주로부터 정립되기 시작된 오행 관념의 체계가 전국시대에 이르러 음양 관념과 결합될 때까지의 발전과정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한다.

3) 교육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보경	『周易』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 사회계층 간의 위계질서와 그 도덕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	서정선	孟子의 王道政治論 硏究 : 恒心과 恒産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3	정해왕	『예기(禮記)』「악기(樂記)」 연구 – 「악기(樂記)」의 정치성과 예(禮) 악(樂)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대동철학 96	대동철학회
4	성시훈	유교적 성왕(聖王)으로 변용되는 세계의 개척자– 禹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4	한국유교학회
5	안외순	동양정치사상에서의 정의(justice) 개념의 재고찰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동방학 44	동양고전연구소
6	안춘분	공자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관중(管仲)의 집권 평가	유학연구 56	유학연구소
7	서재현 김도일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힘 –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한 『맹자』읽기 –	유학연구 57	유학연구소
8	정영수	맹자의 일치일란 역사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9	한송희	『맹자』에 나타난 고자 사상의 정치적 함의 — 『맹자』 「고자 상」 1~4장과 「공손추 상」 2장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10	정재현	윤리–정치적 진리와 순자의 正名 –三惑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3	중앙철학연구소
11	박동인	鄭玄의 讖緯理解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 – 감생제설과 우주생성론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4	율곡학회
12	김종백	『춘추 좌씨전』을 통해 본 국가 간 신뢰에 관한 고찰 – 제 환공 시대의 맹약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년 교육 분야의 연구는 5편으로, 2019년 4편, 2020년도 7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19년도에는 맹자와 순자, 그리고 공자, 순자로 이어지는 「악기」와 관련된 논문들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공자의 인성교육과 『논어』의 '학(學)', 『맹자』의 사단과 사덕에 대한 교육과정을 다룬 논문들이었다. 금년에는 공자와 묵자 사상의 도덕교육, 『맹자』의 교육관, 동중서(董仲舒)의 교육사상을 다룬 논문들이 포함되어, 논의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 확대된 점이 고무적인 현상이다.

김민재의 논문에서는 춘추 시대에 활발히 활동했던 공자와 묵자의 사상에 나타나는 동이점을 고찰하고, 여기에서 도덕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필자는 겸애와 상현, 귀의를 중심으로 공자와 묵자 사상의 동이점을 모색했다.

신창호의 논문에서는 한나라 초기 동중서의 교육적 사유와 정책을 교육의 기조에서 근거와 지향, 그리고 실천이라는 구조를 통해 검토하였다. 필자는 동중서가 '대일통(大一統)'과 '독존유술(獨尊儒術)'의 국가철학을 수립하고, '중민(中民)'의 본성을 소유한 인간을 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삼강(三剛)'을 도덕의 '기본 준칙'으로 설정하고 '오상(五常)'을 도덕의 '핵심 관념'으로 이해한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동중서의 교육사상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인데, 중국교육사상사에서 동중서 국가주의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중국 교육 사조를 인식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4) 정치 및 경제 분야 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보경	『周易』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 사회계층 간의 위계질서와 그 도덕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	서정선	孟子의 王道政治論 硏究 : 恒心과 恒産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3	정해왕	『예기(禮記)』「악기(樂記)」 연구 – 「악기(樂記)」의 정치성과 예(禮) 악(樂)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대동철학 96	대동철학회
4	성시훈	유교적 성왕(聖王)으로 변용되는 세계의 개척자– 禹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4	한국유교학회
5	안외순	동양정치사상에서의 정의(justice) 개념의 재고찰 : 『논어(論語)』를 중심으로	동방학 44	동양고전연구소
6	안춘분	공자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관중(管仲)의 집권 평가	유학연구 56	유학연구소
7	서재현 김도일	왕도정치(王道政治)와 힘 – 계층적 군집분석을 활용한 『맹자』읽기 –	유학연구 57	유학연구소
8	정영수	맹자의 일치일란 역사관을 통해 본 재난 인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9	한송희	『맹자』에 나타난 고자 사상의 정치적 함의 — 『맹자』「고자 상」 1~4장과 「공손추 상」 2장을 중심으로 —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10	정재현	윤리–정치적 진리와 순자의 正名 –三惑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3	중앙철학연구소
11	박동인	鄭玄의 讖緯理解와 그 사회·정치적 함의 – 감생제설과 우주생성론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4	율곡학회
12	김종백	『춘추 좌씨전』을 통해 본 국가 간 신뢰에 관한 고찰 – 제 환공 시대의 맹약을 중심으로 –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2021년도의 정치 및 경제 분야의 연구는 모두 12편으로, 2019년도 12편과 같고, 2020년도의 17편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작년에 경제 분야는 1편이 나왔고 정치 분야에 16편이 치중되었지만, 금년에는 경제 분야가 1편도 없어 균형을 맞추지 못한 점이 아쉽다.

김보경의 박사논문에서는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주역』을 분석하여 정치 사상적 근거를 살펴보고 『주역』의 정치사상이 가진 현대적 의의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필자는 『주역』이 지향하는 사회와 통치자에 대한 탐구를 위해 시대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경』과 『역전』을 구분하여 『주역』의 정치사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해왕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관점과 다소 다르게 「악기」에 대한 연구를 객관화시켜 비록 유학적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가치체계 밖에서 유학의 정치성과 관련한 정치체제로서의 '예'와 그것을 홍보·미화하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악'의 상관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김종백의 논문은 『춘추 좌씨전』의 문헌 상 특징을 기반으로 제나라 환공의 시기에 체결된 맹약의 유형과 특징을 유가 정치사상에 비추어 검토하고, 현대 국제 정치로의 적용 가능성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춘추 좌씨전』에 나타난 국가 간 맹약을 분석하고 현대의 국제정치와도 연관 지어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평가 할 수 있다.

5) 기타연구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희영	팬데믹[코로나19]에 대처하는 『주역(周易)』의 방도—의리적 인문학적 방법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0	민족문화연구원
2	조은영	유가(儒家) 전쟁관(戰爭觀)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유교사상문화연구 84	한국유교학회
3	권오륜 김정효	공자와 플라톤의 신체사상 비교	유학연구57	유학연구소
4	손보미	『論語』 '學' 개념의 의학교육적 함의	동양고전연구 82	동양고전학회

5	윤민향	'관계적 공격성'에 대응하는 고전교육의 응용윤리적 접근 연구 – 『논어』 읽기를 통한 치유와 인격함양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6	엄진성 정병석	순자철학과 아마추어리즘 그리고 체육교육	철학논총 104	새한철학회

2020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9편으로 2018년도 3편, 2019년도 5편에 비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2020년도 기타 연구 분야는 주역과 관련된 박사 논문이 2편이나 있고, 일반 논문이 7편이다. 먼저 이호열의 박사논문에서는 태권도의 체계적인 이론을 역학(易學)에서 모색하기 위하여 역학과 태권도의 상관성(相關性)을 규명했다. 필자는 체계적인 태권도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태권도의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역학이론(易學理論)을 제시하고, 태권도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론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태극품새'의 '태극(太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규명하기 위하여 태권도 태극품새의 역학적(易學的) 해석 방법이라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기호의 박사논문은 『주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군자를 자기 성찰적 존재이며, 인간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이며, 회복되어야 할 본래적 인간의 모습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인간완성으로서의 군자는 우환 즉 마음의 병이 없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 필자는 수덕(修德)의 원리를 말한 『주역』「계사전」의 삼진구덕괘와 그 근거가 되는 『주역』 구덕괘(九德卦)의 괘·효사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덕목 속에 투영된 수덕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환의 극복을 위한 자기 치료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일반 논문 중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논문이 2편이 있다. 김연재의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점으로서 한 대(漢代)의 재이(災異)문화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공동체의 의식을 생태주의적 시선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명의 강령을 모색했다. 이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삶이 생태적 환경 속에서 어떻게 충족될 수 있는가 하는 문명사적(文明史的)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형태는 최근의 시대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에서 인물과 주제로 나누어 논문들을 분류하고, 각 영역별 논문의 주요한 특징과 대표 논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기록된 72편의 논문은 모두 연구자들의 전공 지식과 역량이 집중된 소중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각 연구자들의 업적이며 동시에 한국 학술계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일반논문 2편을 선별하여 그 논문에 대한 분석과 학술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문은 안춘분의 「공자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관중(管仲)의 집권 평가」 이다. 이 논문은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관중의 처세에 대하여 공자의 평가에 중심을 두었으며, 그 평가의 소이연(所以然)을 『춘추』대의에 입각하여 탐색한 논문이다. 공자는 관중에 대해 그릇이 작고 사치했으며 예를 알지 못하였다고 평가절하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환공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제후를 규합할 수 있었던 것은 관중의 공(功)이니, 그가 없었다면 중국은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공자가 이처럼 관중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음으로써 훗날 치열한 치도논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관중의 평가는 유가와 도가 중심의 중국철학사에서 제3의 대안적 사상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필자는 먼저 공자의 평가 기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춘추』대의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대의의 덕목을 정명의 구현과 중화의 구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필자는 관중에 대한 공·맹의 평가를 고찰한 연후에 이러한 인물의 평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기대효

과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이 논문은 관중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두 가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논어』 「헌문」에서 공자는 관중이 백씨의 변읍 삼백호를 빼앗았는데, 백씨는 거친 밥을 먹으며 평생을 마치면서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능력이 민심을 얻었다는 증거이다. 「헌문」에서 환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는데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관중의 힘이었다고 한 것도 관중의 정치적인 능력과 재능이 매우 특별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둘째, 공자는 『논어』 「팔일」에서 그를 혹평하였다. 관중은 적장을 모셨으며, 환공이 패자가 되게 하였다. 그 후 자신도 패자인 양 사치를 하였으며, 끝내 신하로서의 정명(正名)을 자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예를 모른다는 혹평을 받았다. 다시 공자는 관중의 그릇은 작다고도 하였다. 이것은 관중이 막강한 재능과 힘이 있었으면서도 중화(中華) 세계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그 품은 뜻이 현실적인 입장에 그쳐서 더 크게 보고 행동하기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한편 맹자는 관중이 왕도를 따르지 않고, 오래 국정을 운영하면서 패업을 이룬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의 말처럼 관중의 행적을 보면, 『공양전』 장공(莊公) 13년 조와 『춘추좌전』 장공 32년 조와 『춘추좌전』 희공 12년 조에서는 정명을 다하였고, 위의 내용 이외에 『춘추좌전』에는 희공 24년, 희공 33년, 소공 11년에 기록이 보이는데, 『춘추좌전』 희공 24년에는 "제나라 환공은 자기 띠의 고리를 쏘아 맞춘 일을 불문(不問)에 붙이고 관중으로 하여금 재상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춘추좌전』 희공 33년에는 "관중은 제나라 환공의 원수였는데도, 실로 환공을 도와서 패자가 되게 하였

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관중이 제환공의 신하가 된 것이 정명에는 맞지 않은 것이므로 이후에 정명에 의한 정치를 잘 하였다고 하여도 애초부터 어긋난 점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필자는 『춘추좌전』 희공 12년 조에서는 관중은 정명의 실현을 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춘추좌전』 희공 33년에는 관중이 제환공의 신하가 된 것이 정명에는 맞지 않다고 하여 글 전체의 방향성이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이 모순점에 대하여 정약용의 『논어고금주』에서 이론적 근거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이(程頤)와 주희는 모두 환공이 형이고 자규(子糾)가 아우라고 한다. 정이가"환공은 형이고 자규는 아우인데, 양공(襄公)이 죽으니 환공이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희 역시 "관중이 죽지 않을 수 있음은 바로 소백(小白)이 형이고 자규가 아우이기 때문이다"라 했다. 그렇지 않다면 환공과 관중이 함께 협력할 수 없으며 공자가 이를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분적 질서에 따른 의리를 중시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모기령(毛奇齡)은 "자규 소백은 모두 제 희공(僖公)의 아들이고 제 양공(襄公)의 아우이다. 그러나 자규가 형이고 소백은 아우이다. 정(程)· 주(朱) 두 사람만 홀로 환공이 형이고 자규가 아우라고 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홀(召忽)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다른 한편 관중의 죄를 감하려고 했다"고 했다. 정(程)·주(朱)의 주장은 공자의 긍정적 평가를 전통적 명분론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신시기군(臣弑其君), 자시기부(子弑其父)와 함께 제시기형(弟弑其兄)도 춘추시대에 세상은 쇠하고 도가 희미해지는 것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느냐이다. 정약용은 『사기』 에는 양공(襄公)의

다음 동생이 규이고 다음 동생이 소백이라고 되어있음을 취하여 "환공이 아우이고 규가 형임은 분명하다."고 하여 모기령의 견해에 찬동한다. 환공이 아우일지라도 그래서 아우가 형을 죽인(弟弑其兄)결과가 된다 해도 관중의 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있다.

그런데 정약용은 환공이 규를 죽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동하지 않는다. 그는 규를 죽인 것은 『춘추』에 의하면 "제인(齊人)이 죽였다"고 했고, 『관자』에는 "노인(魯人)이 죽였다"고 했다는 근거를 든다. 환공이 규를 죽인 것이 아니라면 아우가 어찌 형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고 만다.

또한 『논어』 「헌문」에서 자공이 말하였다. "관중은 인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환공이 규를 죽였으니 환공은 이에 관중의 원수이다. 관중이 죽지 못하면 말 것이지, 환공을 섬겨서 재상이 되어 군주를 잊고 원수를 섬기니 마음이 잔인하고 이치에 해롭다." 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도로 대답하였다. "환공을 도운 것이 큰 공이 되고 규에게 죽는 것이 작은 절개가 됨을 밝혀서 인에 해로울 것이 없다." 그렇다면 필자가 관중이 제환공의 신하가 된 것이 정명에는 맞지 않은 것이므로 이후에 정명에 의한 정치를 잘 하였다고 하여도 애초부터 어긋난 점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시한 관점은 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관중의 집권 평가는 왕패논쟁에 담긴 유교의 정치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필자의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확대된다면 이 분야 연구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논문은 장원태의 「딜레마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

본 곡속장(觳觫章) -인(仁)과 지(智)의 관계를 중심으로」이다. 필자는 『맹자』「양혜왕상」 7장에서 맹자가 딜레마처럼 보이는 세 상황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제선왕이 소를 살리려고 하는 일은 흔종과 양립하기 어렵고, 둘째, 군자가 희생물에 대해 갖는 동정심은 희생제의와 육식과 양립하기 어렵고, 셋째, 백성을 보호하는 일과 제선왕의 바람은 양립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 상황 모두에서 행위자가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이를 그대로 실천할 때 다른 한쪽을 저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맹자가 딜레마를 해소하고 동정심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인정(仁政)을 제시한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세 상황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과 의의 실제를 알고 이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 주는 지혜〔智〕(「이루상」 27)나, 통치자가 인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실패하지 않고, 실제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해주는 지혜(「이루상」 1)에 상응한다고 진단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맹자가 이 장에서 인한 마음을 실천으로 옮길 때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즉 인의 실천을 위한 맹자식의 실천적 지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곡속장(觳觫章)에서 중요한 것은 왕의 행위가, 소보다 양의 값이 싸기 때문에 소를 양으로 바꾸겠다는 유용성을 초월해 있다는 점이다. 제선왕은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하여' 소를 살려야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소의 죽음을 차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불인인지심'이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상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었으므로 왕은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때문에 곡속장은 제선왕의 행위를 인술(仁術)이라고 말한 점에서, 유교의 최고 덕목인 인이 불인인지심이라는 미적 차원의 정감, 또는 측은지심

의 확장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필자는 곡속장의 전개 과정 전반을 딜레마의 해결로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독특한 소재로 다루고 있다. 제선왕은 딜레마 상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소를 살리면 흔종을 폐지해야 하고, 흔종을 진행하면 소는 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가 보기에 제선왕은 소에게 느낀 측은지심을 보존하면서도 흔종을 실행하는 데 성공했다. 딜레마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선왕은 소를 자신이 보지 못한 양으로 바꾸어 문제를 해소해 버린 것이다.

맹자는 또 다른 상황, 군자가 짐승을 죽이는 일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제시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물에게 느끼는 측은지심과 짐승을 죽이는 일은 쉽게 양립하기 어렵고, 군자는 딜레마에 빠질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맹자는 군자가 푸줏간을 멀리하는 일이 양자를 양립하게 하는 방법인 인술(仁術)이라고 말하며 제선왕이 했던 일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후반부에서 맹자의 논변을 통해 제선왕은 앞에서와 유사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제선왕은 천하의 정치 질서를 안정시키는 일과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맹자의 말대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면 자신의 바람을 이룰 수 없고, 자신의 바람을 이루려고 하면 제선왕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왜 유독 이 장에서 딜레마로 보이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논한 것일까? 필자는 맹자가 이 장에서 인한 마음의 발생과 인한 마음의 확장으로서의 인정(仁政)뿐 아니라, 인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智〕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물론, 맹자는 이 장에서 단 한 차례도 지혜〔智〕라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

러나 필자는 본고에서 맹자가 지혜를 논한 다른 대목(「공손추상」 7·「이루상」 1·「이루상」 27·「만장하」 1)을 참고해, 이 장에서 제시한 방법인 인술과 인정은 인의 실천을 위한 지혜에 해당함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을 읽고 느낀 점을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맹자가 곡속장에서 인한 마음의 발생과 인한 마음의 확장으로서의 인정(仁政)뿐 아니라, 인을 실천하기 위한 지혜〔智〕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제선왕이 지혜롭지 못하여 결국 인한 마음을 보존하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한다면 주의해야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 먼저 주희의 관점을 통하여 질문하면 다음과 같다.

주희는 보통사람이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있지만 '불인인지정(不忍人之政)'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물욕에 가려서 그렇다는 것이다. 오직 성인만이 물욕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불인인지심'을 미루어 '불인인지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주희는 군주가 '불인인지심'이 있지만 '불인인지정'을 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말하였다. 자산(子産)이 정(鄭)나라의 정치를 주관하고 있을 때 자신이 타던 수레를 이용하여 진수와 유수에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것을 도와준 일에 대해 주희가 "자산은 불인인지심은 있으나 불인인지정은 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산은 사사로운 은혜와 작은 이익에 치우쳐 정사를 공평하고 정대한 체통과 법도로써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맹자도 자산이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를 하는 법을 모른다고 경계했다.

그리고 제선왕이 흔종에 쓰려고 죄 없이 사지(死地)에 끌려가는 소를 보고 '불인인지심'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본 맹자는 인정(仁政)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 주희는 제선왕의 측은지심이 사지에 끌려가는 소에게 미쳤다면 백성을 사랑하고 '불인인지정'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만 노력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희는 "옛사람은 반드시 친친(親親)에서 인민(人民)으로 인민(人民)에서 애물(愛物)에 미치니, 모두 가까운 데서 먼 곳에 이른다. 그런데 제선왕은 이것을 반대로 하였으니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까닭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볍고 짧아서 공효(功效)가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주희는 제선왕이 불인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명(功名)과 사욕에 빼앗겨서 인정을 행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용환의 「맹자의 선천적이고 직관적인 선의 실행 가능성」논문에서는 선 실행의지와 관련하여 도덕의지 결핍을 유혹과 나태로 꼽고 있으며 선 실행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덕의지의 결핍은 이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와 더불어 인식의 부족, 정치사회적 문제 등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선 실행 의지를 강화하는데 '사려' 외에도 교육적 차원, 문화적 차원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주희의 관점과 정용환의 견해만 보더라도, 필자가 제선왕이 지혜롭지 못하여 인한 마음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밝힌 점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선왕이 불인인지심은 있지만 인정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공명(功名)과 사욕에 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정치를 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일 수 도 있고, 교육적 차원, 문화적 차원 등 다양한 원인이 가능할 수 있다. 필자 말대로 곡속장에서 단 한 차례도 지혜〔智〕라는 단어를 거론하지 않았다. 향후 필자가 『맹자』 곡속장에 대해 주희의 견

해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선행연구도 보충하여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된다면, 곡속장연구의 지평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5. 평가와 전망

2021년도의 선진시대부터 한당시대까지 국내의 유학 및 유교 관련 논문 편수는 모두 72편이다. 2019년도 86편, 2020년도 95편과 비교해 보면 대폭 줄었다. 시대별로는 전체 72편 중 선진시기가 총 65편으로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했고, 진한시기 6편, 당나라 시기 1편으로 예년보다 줄었다. 2021년도 전체 72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10편으로 2019년도 86편의 논문 중에 박사논문이 6편보다는 소폭 늘었고, 2020년도 95편의 논문 중에 16편의 박사논문 보다는 소폭 줄었다. 2021년도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논문의 수가 72편으로 전년도보다는 적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공자와 맹자 관련 논문 그리고 철학 분야와 정치 분야가 소폭 늘어 중진 학자들은 물론 신진 역할과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물별 분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선진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 순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물별 연구 특징은 2021년에는 공자에 대한 연구가 19편으로 꾸준히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19편중 박사논문이 1편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반 논문은 공자철학의 학술사적 가치를 다룬 논문을 비롯하여, 공자의 도덕철학, 『춘추좌전』과 『논어』를 중심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의 맥락이해, 공자와 플라톤의 신체사상 비교 등 을 다루고 있어서 융복합적인 성격을 띤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맹자 관련 논문은 2021년도 17편으로 2020년도 17편과 동일한 편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박사 논문이 2편이 나왔고, 2021년에

도 3편이 발표되어 향후 맹자 분야 연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순자에 대한 연구가 2021년에 7편으로 전년도 8편과 비슷하고, 2020년에는 박사논문이 1편도 없었으나 2021년도에는 1편이 발표되었다. 일반 논문의 내용은 순자 철학의 정명(正名), 정안례(靜安禮), 체육교육과 순자 철학 등에 대한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왕충에 관한 박사논문 1편이 발표되어, 앞으로 한대 사상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적은 편수이지만, 동중서, 왕충, 정현, 양웅, 왕필의 한대 유학사상가들과 당대 공영달의 연구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한·당 연구 분야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2021년도 철학사상, 교육, 정치 및 경제, 기타 분야는 전년도 보다 소폭 줄어들었으나, 특히 경학사상은 전년도 16편에서 8편으로 절반이 줄어들었다. 2021년도 철학연구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주역』 관련 일반논문이 12편이고 박사 논문이 4편이나 나왔으며, 『주역』의 정치사상 박사논문 1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도 『주역』의 괘효나 수양론, 죽음관, 『주역』관련 생명정신을 분석한 연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예기(禮記)』와 『춘추』 분야는 연구자와 연구 성과가 부족한 실정인데, 금년도 정치 분야 연구에서 『예기(禮記)』「악기(樂記)」, 『춘추』, 『춘추 좌씨전』등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이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유학의 경전과 교육·정치 등의 다양한 학문과의 접목을 통하여 융복합적 지식 축적과 내외 조화의 인격형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되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유학사상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하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집중적

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여 유학이 현재성을 지닌 학문으로서 가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제2장

송대 유학 연구

박지훈

1. 머리말

본 보고서는『2021년 한국유교 레포트-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 송대 유학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2021년 국내 대학에 제출된 석사·박사학위논문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을 기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국내 석·박사논문,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원대(元代) 유학 관련 논문 4편을 포함하여 총 43편이다. 2018년 46편, 19년 21편, 20년 10편과 비교했을 때 편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2018년의 수준만큼 다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전에 없던 호원, 장구성, 황진, 전시에 관한 논문이 새롭게 나왔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북송시대 성리학자인 호원(안정, 993-1059), 소옹(강절, 1011-1077), 주돈이(염계, 1017-1073), 장재(횡거, 1020-1077), 정이(이천, 1033-1107), 소식(동파, 1036-1101), 남송시대 성리학자인 장구성(횡포거사, 1092-1159), 주희(회암, 1130-1200), 육구연(상산, 1139-1192), 양간(자호, 1141-1226), 채침(구봉, 1167-1230), 전시(융당, 생몰년 미상), 황진(동발, 1212-1280)과 원대 성리

학자인 허형(노재, 1209-1281), 오징(초로, 1249-1333)에 관한 논문 등 총 15명의 유학자들에 관한 논문과 어떠한 특정 인물에도 속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설정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논문이 복수의 인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을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여 1)경학, 2)이기론, 3)심성론, 4)수양론, 5)인식론, 6)비교, 7)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논문이 복수의 주제와 관련된 경우에도 관련된 목록을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분석·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2. 인물별 분류

전년도(2019년) 인물에 관한 논문은 북송 시대에는 소옹 1편, 주렴계 1편, 장재 1편, 정호 3편, 정이 1편의 일반 논문이 있었으며, 남송 시대에는 주희 8편, 장식 1편, 육구연 1편, 채침 1편의 논문이 있었다. 주렴계와 채침은 주희와의 관련 논문이었다. 그리고 학위논문은 보이지 않았다. 2020년도엔 소식의 논문이 1편 새로 등장했고 정명도 1편, 주희의 논문이 7편이다.

1) 호원(안정, 993–1059),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환희	호원 사상이 제자 정이에게 미친 영향	동양고전연구 제82집	동양고전학회

호원에 관한 논문은 1편으로 호원사상이 정이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정환희는 먼저 호원과 정이의 사승관계를 논하였으며, 그런 다음 정이의 「호학론」과 『이천역전』이 호원의 심성수양론과 의리역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전 호원에 관한 논문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2) 소옹(강절, 1011–1077),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진무	소옹의 선천역학과 황극경세의 원리	학위논문(석사) 2021. 2	공주: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소옹에 관한 논문은 석사논문 1편으로 소옹의 선천역학의 시대적 배경과 진단의 도상학(圖象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象)과 수(數), 리(理)로써 우주의 운행원리와 자연 세계의 이치를 논하였고 또한 소옹 역학의 핵심 사상인 선천역학(先天易學)과 황극경세의 원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전 소옹에 관한 논문은 2018년 일반논문 3편과 박사학위논문 1편, 2019년 일반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소옹에 관한 연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3) 주돈이(염계, 1017–1073), 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학용	음양과 오행의 상관성 – 주돈이·주희 이론 중심의 기하학적 고찰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2	김제란	송대(宋代) 주돈이 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문화와 융합 제43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3	이대승	「태극도」 연구의 새로운 탐색 –'구「태극도」'의 존재와 의의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정환	도학(道學) 문론(文論)에서의 재도(載道)와 주돈이(周敦頤) 「문사(文辭)」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재검토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4편으로 음양오행, 「태극도」, 불교와 주돈이 철학의 연관성, 『통서』·「문사」에서의 재도(載道)의 의미와 위상 등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주돈이에 관한 논문은 2018년 일반논문3편, 2019년 일반논문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돈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감소

했다가 2021년에는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4) 장재(횡거, 1020–1077),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제란	송대(宋代) 장재 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문화와 융합 제43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	장석호	장횡거의 수양론 연구 : 우주론과 관련하여	학위논문(박사)	익산: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3	정환희	만물일체와 리일분수 -「서명」을 바라보는 두 시선과 그 공부론	교육사상연구 제35권 제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장재에 관한 논문은 모두 3편으로 일반논문2편, 박사학위논문1편이다. 논문3편의 주 내용은 불교와 장재철학의 연관성, 수양론, 「서명」에 대한 만물일체와 리일분수의 관점과 그에 따른 공부론이다. 이전 장재에 관한 논문은 2018년과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2019년에 1편 발표되었다.

5) 정이(이천, 1033–1107), 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이연정	정이(程頤) '경'에 대한 소고(小考) – 공부 원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72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	정환희	호원 사상이 제자 정이에게 미친 영향	동양고전연구 제82집	동양고전학회

정이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경'공부에 관한 논문과 정이사상과 호원사상의 연관성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정이에 관한 논문은 2018년 일반논문3편, 2019년 일반논문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에 2편이 발표되었다.

6) 소식(동파, 1036–1101),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차영익	소식(蘇軾)의 『동파역전(東坡易傳)』에 나타난 괘효구조(卦爻構造)를 바라보는 제물론적 인식	태동고전연구 제46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소식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소식의 『주역』을 바라보는 제물론적 관점에서 『동파역전』에 나타난 괘효구조를 해명한 논문이다. 이전 소식에 관한 논문은 2018년과 2019년에는 발표되지 않았고 2020년에 소식의 인성론에 관한 논문 1편이 발표되었으며 2021년에도 1편이 발표되었다.

7) 장구성(횡포거사, 1092–1159),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영식	張九成의 中和說에 관한 연구 –『中和說』의 『中庸』 1장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제36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장구성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장구성의 중화설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을 통해 송대 주희 이전의 낙학(洛學) 및 도남학(道南學) 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철학적 논의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전 장구성에 관한 논문은 2018년 이춘영(李春穎)의 「장구성과 주희의 신독사상비교〔张九成与朱熹慎独思想比较〕」라는 중국어논문1편이 『유학연구』에 발표되었고 2019년,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8) 철학 연구 분야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백녕	주자의 일물(一物)과 이물(二物), 그 실천철학적 함축과 전개양상 연구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수연 신창호	듀이(J. Dewey)와 주희(朱熹)의 교육목적 비교: 『학교와 사회(The School and Society)』와 『소학(小學)』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제15권 제2호	한국인격교육학회
3	김종용	儒·佛의 修養·修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비교분석: 知訥과 朱熹를 中心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7집	원불교사상연구원
4	김종용	知訥과 朱熹의 倫理思想에 대한 比較分析 –心性論을 中心으로–	불교연구 제54집	한국불교연구원
5	김학용	음양과 오행의 상관성 – 주돈이·주희 이론 중심의 기하학적 고찰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6	김형찬	이학(理學)과 심학(心學), 그 간극 극복의 과제 – 주자의 만년설과 퇴계의 문제의식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7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絜矩)' 함의 연변 고찰 —정현(鄭玄)과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10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8	신예진	孟子의 道德心에 關한 朱子學派 註釋 硏究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9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 『論語』 解釋	퇴계학보 제149집	퇴계학연구원
10	유준필	『論語集註』의 문헌학적 읽기(1) – 「學而」편 1장의 주석 분석	대동문화연구 제113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1	이용태	朱熹의 '理''氣'· 栗谷의 '理''氣'와 기독교 '靈''肉' 談論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2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12	이종우	주희의 미발공부 유무와 호락논쟁	온지논총 제67집	온지학회

13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과 그 공부의 유무 – 성인과 중인(衆人)에 관련하여 –	율곡학연구 제45집	(사)율곡연구원
14	이찬	주희와 왕양명의 덕 윤리와 덕 인식론 –시비지심과 양지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5	정환희	통찰: 활연관통(豁然貫通)의 현대적 해석	동양고전연구 제84집	동양고전학회
16	조병무	朱熹明德觀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3집	한국유교학회
17	조현웅	유가 귀신론의 사유 구조와 주희 귀신론의 독법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주광호	朱陸 經典觀 비교 연구	철학연구 제159집	대한철학회
19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99호	한국동서철학회
20	한지윤	주희(朱熹)의 학(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무(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21	홍린	주희 이고(李翱) 멸정론(滅情論) 비판의 타당성 재고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2	황갑현	中和新說과 주희철학의 핵심 本領	범한철학 제102집	범한철학회

주희에 관한 논문은 모두 22편으로 일반논문 20편과 박사학위논문 2편이다. 2021년 발표된 송대유학관련 전체논문 중 51%를 차지하고 있다. 논문의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주제도 다양하다. 특히 20세기 서양 철학자와의 비교와 기독교와의 비교연구는 매우 새롭다. 이전 주희에 관한 논문은 매년 다른 인물들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8년에는 45편 중 27편이고 2019년에는 21편 중 8편이며 2020년에는 10편 중 7편이다.

9) 육구연(상산, 1139–1192),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주광호	朱陸 經典觀 비교 연구	철학연구 제159집	대한철학회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유가 경전에 대한 주희와 육구연의 관점을 비교한 논문이다. 이전 육구연에 관한 논문은 2018년 2편, 2019년 1편이 발표되었고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0) 양간(자호, 1141–1226),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양간의 『시경』 주석 연구 – 『자호시전』의 구성 체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	양명학 제60호	한국양명학회

양간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양간이 『시경』을 주석한 『자호시전』의 구성체제와 특징에 관한 논문이다. 이전 양간에 관한 논문은 2018년에 이동욱의 「양간(楊簡) 『서경』 주석의 특징 연구 - 「가기이(家記二) 」: 논서(論書)」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 1편 발표되었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1) 채침(구봉, 1167–1230),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서윤	錢時의 『融堂書解』 와 蔡沈의 『書集傳』 해석 비교 – 「禹貢」편의 '旅'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채침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상서』의 주석서인 채침의 『서집전』과 전시의 『융당서해』를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이전 채침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1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2) 전시(융당, 1175–1244),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서윤	錢時의 『融堂書解』와 蔡沈의 『書集傳』 해석 비교 –「禹貢」편의 '旅'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전시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상서』의 주석서인 채침의 『서집전』과 전시의 『융당서해』를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이전 전시에 관한 논문은 2019년에 당명귀(唐明貴)의 「錢時《論語》詮釋的特色」이라는 중국어논문과 김서윤의 「송대 유학자 錢時의 『중용』 해석 연구 – 주희의 『중용장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논문 2편이 발표되었으나 2020년에는 발표되지 않았다.

13) 황진(동발, 1212–1280), 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상수	황진(黃震)의 인심유위장(人心惟危章) 해석을 통해 본 남송(南宋) 말 학술의 일면	태동고전연구 제47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황진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황진의 『황씨일초(黃氏日抄)』·「인심유위일장(人心惟危一章)」에 나타난 전심설(傳心說)과 심학(心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남송말 학술계의 일면을 드러낸 논문이다.

이전의 황진에 관한 논문은 이범학이 2001년에 발표한 「황진의 이학과 심학비판」과 2003년에 발표한 「황진 사상의 경세적 특징」이 있고, 그 이후로는 10여 년간 발표되지 않다가 2015년 중국학자인 당명귀(唐明貴)가 『유교사상문화연구』에 「黃震《讀論語》的學術特色」이란 논문을 중국어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황진을 연구한 논문은 1편도 발표되지 않았다.

14) 허형(노재, 1209–1281), 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노재(魯齋) 허형(許衡)의 「독역사언(讀易私言)」 분석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이해임	허형(許衡)과 정몽주(鄭夢周)의 화이관(華夷觀)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46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허형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허형의 『주역』 주석서인 「독역사언(讀易私言)」에 대해 분석한 논문과 허형과 정몽주의 화이관을 비교한 논문이다. 이전에 허형을 연구한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2021년에 2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15) 허형(노재, 1209–1281), 2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안재호	오징(吳澄) 심학(心學)의 공부론 천석(淺析) — 존덕성(尊德性)와 도문학(道問學)의 변증법	중국학보 제98집	한국중국학회
2	안재호	吳澄의 '心學' 체계 芻議	율곡학연구 제45집	(사)율곡연구원

오징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2편으로 오징의 심학(心學)적 공부론에 대해 분석한 논문과 오징의 '심학'체계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전에 발표된 오징과 관련된 논문은 임재규가 2017년에 발표한 「오징(吳澄)의 『주역(周易)』 해석 방법론」이 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편도 없다.

16) 송대유학 관련, 3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강희	宋代 新儒學者들의 仁論과 理一分殊 개념	東洋哲學 제56집	한국동양철학회
2	이찬	사상, 철학, 그리고 유학: 송명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경로	한국사상사학 제67집	한국사상사학회
3	조민환	宋明유학자들의 顔回理解에 관한 연구 - 顔回의 '屢空'적 삶에 대한 미학적 이해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제53호	한국동양예술학회

송대유학 관련 논문은 어떤 특정 인물에도 속하지 않는 논문으로 송대 유학자들의 인론(仁論)과 리일분수(理一分數) 개념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분석하여 정리한 논문, 송명유학을 연구하는 '사상'과 '철학'의 방법론적 문제를 성찰하여 '유학'을 인식론적 틀 속에 재정의 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논문, 안회의 삶에 대한 송명유학자들의 미학적 이해와 재인식을 연구한 논문 등 모두 3편이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총 43편의 논문 중 기타 8편을 제외한 35편으로 일반 논문 31편과 4편의 학위논문이 있다. 따라서 35편의 논문을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각 주제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11편, 이기론4편, 심성론7편, 수양론10편, 인식론1편, 비교8편이다.

1) 경학(1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서윤	錢時의 『融堂書解』와 蔡沈의 『書集傳』 해석 비교 –「禹貢」편의 '旅'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	박소현	중국 유학사에 나타난 '혈구(絜矩)' 함의 연변 고찰 —정현(鄭玄)과 주희(朱熹)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10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3	박영식	張九成의 中和說에 관한 연구 –『中和說』의 『中庸』 1장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제36호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4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 『論語』 解釋	퇴계학보 제149집	퇴계학연구원
5	유준필	『論語集註』의 문헌학적 읽기(1) –「學而」편 1장의 주석 분석	대동문화연구 제113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6	이동욱	양간의 『시경』 주석 연구 – 『자호시전』의 구성체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	양명학 제60호	한국양명학회
7	이원석	노재(魯齋) 허형(許衡)의 「독역사언(讀易私言)」 분석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이진무	소옹의 선천역학과 황극경세의 원리	학위논무(석사)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9	조병무	朱熹明德觀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3집	한국유교학회

10	차영익	소식(蘇軾)의 『동파역전(東坡易傳)』에 나타난 괘효구조(卦爻構造)를 바라보는 제물론적 인식	태동고전연구 제46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1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99호	한국동서철학회

경학에 관한 논문은 주로 『서경』, 『시경』, 『주역』, 『대학』, 『중용』, 『논어』 등을 연구한 논문으로 『서경』 1편, 『시경』 1편, 『주역』 3편, 『대학』 3편, 『중용』 1편, 『논어』 2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주역』과 『대학』관련 논문이 각각 3편으로 가장 많고 『논어』관련 논문이 2편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전에 발표된 경학 관련 논문은 2018년 9편, 2019년 3편, 2020년 3편이 있다.

2) 이기론(4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학용	음양과 오행의 상관성 – 주돈이·주희 이론 중심의 기하학적 고찰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2	이대승	「태극도」 연구의 새로운 탐색 –'구「태극도」'의 존재와 의의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이용태	朱熹의 '理''氣'· 栗谷의 '理''氣'와 기독교 '靈''肉' 談論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2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5	조현웅	유가 귀신론의 사유 구조와 주희 귀신론의 독법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이기론에 관한 논문은 주로 음양오행, 태극, 이기(理氣), 귀신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이전에 발표된 이기론 관련 논문은 2018년 10편, 2019년 4편, 2020년 1편이 있다.

3) 심성론(7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용	知訥과 朱熹의 倫理思想에 대한 比較分析 –心性論을 中心으로–	불교연구 제54집	한국불교연구원
2	김형찬	이학(理學)과 심학(心學), 그 간극 극복의 과제 – 주자의 만년설과 퇴계의 문제의식 –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3	신예진	孟子의 道德心에 關한 朱子學派 註釋 硏究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4	안재호	吳澄의 '心學' 체계 芻議	율곡학연구 제45집	(사)율곡연구원
5	윤상수	황진(黃震)의 인심유위장(人心惟危章) 해석을 통해 본 남송(南宋) 말 학술의 일면	태동고전연구 제47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6	이강희	宋代 新儒學者들의 仁論과 理一分殊 개념	東洋哲學 제56집	한국동양철학회
7	홍린	주희 이고(李翱) 멸정론(滅情論) 비판의 타당성 재고	유학연구 제55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심성론에 관한 논문은 심성론(心性論), 심학(心學), 심(心), 인(仁), 정(情)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심성론 1편, 심학 3편, 심 1편, 인 1편, 정 1편이 발표되었다. 그 중 심학관련 논문이 3편으로 가장 많다. 이전에 발표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2018년 2편, 2019년 3편, 2020년 3편이 있다.

4) 수양론(10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용	儒·佛의 修養·修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비교분석: 知訥과 朱熹를 中心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87집	원불교사상연구원

2	안재호	오징(吳澄) 심학(心學)의 공부론 천석(淺析) — 존덕성(尊德性)와 도문학(道問學)의 변증법	중국학보 제98집	한국중국학회
3	이연정	정이(程頤) '경'에 대한 소고(小考) – 공부 원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	중국학논총 제72집	한국중국문화학회
4	이종우	주희의 미발공부 유무와 호락논쟁	온지논총 제67집	온지학회
5	이종우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과 그 공부의 유무 – 성인과 중인(衆人)에 관련하여 –	율곡학연구 제45집	(사)율곡연구원
6	장석호	장횡거의 수양론 연구 : 우주론과 관련하여	학위논문(박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7	정환희	만물일체와 리일분수 –「서명」을 바라보는 두 시선과 그 공부론	교육사상연구 제35권 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8	정환희	통찰: 활연관통(豁然貫通)의 현대적 해석	동양고전연구 제84집	동양고전학회
9	조병무	朱熹明德觀考察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3집	한국유교학회
10	한지윤	주희(朱熹)의 학(學)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11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99호	한국동서철학회

수양론에 관한 논문은 수양·수양론, 공부론, 존덕성(尊德性)·도문학(道問學), 미발공부, 경(敬)공부, 활연관통(豁然貫通), 학(學) 등과 관련하여 연구한 논문으로 수양·수양론 3편, 공부론 1편, 존덕성·도문학 1편, 미발공부 2편, 경(敬)공부 1편, 활연관통 1편, 학(學) 1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수양·수양론 관련 논문이 3편으로 가장 많고 미발공부 관련 논문이 2편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전에 발표된 수양론 관련 논문은 2018년 10편, 2019년 3편, 2020년 2편이 있다.

5) 인식론(1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찬	주희와 왕양명의 덕 윤리와 덕 인식론 –시비지심과 양지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인식론에 관한 논문은 일반논문 1편으로 주희와 왕양명의 담론을 검토하여 도덕적 덕성과 지(智)적 덕성의 통일적 이해에서 덕성인 '지(智)'의 내재화가 갖는 의미를 연구한 논문이다. 이전에 발표된 인식론 관련 논문은 2018년 3편, 2019년 3편이 있고, 2020년에는 없다.

6) 비교(8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서윤	錢時의 『融堂書解』 와 蔡沈의 『書集傳』 해석 비교 –「禹貢」편의 '旅'자를 중심으로	중국학 제74집	대한중국학회
2	김수연 신창호	듀이(J. Dewey)와 주희(朱熹)의 교육목적 비교: 『학교와 사회(The School and Society)』와 『소학(小學)』을 중심으로	인격교육 제15권 제2호	한국인격교육학회
3	김종용	儒·佛의 修養·修行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비교분석: 知訥과 朱熹를 中心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원불교사상
4	김종용	知訥과 朱熹의 倫理思想에 대한 比較分析 –心性論을 中心으로–	제87집	연구원
5	이용태	朱熹의 '理''氣'· 栗谷의 '理''氣'와 기독교 '靈''肉' 談論	불교연구 제54집	한국불교
6	이해임	허형(許衡)과 정몽주(鄭夢周)의 화이관(華夷觀) 연구	한중문화언어연구 제62집	연구원
7	주광호	朱陸 經典觀 비교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46집	한국중국언어문화연구회
8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159집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비교에 관한 논문은 모두 8편으로 크게 인물과 인물의 비교, 종교와의 비교, 경전주석서의 비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물과 인물의 비교가 5편, 종교와의 비교가 2편, 경전주석서 비교가 1편이다. 그중 인물과 인물의 비교가 5편으로 가장 많다. 이전에 발표된 비교 관련 논문은 2018년에 4편이 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없다.

7) 기타(8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백녕	주자의 일물(一物)과 이물(二物), 그 실천철학적 함축과 전개양상 연구	유학연구 제57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제란	송대(宋代) 주돈이 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문화와 융합 제43권 7호	한국문화융합학회
3	김제란	송대(宋代) 장재 철학에 미친 불교의 영향	문화와 융합 제43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4	이정환	도학(道學) 문론(文論)에서의 재도(載道)와 주돈이(周敦頤) 「문사(文辭)」의 의미와 위상에 대한 재검토	퇴계학보 제150집	퇴계학연구원
5	이찬	사상, 철학, 그리고 유학: 송명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경로	한국사상사학 제67집	한국사상사학회
6	정환희	호원 사상이 제자 정이에게 미친 영향	동양고전연구 제82집	동양고전학회
7	조민환	宋明유학자들의 顔回理解에 관한 연구 – 顔回의 '屢空'적 삶에 대한 미학적 이해의 재인식을 중심으로	동양예술 제53호	한국동양예술학회
8	황갑연	中和新說과 주희철학의 핵심 本領	범한철학 제102집	범한철학회

위에 제시한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등 여섯 가지 주제에 포함되지 않은 논문을 기타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전에 발표된 기타논문은 2018년 11편, 2019년 5편, 2020년 1편이 있다.

4.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2021년에는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총 43편이 발표되었다. 그중 안재호의 「오징(吳澄) 심학(心學)의 공부론 천석(淺析) — 존덕성(尊德性)와 도문학(道問學)의 변증법」, 윤상수의 「황진(黃震)의 인심유위장(人心惟危章) 해석을 통해 본 남송(南宋) 말 학술의 일면」, 이종우의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과 그 공부의 유무 - 성인과 중인(衆人)에 관련하여 - 」 등 3편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1) 안재호의 「오징(吳澄) 심학(心學)의 공부론 천석(淺析) — 존덕성(尊德性)와 도문학(道問學)의 변증법」

이 논문은 원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인 오징(초려, 1249-1333)의 심학(心學)의 공부론을 존덕성과 도문학의 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필자는 서론에서 오징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주자학과 상산학을 종합하려는 주륙절충론'자가 아니라 주자학을 발전시킨 인물일 뿐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 오징의 '도통계승'에 대한 이해를 들어 "오징은 …… 육구연(상산)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공부론의 내용에 있어서도 주자와 같이 '존덕성'을 간과하지 않는 '도문학'에 있었다."라며 주장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전개방향에 관해서는 "본문은 오징이 어떻게 도통의 계승을 자부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공부론을 살필 것이다. …… 그러므로 먼저 그의 '존덕성'과 '도문학'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지 살펴볼 것이다."라며 '공부론'을 먼저 설명할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오징의 공부론을 바로 고찰하면 그의 철학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징의 "심학"체계에 대하여 먼저 고찰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논문의 제2장에서 오징의 "심체(心體)"와 "심지체(心之體)"의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징의 '심체'는 육왕(陸王)의 '심즉리'가 아니라 '성리에 따라 일신을 주재하는 대리자'이며 '심지체'는 '심의 핵심'이면서 '성리(性理)'를 말한다. 따라서 오징의 심학이란 성리를 이해하고 본심을 잃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자각〔知性〕과 그에 근거한 도덕 실천의 완성〔養性〕이며 경(敬)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고 나아가 그것을 일상에서 실현하여 이상적인 인격을 완성하는 체계이다." 이처럼 필자는 오징의 "심체"와 "심지체"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논문의 제3장에서 오징의 "존덕성"과 "도문학"의 공부에 대하여 "'존덕성'과 '도문학'에 대한 오징의 관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모든 공부는 '경'에 근거한다. 둘째, 구체적 현실에서 여러 정황을 주재할 수 있는 주체가 정립되어야 하는데, 주체의 정립에 있어서 규범의 습관화가 그에 대한 원리적 이해보다 앞서야 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오징의 공부론은 비록 '존덕성'을 우선 하고 '경'공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규범적 생활의 습관화로부터 이성주의에 이르는 '도문학'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즉 필자는 오징이 '존덕성'공부를 우선으로 해서 규범적 습관화를 실현한 다음 '도문학'공부를 통해 이성주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존덕성'과 '도문학'의 체계로 구성된 오징의 공부론은 전통 주자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규범의 습관화를 강조하고 '도문학'으로 출발하는 이성주의 도덕론은 주자학적 전통을 특정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

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오징은 원대의 유학자로서 최근 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는 인물이다. 이 논문은 오징의 선"존덕성"과 후"도문학"의 체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얼핏 오징의 "심학", "심체"란 표현이 "도문학"보다는 "존덕성"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존덕성"과 "도문학"에 대한 오징의 관점을 제대로 잘 드러내었다.

2) 윤상수의 「황진(黃震)의 인심유위장(人心惟危章) 해석을 통해 본 남송(南宋) 말 학술의 일면」

이 논문은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남송 말기의 유학자인 황진(1213-1281)의 인심유위(人心惟危)장 해석을 통해 남송말기 학술사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윤상수는 이 논문에서 먼저 황진이라는 인물에 대해 주로 『사고전서총목』과 『송명학안』, 그리고 전목(錢穆, 1895-1990) 등의 후대의 평가를 빌어 "남송 말 주자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안으로는 진순과 요로로 대표되는 훈고학적 경향을 비판하여 주자학을 중흥시키고, 밖으로는 육구연의 고제 양간을 비판하여 주자학의 정당성을 옹호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운 인물이다. 또한 그의 학문에 대해서는 주희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터득한 바가 깊었으며, 만약 자신이 자득한 것과 어긋난 점이 있다면 아무리 주희의 견해라도 바로잡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주자학자이다"라고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장에서는 황진이 생각하는 인심유위장의 본지(本旨)에 대하여 "황진이 강조하는 인심유위장의 본지는 '마음을 전했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전수함'에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불교심학"이란 주제로 황진이 생각하는 "도의 기원으로부터 주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황진의 양간에 대한 비판을 소개하였다. 필자는 "황진은 불교 심학을 물리쳐 리학(理學)을 위기에서 구한 것을 주희의 위대한 공적으로 평가하였고 주희를 계승하여 양간의 불교 심학을 비판 극복하려 하였다."라고 하며 황진의 전심설의 비판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상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황진과 동시대에 살았던 문급옹(文及翁)의 '마음'과 '심학'에 관한 문장과 양간의 심학을 옹호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당시의 심학과 리학의 대립은 "황진과 문급옹의 사이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며 주륙대립이 남송말 학술의 일면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전 황진에 대한 연구는 2001년과 2003년에 발표된 2편의 논문이 전부이다. 그만큼 한국학계에서의 황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윤상수가 발표한 이 논문은 의미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 윤상수는 황진의 심학에 대한 비판과 문급옹의 심학의 비판에 대한 비판을 들어 이것이 주륙대립이며 남송 말 학술의 일면이라고 확신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문급옹의 글에 그가 리학자를 직접 비판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문급옹은 다만 자기 스승인 양간(楊簡)의 학문이 선학(禪學)이라고 비난한 자에 대한 비판이지, 결코 주자학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찌 주륙대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필자는 황진의 심학과 심학자에 대한 비판이 주륙대립이고, 이것은 남송말기 학술계의 일면이라는 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의심스럽다.

3) 이종우의 「주희의 중과 부중(不中)의 미발과 그 공부의 유무 – 성인과 중인(衆人)에 관련하여 – 」

이 논문은 주희가 성인(聖人)과 중인(衆人)의 미발(未發)이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말하기도 한 것과 미발일 때에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한 점에 착안하여 주희의 성인(聖人)과 중인(衆人)의 미발(未發)과 그 공부의 동이(同異)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이종우는 두 번째 장인 "중(中)과 부중(不中)의 미발: 성인과 중인에 관련하여"에서 주희가 미발을 중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의 혼탁함으로 인해 미발시(未發時)에도 부중이 된다는 말을 들어 주희가 말한 미발일 때의 부중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주희가 말한 성인과 중인의 미발시의 같고 다름에 대하여 "성인은 미발시에 그 기질이 혼탁하지 않고 밝고 맑기 때문에 중이고 중인은 미발시에도 혼탁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중이 아니라 부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인은 항상 부중의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니라 중인도 미발시에 혼탁하지 않고 밝으면서 맑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중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본래 성인과 중인은 같다고 여겼다."라고 하며 "주희가 말하는 중의 미발은 본연지성을, 부중의 미발은 기질지성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본연지성으로서 중의 미발은 성인과 중인이 같지만 기질지성으로서 부중의 미발은 다른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필자는 주희의 성인과 중인의 미발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근거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희가 미발을 중과 부중으로 구분한 것은 『중용』의 중의 미발을 보완한 것이고, 독창성이 발휘된 것이라고 보았다. 세 번째 장인 "미발공부의 유무: 성인과 중인에 관련하여"에서는 주희의 성인과 중인의 미발공부의 유무(有無)에 대하

여 살피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먼저 주희가 미발시에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 것을 특징으로 보았다. 그래서 필자는 주희가 『중용』에서의 "계신공구(戒愼恐懼)"를 미발공부라 해석하였고 눈을 감지 않고 귀를 막지 않아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부라고 하였으며, 군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고, 학자가 먼저 해야 할 의무라고 한 내용을 빌어 계신공구가 학자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중인의 의무이기도 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중인도 성인처럼 중의 미발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때는 공부가 필요 없다는 주희의 말을 빌어 주희가 말한 미발공부는 성인의 공부가 아니라 미발시 부중의 상태에 있는 중인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주희의 미발시의 중과 부중에 대하여 자세히 논했으며 더 나아가 미발공부의 유무를 성인·중인과 연결시켜 논했다는 점에서 새롭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논문제목과 본문에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과 부중의 미발", "중의 미발", "부중의 미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미발"이라는 단어는 『중용』에 나온다. 『중용』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한다.〔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에서 "미발"은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중(中)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미발'의 상태가 곧 '중'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중'이 곧 '미발'의 상태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먼저 "미발"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뒤에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가 말한 "중의 미발"은 "먼저 '중'이라는 조건이 있은 후에 '미발'의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와 같아 보인다. 따라서 "중과 부중의 미발", "중의 미발", "부중의 미발"은 "미발시의 중과 부중", "미발시의 중", "미발시의 부중"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1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세편의 주요논문을 소개하고 정리하였다. 2021년 발표된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학위논문 4편을 포함하여 총 43편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발표된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2018년 45편, 2019년 21편, 2020년 10편으로 논문 편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첫째, 인물별 분류에서는 총 43편의 논문 중 송대의 한 시대를 주제로 한 논문 3편을 제외한 40편에 대하여 호원, 소옹, 주돈이, 장재, 정이, 소식, 장구성, 주희, 육구연, 양간, 채침, 전시, 황진, 허형, 오징 등 15명을 인물별로 정리하였다. 북송의 호원1편, 소옹1편, 주돈이4편, 장재3편, 정이2편, 소식1편의 논문이 있으며 남송의 장구성1편, 주희 22편, 육구연1편, 양간1편, 채침과 전시1편, 황진1편의 논문이 있고 원대의 허형2편, 오징2편의 논문이 있다. 그 중 소옹에 관한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이며 장재에 관한 논문 1편과 주희에 관한 논문 2편은 박사학위논문이다. 그리고 호원에 관한 논문은 정이와 관련된 논문이며 주돈이에 관한 논문 1편과 육상산에 관한 논문은 주희와 관련된 논문이다. 이전과 다름없이 주희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1년도의 아주 고무적인 일은 이전에 비교적 연구가 적었던 호원, 장구성, 양간, 전시, 황진, 허형, 오징 등과 같은 인물들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주제별 분류에서는 총 43편의 논문을 경학,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인식론, 비교, 기타 등 7가지의 주제로 정리하였다. 많은 논문

이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려웠고, 또한 주제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 특정 범주로 분류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특정 범주에 속하지 않는 논문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주제별 논문의 편수는 경학 11편, 이기론 4편, 심성론 7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1편, 비교 8편, 기타 8편이다. 위에서 제시한 논문 편수를 근거로 경학과 수양론의 논문이 많고 이기론과 인식론의 논문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발표된 논문의 주제별 분류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경학 9편, 이기론 10편, 심성론 2편, 수양론 10편, 인식론 3편, 비교 4편, 기타 11편으로 경학, 이기론, 수양론의 논문이 많고 심성론과 인식론의 논문은 적었으며, 2019년에는 경학 3편, 이기론 4편, 심성론 3편, 수양론 3편, 이식론 3편, 기타 5편으로 비교 관련 논문이 없었다. 2020년에는 발표된 논문 편수가 10편으로 경학 3편, 이기론 1편, 심성론 3편, 수양론 2편, 기타 1편으로 인식론과 비교 논문은 없었다. 발표된 논문 편수가 비슷한 2018년과 비교하면 경학, 심성론, 비교 논문은 증가했고 이기론, 인식론 논문은 감소하였으며 수양론 논문은 같다.

셋째,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에서는 안재호, 윤상수, 이종우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2021년에 송대 유학 관련 논문은 43편이 발표되었다. 2019년 21편, 2020년의 10편과 비교하면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고무적인 일은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대로운 송·원대 유학자들을 연구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인물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3장

명대주자학과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 명대 주자학·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해당 논문들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유관 학회(연구소)의 논문(KCI)을 중심으로 삼았다.

한국연구재단 수록 논문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 26개, 유교학 4개, 인문학 4개, 중국어와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명대 주자학·양명학〉 주제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4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주제별로 구분하여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겠다.

2. 인물별 분류

1) 양명학(양명후학) 관련 논문(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박길수	왕양명의 심상 체인 이론의 특징과 의의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박길수	四句教의 四性論的 근거와 의의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박현정	양명후학의 격물관 비교: 양명학에서의 '해석 다양성'에 관하여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전체 18편의 논문 중에서 감천학파 논문 2편과 명말 강학운동 논문 1편 3편을 뺀 15편의 논문이 양명학(왕양명 사상, 양명후학, 양명학과 조선유학 비교, 양명학과 교육, 양명학 연구사) 논문으로 전체 편수의 83%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19년도 7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명·청대 중국유학 논문 중 양명학(양명후학) 비중이 2015년도 9편, 2016년도 12편, 2017년 21편, 2018년 17편, 2019년 18편이었다. 올해 편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명·청대 중국유학 연구는 여전히 양명학 관련 연구가 중심에 있음을 또다시 확인했다.

왕양명 사상을 통상 심즉리, 지행합일, 치양지 3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양명 만년 사상이 온축된 정화는 역시 치양지 세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김준승은 발도로프 교육론에 관심을 두고 최근 수년간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감정, 욕구, 체험을 중심으로 한 본 논문 역시 김준승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준승은 이렇게 말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왕양명 사상의 정수인 치양지의 공부처를 심(心)에 두고 감정과 욕구, 그리고 경지〔自慊과

眞樂〕 체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왕양명의 공부론은 양지의 발현을 위해 도문학과 존덕성 그리고 존천리 거인욕을 공부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치양지에 대한 국내연구는 사욕을 제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 언급보다는 사욕 제거라는 항목에 함의되어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 즉, 인간은 거인욕 할수록 치양지에 가까워지며, 결국 치양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사욕이다. 필자는 치양지를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사욕의 제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간이 성장하고 싶은 욕구와 감정을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며, 치양지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가진다. 물론, 양지의 작용은 동시적이며, 직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편의상 구분이며, 왕양명의 언급을 통한 이러한 분석은 우리의 성장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 기준해서 본다면, 왕양명의 공부론은 곧 감정과 욕구를 포함한 마음〔心〕 공부에 기준해서 볼 수 있으며, 그의 치양지론 역시 마음을 중심으로 한 체험과 실천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생활에서의 인간은 양지를 품부했기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적 존재이지만, 그 양지의 품부가 곧 치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치양지를 위해선 본인의 체험이 스스로 만족하는 체험〔自慊〕 혹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실된 즐거운 체험〔眞樂〕이 필요하다."

김준승의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존처리, 거인욕' 공부야말로 양명학 정신의 본질임도 무시할 수 없다. 양명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김준승의 경우와 유사한 지점에서 애매한 포즈를 취하곤 한다.

용장오도는 양명이 37세에 깨달음을 얻는 사건으로 왕양명이 주

자학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양명 심학으로 우뚝 서는 분기점으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양명학의 성립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명은 용장오도 후에 자신의 깨달음을 증험하는 차원에서 오경을 풀어본다. 그것이 『오경억설』이다. 후에 양명 생전에 소각되었고 극소수 몇 가지 조목들이 전해진다. 이우진은 선행논문에서 『오경억설』을 분석하면서 용장오도의 내용을 추적한 성과를 발표했었다. 본 논문은 『오경억설』 분석에 더해 용강서원 강학 등의 자료를 보충하여 용장오도의 내용을 추정해보고자 한 것이다.

이우진은 이렇게 말한다. "이 글은 '왕양명의 용장오도(龍場悟道)'가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실존적 결단에 의해 촉구된 해답'이라 전제하고, 용장오도 직후에 왕양명이 취한 일련의 사건들을 '성인으로 살겠다는 그의 결단이 구현된 모습들'로 규정하였다. 과연 용장이라는 한계상황에서 '양명학의 성인 즉 왕양명'은 어떻게 삶을 헤쳐나갔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글의 문제의식이다. 용장오도 이후의 왕양명이 시행한 주요활동은 '『오경억설』의 저술, 원주민과의 관계개선, 용강서원에서의 교육활동'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오경억설』을 살펴보면, 왕양명의 소해(疏解)는 이제까지의 유학 전통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자적인 '심체(心體)와 심학(心學)에 입각한 소해 방식'이었다. 또한 『오경억설』의 소해에는 심즉리와 지행합일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 다음으로, 원주민과의 관계 개선 부분을 살펴보았다. 왕양명은 '이상적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일'은 장소의 문제와 결코 결부되지 않는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왕양명은 중원(中原)의 사람들이 화려한 문명을 지녔지만 내외(內外)와 표리(表裏)가 부동(不同)하다는 점에서 비루하다고 여겼다. 반면 소박한 문명을 지녔지만 내외와 표리가 일치하는 용장의 원

주민들은 비루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였다. 또한 그는 용장의 원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본성의 선함과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용강서원(龍岡書院)의 교육활동을 살펴보았다. 왕양명은 교육기관의 목표가 '덕의 완성〔成德〕'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입지(立志), 근학(勤學), 개과(改過), 책선(責善)이라는 네 가지 교육의 조목인 '교조시용장제생(教條示龍場諸生)'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 왕양명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선(善)으로 이끌어 주는 관계 중심적인 행복을 추구하였다. 이는 왕양명이 구상한 이상적 인간은 노불(老佛)이 말하는 자기 독존적인 선(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선(善)을 이루려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우진의 설명은 양명학 전반을 염두에 둔 서술이다. 용장오도의 계기와 내용에 집중한 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추후 용장오도의 본질과 성격에 집중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양명의 성인관 역시 많이 토론되는 주제이다. 송명이학 정신이 구성지학(求聖之學), 성인이 되는 학문에 있다고 할 때 주자학도 성인지학이요 양명학도 성인지학이다. 그렇다면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면 주자학의 성인지학과 양명학의 성인지학이 다른 점을 부각할 것인데, 학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주자학과 양명학 성인관 비교이다.

임홍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명의 성인관 또한 이전 학자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도출된 것이다. 하지만 양명은 단순히 이전 학자들의 성인관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그 자신의 학술전개 과정에 있어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성인관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의 성인관은 정치경제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격동

의 시대인 명대 중기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것으로, 당시 사회는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사조가 문화와 학술을 비롯한 사회 전 영역에서 용솟음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양명은 활발한 강학 활동을 통하여 학문의 평등화, 학술 전파의 세속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인과 범인은 본디 한 몸'이므로 배움을 통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성인관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양명의 성인관은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후학들의 강학 활동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어 나갔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다." 성인관과 그 공부론을 종합적으로 잘 서술했다. 다만 본 내용은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내용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양명학과 노불의 관계는 상당히 지난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주자학자들이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노불과 유사하다는 공격을 즐겨했다. 사실 양명 자체에 친노불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유학 전공자들은 양명학을 유학의 테두리 내에서 독해하려고 하면서 노불과의 상관성을 가급적이면 두드러지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경룡은 이런 입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노불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양명학의 논지를 독해하려고 한다.

이경룡의 말이다. "왕양명(1472-1528)의 학술 인생은 48-49살에 양지와 치양지를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양분할 수 있다. 특히 49살 8월 통천암의 종일 토론은 학술과 교법에서 가장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43살에 제시한 입지공부에서 천리와 인욕의 이심론과 존양성찰 공부 및 본체의 지각을 설명하였다. 도교수양공부에서 불교의 심성론과 수양공부를 수용하여 전환하였다. 48-49살에는 심체를 직접 깨닫는

수양공부를 양지와 치양지를 주장하였다. 54살에 지행일체를 주장하고 55살에는 양지의 기능에 관하여 지각과 검증 및 선택 셋을 분명히 설명하여 종래의 양지 설명을 개선하였다. 왕양명은 30대에 허리 아픈 질병과 폐병 때문에 도교의 양생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웠다. 그는 당시 유행하였던 황정경과 「수진도(修眞圖)」를 참고하여 도교 의학의 양생 공부를 실행하여 질병을 어느 정도 고쳤다. 그는 35살 감옥에서 소강절의 희역(羲易)에 따라 처음으로 마음의 본체(先天翁)를 보는 신비체험을 경험하였고 37살 용장에서는 정좌하여 체용신화(體用神化)를 체험하였다. 두 번 체험은 소강절 운기법에 따르면 일양복래(一陽復來)를 체험한 것이다. 왕양명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39살부터 학생들에게 정좌시키고 정일(靜一)과 성의(誠意)공부를 가르쳤고 43살에는 불교와 도교를 참고하여 입지(立志)공부를 세웠다. 입지공부의 핵심은 천리와 인욕의 진망이심론(眞妄二心論)과 존양성찰공부이다. 마음에는 본체(천리)와 인욕(사욕 객기) 둘이 있고, 본체에는 지각, 검증, 사유 세 가지 기능이 있고, 사욕도 검증 기능과 사유 기능 둘이 있다. 의념의 발원은 천리 본체와 인욕 둘이고, 존양성찰 공부는 의념의 발원을 지각하고 사유를 검증하고 사욕과 객기에서 발원한 의념을 지각하여 없애는 것이다. 따라서 입지공부는 찰나의 일념(一念)을 지각하고 검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입지 구결은 당시에 널리 유행하였고 특히 왕기와 태주학파 안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왕양명은 48살 감주와 남창에서 강학하는 동안에 『대학』의 성의(誠意) 공부와 『중용』의 신독(愼獨)공부를 통일시키는 문제에 부딪혔다. 8월에 진구천이 찾아와서 육상산의 본심(本心)에 근거하여 심체를 깨닫기 위하여 직접적인 공부는 격물보다 치지가 우선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영명을 건의

하였다. 왕양명은 처음으로 영명의 지각이 찰나의 일념을 지각하는 양지라고 제시하고 치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양지 제시는 그동안 가르쳐 왔던 소강절 정좌법에 그치지 않고 43살 입지공부를 거쳐 교법을 바꾼 것이다. 8월에 진구천이 사상성찰(事上省察)을 건의하였고 왕양명은 사상마련의 치양지를 설명하고 현성양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사상마련은 정좌공부와 함께 양명학의 중요한 수양공부가 되었다. 49살 6월에 진구천이 찾아왔을 때 의념(意)이 물상의 시비를 사유하고 양지가 의념이 사유하는 시비를 검증하고(是是非非) 존양하는(存善去欲) 주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여 양지의 검증과 존양 기능을 확정하였다. 8월보름 추석에는 통천암에서 여러 학생과 성의공부와 신독공부의 통일에 관하여 날마다 종일 토론을 벌였고 이때 학생들도 비로소 양지를 확신하고 기뻐하였다. 따라서 통천암 종일 토론은 양지를 확정한 것이고 왕양명 학술 인생을 양분하는 계기가 되었다. 50살 소흥부에 돌아온 뒤부터 양지를 강학하여 소흥부 집에 찾아온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54살에는 양지의 능지능작(能知能作) 역할에 근거하여 지행일체를 주장하였다. 55살에는 진망이심론을 수용하여 양지의 지각, 검증, 존양 세 기능을 정교하게 설명하였는데 49살의 양지 설명을 보충하고 완성하였다. 양지의 검증기능은 자증분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구양덕의 선병 사례에서 보이듯이 왕양명은 양지가 정좌에서 오는 선병(禪病)과 사려 분요를 치유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강조하여 정명도의 활연대공에 견주었다. 이것은 양명 후학에서 논의되었던 광경 타파의 답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지에는 심학의 임정종욕이라는 부정적 폐해도 치유하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만년에는 학생들의 선병과 진헌장의 물망물조 공부의 유행을 본 뒤에 교법을 바꾸어 필유사언 공부와

집의 공부를 가르치고 집의 공부가 치양지 공부라고 평가하였다. 맹자의 집의 공부가 『대학』의 격치성정 공부보다 못하고 치양지 공부가 격치성정 공부보다 더 낫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왕양명 만년의 수양공부 교판이다."

이경룡 논문은 근년에 조사한 양명학 사상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다. 양명철학 연구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가고 있다. 주요 논문 분석에서 다시 다루겠다.

문체와 어투를 가지고 필자의 사상을 읽어낸다는 것은 자못 주관성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물론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박영희는 왕양명 문장의 특성을 통해 그 사상의 특성을 추적한다.

박영희는 이렇게 말한다. "王陽明의 글쓰기를 살펴보다 보면, 일반적인 대화나 흔히 보이는 문구 속에서 동일 리듬의 문형 나열이나 동어반복으로 성찰을 유도하는 수사법이 유독 눈에 띈다. 특히나 陽明學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확장하거나 선회하는 듯한 글쓰기로 사유를 이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글쓰기가 달라지고, 반대로 어떤 언어로 사유하느냐에 따라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생각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사유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도 한다. 본고는 글쓰기가 곧 사유방식의 현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철학적 개념과 논리에 대한 고찰이 아닌, 글쓰기를 통해 사유방식의 특이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儒敎 사상가의 텍스트와 사유방식에 대해서 주로 철학적 논점과 내용 위주로 분석하거나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모두 본고의 수사법 측

면에서의 탐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내용 측면에서가 아니라 수사법을 통해서 그 사유 방식의 독특함과 타 사상가들과의 차별되는 지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처럼 철학적 개념에 집중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형과 용어 사용법을 통해 사유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철학적 문장의 의미 분석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수사법이 작동시키는 사유방식을 보고자 한다."

박영희의 접근법은 상당히 흥미롭다. 잘 활용한다면 철학적 개념과 논리 분석을 통해 파악한 어떤 결과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철학적 개념과 논리 분석을 통해 파악한 왕양명 사상의 틀을 설정한 후에 가능한 방법이라는 한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설정한 왕양명 사상의 유형에 따라 박영희 연구 방법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명대 학술 일반 논문(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찬	사상, 철학, 그리고 유학: 송명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경로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2	이진명	명대 초기 역사 순항을 위한 정통 개념의 재설정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임홍태	황도주의 주륙관 연구(2)	(사)율곡학회	율곡학연구
4	안광호	顧炎武의 저술에 나타나는 중국 邸報 관련 기록 분석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5	서연주	만명(晩明) 민가의 에로티시즘 구현 양상	한국중국학회	중국학보

송명유학 혹은 송명이학을 신유학이라고 부른다. 사상사 혹은 철학사를 구분하는 이런 방식과 용어는 과연 타당한가? 본 질문은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한 번쯤은 통과해야할 성찰의 구간이다.

이찬은 「사상, 철학, 그리고 유학: 송명유학에 접근하는 세 가지 경로」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유학사상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개괄할 때 '송명유학'이라는 명명은 그 용어가 관용적인 것만큼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용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예컨대, 우리는 '유학'을 사상으로 이해해온 관성에 대하여 일말의 의구심도 갖지 않는다. '유학'이 사상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태도는 '송명유학'을 '철학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데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명유학'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서 '유학'이 '사상'과 '철학'이라는 용어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그리고 '유학'을 이해할 때 이들 용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밝힌다. "특히 '송명유학'과 관련하여 '신유학(新儒學)'과 도학(道學)'이라는 용어는 이런 문제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용어들에 대한 논의는 송대 이후의 유학사를 사상사라는 역사학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 철학적 사유로 독해할 것인지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용어들을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정리하는 작업은 '사상사'와 '철학사', 그리고 철학과 유학의 경계를 확정하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유학'의 학문적 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검토를 통해 우리는 '송명유학'을 규정하는 데 있어 북송 시기의 사상적 특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자리매김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

명나라에서 조선의 세조와 비견되는 왕이 永樂帝 成祖다. 영락제는 명나라가 왕조로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잘 알려진 업적들을 소개하면, 鄭和가 명을 받아 대선단을 거느리고 서방과의 대외교류를 강화시켰고, 『永樂大典』을 편찬했고, 大運河를 정돈했으며, 수도를 北京으로 옮기는 역사를 일으켰다. 성조는 애초에 황제가 될 수 없었지만 靖難의 변을 일으켜 조카인 建文帝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변절자와 충절자들이 나왔는데, 方孝孺는 충절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후대에 방효유는 명대 도학 의리 정신의 표상으로 추앙된다.

이진명은 「명대 초기 역사 순항을 위한 정통 개념의 재설정」에서 방효유의 의리 정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필자는 방효유의 附統의 개념이 주희와 진량 사이를 중재했던 당중우의 의견과 일치함을 발견했다. 필자는 방효유가 이끌었던 金華朱子學派가 주자의 道德性命의 학술과 진량의 事功主義학술의 장점을 수용하여 절충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방효유의 정통론이 주희와 진량 사이에 일어났던 왕패·의리논쟁의 접점을 찾았다고 본다. 방효유의 정통론은 후대 丘濬(1420-1495)의 『世史正綱』, 謝陞(1547-1615)의 『正帝統』 등 저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황도주는 명말청초를 살았던 인물이다. 한국 학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다. 임홍태는 「황도주의 주륙관 연구(2)」에서 황도주 사상을 설명한다. 임홍태는 인민대학에서 왕양명의 만년 교법인 사구교를 둘러싼 명대 사상계의 학술논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과 한국의 주자학·양명학 비교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임홍태는 황도주 학술의 특징을 이렇게 평가한다. "황도주는 정치

적으로는 명나라와 청나라가 교체되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았으며, 학술적으로는 주자학과 양명학이 사상적으로 상호 충돌하는 시기에 학술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런 이유로 황도주의 학문은 한편으로는 주자학적 경향을 보이면서도 일방적으로 주자학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명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자학과 양명학의 영향을 바탕으로 주륙동이 혹은 주왕동이 논쟁에 있어 그는 주자학과 양명학을 조화시키려는 '회통주왕(會通朱王)'의 학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자와 양명에 대한 그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다. 반면 그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폐단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으니, 그가 비판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송유의 도통론과 양명 후학들의 무선무악설에 관한 것이었다.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이 양명학적인 입장에서 주자학을 비판한다든지, 주자학적인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하는 다소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그는 양자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극복하려는 입장에 서 있다. 한편으로 왕학 후학에 대해 첨예하게 비판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주의 시비로써 시비를 삼지 않는' 객관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러한 황도주사상의 복잡성은 또한 명말청초 사상계가 지니고 있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안광호의 「顧炎武의 저술에 나타나는 중국 邸報 관련 기록 분석」과 서연주의 「만명(晩明) 민가의 에로티시즘 구현 양상」 두 편은 명대 사상사 이해의 배경이 되는 명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논문들이다.

안광호는 고염무의 저술에 기술된 저보를 다룬다. 저보를 조선에서는 朝報라고 칭했다. 안광호가 고염무를 선택한 이유를 소개한다. "고

염무는 淸代 유행한 考證學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空理空談에 빠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인의 글을 베껴 모아두었다가 책을 펴낸다'는 이른바 '抄書著作'의 방식으로 『日知錄』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는 그의 문인들이 그의 저술을 모아 『顧亭林文集』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일지록』과 『고정림문집』에는 중국 邸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본고에는 『일지록』과 『고정림문집』에 수록된 기록을 통하여 중국 저보에 대해 通史的으로 살펴보았다."

안광호는 고염무 저보 기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중국 역사 문헌에서 처음으로 저보의 출현을 알 수 있는 기록은 孫樵의 문집에 실려 있는 '讀開元雜報'라 할 수 있다. 이 '독개원잡보'의 雜報가 저보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 고염무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고염무는 『宋史』에 나오는 '劉奉世'傳, '呂溱'傳, '曹輔'傳에 나오는 기사를 통하여 宋代 저보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이중에서 '유봉세'전은 송대의 저보가 唐代에 비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염무의 기록에 대해, 고염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활동한 閻若璩는 『全唐詩話』의 내용을 통해 저보라는 용어가 唐代에도 사용되었음을 밝히었다. 또 고염무는 그의 外甥 徐元文에게 보낸 서간문에서 역사서 편찬에 저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고염무는 서원문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서간문을 보내면서 明代의 저보는 崇禎 11년 즉 1638년부터 활자화되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청대의 『實錄』 안에는 저보가 『明史』 편찬에 이용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金瓶梅』와 『紅樓夢』 같은 소설 속에는 京師에서 인쇄된 저보가 지방 관청과 민간에 유통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사상사 연구자 중에는 만명 시기를 중국 근대의 맹아기로 종종 규

정한다. 명대 사상사 연구자 혹은 양명학 연구자들은 만명 시기의 근대적 특성인 개인 정감과 욕망 긍정의 경향 등이 양명학 유행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서연주의 「만명(晩明) 민가의 에로티시즘 구현 양상」은 개인 정감과 욕망 긍정의 세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논문이다. "민가는 자체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만명 당시에는 상품 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성애 풍조가 만연했으며, 명대 중기부터 세속화된 일부 문인층은 '眞詩在民間'설을 의식하기도 했다. 이에 민가는 기존 봉건 예교에서 중시하던 윤리 도덕적 잣대에서 한층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음란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나 표현들 역시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계층을 초월한 환영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명(晩明)은 사랑과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면모를 보이는 시기로 손꼽힌다. 명초 정주이학(程朱理學)이 관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철저하게 '금욕'이 강조되었지만, 명대 중기 이후부터 점차 욕망의 방종 또한 허용되면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에로티시즘(eroticism)을 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많은 문인들 사이에서 욕망을 무절제하게 즐기는 것이 곧 풍류처럼 여겨졌고, 남녀의 성애를 담은 소설, 춘궁화, 섹스용품, 춘약 등이 범람한 것이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만명 민가에도 에로티시즘이 구현되어 있다. 만명에 이르러 유행한 민가 가운데 약 800수가 풍몽룡(馮夢龍, 1575-1645)이 편찬한 『괘지아(掛枝兒)』와 『산가(山歌)』에 집중적으로 수록된 가운데, 풍몽룡이 당시 성애 소설로 유명한 『금병매(金瓶梅)』의 저자일 가능성이 거론된다거나, 그가 『수탑야사(綉榻野史)』의 판본을 교정한 일은 그의 민가집에도 농후한 에로티시즘의 색채가

묻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차후 풍몽룡은 『삼언(三言)』에서도 성애 문제를 적극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민가에 두드러지는 에로티시즘적 특성이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성애 풍조에서 기인했을 뿐만 아니라, 풍몽룡과 같은 출판 문화인으로서 명성을 날렸던 이들에게도 유의미한 존재였음을 방증한다. 민가의 경우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봉건 예교의 억압과는 별개로, 생활 속에서 '색(色)'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들과 그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 사유가 자연스럽게 스며있다. 만명 민가에서 에로티시즘적인 요소는 『괘지아』, 『산가』의 경우 전체 787수의 작품 중 240수 가량 포착되며, 특히 『산가』 가운데 약 180수가 집중되어 있다. 이때 『괘지아』, 『산가』와 같은 민가집의 경우 민가 자체가 비교적 짧은 편폭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수록 작품 가운데 『괘지아』는 전체 416수 중 약 7수 가운데 1번 꼴, 『산가』 전체 371수 중 약 2수 가운데 1번꼴로 성애와 관련한 작품이 등장함으로 인해 여타 장르에 비해서도 독자들의 본능적인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인이 많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풍몽룡은 『산가』의 서문에서부터 자신이 수록한 민가가 모두 주변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는 '사정보(私情譜)'라 언급했을 뿐 아니라, 이들 작품이 공자(孔子)가 진정성을 인정했던 『시경(詩經)』 「위풍(衛風)」과 「정풍(鄭風)」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유행한 민가 작품은 기본적으로 '진시(眞詩)'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식자층이 향유했던 민가집에서도 기존 봉건 예교에서 중시하던 윤리 도덕적 잣대에서 한층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음란하다고 할 수 있는 주제나 표현들 역시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민가의 에로티시즘은 그 자체만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경향이 있었

다. 민가 가운데 남녀의 성애와 관련한 작품의 경우는 주로 '사정(私情)'과 관련한 행위의 극히 일부로서 봉건 의식에 대한 저항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일축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저변에는 풍몽룡이 『산가』의 서문을 통해 "남녀의 진정을 빌려 명교가 가짜 약임을 밝힌다면 그 공이 『괘지아』와 같으므로 괘지사를 수록하고 다음으로 산가를 언급한다.(若夫借男女之眞情, 發名教之偽藥, 其功於 掛枝兒等, 故錄掛枝詞而次及山歌.)"라 밝힌 것, 1900년대 초 중국에서 민가를 반봉건의 산물로 규정지어 문화와 사상 방면 혁신의 근거로 제시했던 것 등과 같은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3) 주자학와 양명학 비교 논문(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찬	주희와 왕양명의 덕 윤리와 덕 인식론: 시비지심과 양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유학연구

이찬은 하와이대학 철학과에서 로저 에임즈 교수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로 서양철학과의 비교 또는 현대학술조류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동양철학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찬의 「주희와 왕양명의 덕 윤리와 덕 인식론: 시비지심과 양지를 중심으로」 역시 본인의 장점을 발휘한 논문이다. 이찬의 착안점은 이렇다. "사단 내에서 시비지심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 글을 시작하려 한다. 시비지심이 지적인 덕성의 단초라는 표현은 그것을 '이성적인 판단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그러

나, 이런 접근은 이성과 감정의 분리라는 인간 정신의 근대적인 이해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맹자도 그랬거니와 주희와 왕양명이 경계했던 것처럼, 이성적인 판단은 '합리적'임을 내세워 자칫 천착이나 사려와 계교로 사태를 뒤틀 수 있기 때문이다. 시비지심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분리해 볼 수 있는지, '사단' 전체로 묶어서 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런 논의는 시비지심을 도덕적인 덕성과 지적인 덕성의 통일적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마음의 이런 총체성은 현대 서양 철학계에서 덕 윤리학과 덕 인식론이 소환되는 문맥에서 확인된다. 서양 근대의 지배적인 윤리학은 법률적인 계약 규범에 관한 것일 뿐, 더욱 나은 사람됨을 위한 논의를 소홀했다는 반성이 덕 윤리학을 불러냈다. 이런 성찰로 촉발된 덕 윤리학의 소환은 근대의 개체화된 인간관에 대한 성찰 및 윤리학의 본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와 연관 된다. 세계를 엄밀하게 탐구함으로써 과학에 토대를 제공하려는 근대의 인식론은 인식의 규범성을 선험의 영역에 남겨둔 채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데 인식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는필연적으로 인식 활동의 규범성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렇게 획득된 인식의정당성을 평가할 때, 지적인 행위자와 공동체는 고려해야 할 주요한 요소가 된다. 요컨대, 인식론은 인식하는 주체의 내면과 세계의 관계성을, 윤리학은 더욱 나은 사람됨의 문제를 중시하게 되면서 '덕성'을 소환해낸 것이다. 세계와 자아를, 주관과 객관을, 이성과 감정을 구분해온 근대적 전통에 대한 반성으로 '덕성'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면, 마음〔心〕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시비지심을 이성의 이

름으로 분리해내기보다 융합적이면서 총체적인 특성으로 재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왕양명의 '양지' 개념에서 확인되듯이, 측은, 수오, 사양, 시비지심은 마음이 마주하는 구체적인 사태에 따라 다르게 발현 될 수밖에 없는 양태일 뿐이다. 그렇게 다르게 발현될 뿐인 순결한 마음에 몰입하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지적인 덕성과 도덕적인 덕성이 통일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4) 명대 유학과 조선 유학 비교 논문(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명심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2	김민재	다산의 '마음[心]' 개념에 나타난 도덕적 주체의 의미: 양명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3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회	동양철학연구

이명심은 녹문 임성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임성주 관련 후속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명심은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양명과 녹문의 문제의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학자 공히 순선무악한 본심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도덕의 주체가 본성을 넘어 본심으로 확대되는 논리적 발전을 성취한 것이다. 따라서 양명학은 정주학의 내재적 심화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녹문 철학 또한 조선후기의 유학사상사가 심학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양명은 리기적 본체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리기론과 심성론의 유기적 정합성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하여 양명의 본의와는 달리, 후학

으로 갈수록 심 본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猖狂自恣〕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녹문은 본심과 본성의 존재근거로서 담일청허지기〔도덕적 호연지기〕를 제출함으로써 도덕에 대한 형이상학적 절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는 형이하자로서 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주 성리학자들의 뿌리 깊은 인식은, 녹문 철학에 대해 후학이 계승하기 어려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 실학사상의 집대성자로 퇴계 이황, 율곡 이이와 더불어 조선시대 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힌다. 정약용 성론은 이른바 性嗜好說로 성을 기호의 측면에서 해설한다는 점이 많이 논의된다. 성리학 원리에 따르자면, 성은 소이연의 리로 형이상자인데, 기호라는 말은 형이하적인 기의 성격을 포함한 용어이기 때문에,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표현처럼 형용모순을 범했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김민재는 하곡 정제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양윤리교육 측면에서 다수의 양명학을 포함한 동양철학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김민재는 「다산의 '마음〔心〕' 개념에 나타난 도덕적 주체의 의미: 양명 사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서 양명 사상과 비교론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다산 정약용의 마음 개념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사용한 '마음〔心〕' 개념에서 도출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통을 활용한 '책임 윤리'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산의 마음 개념을 양명(陽明) 왕수인(王守仁, 1472-1528)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다산은 신형묘합(神形妙合)의 인간관을 견지하면서도 영명한 마음의 정신적 측면을 대단

히 강조하였는데, 판단과 선택의 자주지권(自主之

權, 權衡)을 갖추고 있는 이 마음으로 인해 인간은 여타 존재들과는 다른 '도덕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확보하게 되며, 바로 그 판단과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오롯이 자신이 안아야만 한다. ⓑ 둘째, 다산은 도심(道心)과 인심(人心)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이분법적으로 규정하면서, 도심이야말로 인간에게 고유한 도덕적 경향성(도의의 본성, 영지의 기호)의 드러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도덕적 경향성은 상제(上帝)가 부여하는 것인 데다가, 도심도 상제의 후설(喉舌)로서 두 가지(도심-상제)가 별개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까닭에,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신뢰받고 있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 셋째, 도덕적 경향성과 도심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으로서, 도덕적 주체가 져야할 책임의 범위 설정에 있어 인간이 여타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嗜好]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조건 내지는 환경을 마련해 줄 정도의 책임은 있으나, 그 이상의 책임은 실용적으로는 요청될 수 있지만 당위적으로는 요청되기 어렵다."

이철승은 중국 근대 사상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교현대화 논의와 기철학 관련 논문 등을 발표해오고 있다. 이철승은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라는 논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왕부지와 정약용을 비교적으로 연구 고찰한다.

이철승은 왕부지와 정약용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한다. "왕부지와 정약용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다. 왕부지는 기선·리선(氣善·理善)의 관점이고, 정약용은 호선오악(好善惡惡)의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한다. 이는 기의 유선유악(有善有惡)과 리선(理善)에 근거한 성리학자들의 성선설과 구별된다. 왕부지와 정약용은 본성을 시공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날마다 구현해야 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4단에 대해, 성리학자들처럼 도덕감정의 영역에만 국한시키기지 않고, 도심(道心)에 해당하는 본성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왕부지와 정약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불선(不善)의 근거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한다. 정약용은 인심(人心)을 불선의 근거로 여기지만, 왕부지는 인심과 도심을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의 관계로 여기고, 제자리(位)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불선의 근거로 여긴다. 이는 왕부지가 생물학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것과 달리, 정약용은 도덕적인 영지(靈知)의 측면과 본능적인 형구(形軀)의 측면을 구별하며 영지의 기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곧 왕부지는 맹자의 천형(踐形)론에 근거하여 몸과 정신의 유기적인 결합의 관점에서 성선설을 펼쳤고, 정약용은 맹자의 대체(大體)와 소체(小體) 가운데 대체의 관점에서 성기호설을 펼쳤다. 이처럼 왕부지의 성선설은 생물학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통일시킨 면에서 본성의 범주를 확장했고, 정약용은 도덕적인 면만을 본성의 영역에 해당시킴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을 특화시켰다."

5) 경전 연구 논문(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최정묵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주자학과 양명학 분화는 『대학』 해석을 두고 진행된다. 주자는 『대

학』의 격물치지 조목에 대한 보망장을 지어 卽物窮理로 『대학』 공부론의 기본을 제시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주자의 즉물궁리 해석은 불교의 反觀內省 공부법에 대한 철학적 반박이다. 왕양명은 주자가 표방한 즉물궁리 공부법을 비판하면서 『대학』에서 誠意 공부를 중심에 둔다. 이성의 공부론이 후에는 치양지설로 확대 수렴된다. 윤휴는 송시열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었다.

최정묵은 『대학』 해석의 상이성 지닌 의미 고찰: 주희와 왕수인 그리고 윤휴의 견해를 중심으로」에서 세 명의 인물들이 표방한 『대학』 해석을 제시한다. "주희가 『대학』에 대한 체계를 새롭게 구성한 후에 많은 학술적 논변이 일어났다. 「고본대학」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가, 아니면 주희의 대학장구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문제이다. 왕양명, 윤휴, 정약용 등은 「고본대학」 자체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희의 작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의 문제는 강령의 개수에 대한 것이다. 주희는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을 삼강령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두 개의 강령만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인데, 박세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지어지선에 대한 주희의 해석과 지어지선과 연계되는 조목이 없는 점을 들어 지어지선을 강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 이해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은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에 있다. 주희는 격물치지를 사물에 즉하여 이치를 궁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그의 해석에는 두 가지의 지향점이 있다. 하나는 사물의 존재법칙을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법칙을 자각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왕수인은 주희가 격물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인식론이 아닌 수양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부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

이 誠意라고 보고 때문에, 격물치지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주희의 관점을 거부하는 것이다. 윤휴는 격물을 두 가지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하나는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서, 방심을 수렴하고, 엄숙, 고요, 전일한 상태를 유지하여 본원의 밝음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살펴서 묻고, 정밀하게 생각하여 연구를 거듭하여 신화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첫 번째가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수양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그 방법적인 측면을 말한 것이다. 다음으로 명덕에 대한 개념규정과 명명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주희와 왕수인의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윤휴나 정약용은 명덕을 효제의 마음이나, 효·제·자 자체로 이해하고 있어, '뭇 이치를 갖추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주희의 견해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친민의 해석에 있어서는 우선 주희는 정이천의 견해를 수용하여 신민설을 주장한다. 반면에 왕수인 백성에 대한 치자의 마음과 실천에 주목하여 친민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윤휴의 경우를 보면, 신민을 부정하고 친민을 옹호하였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지만, 내용을 확인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친민설을 지지하여 신민으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친(親)자와 신(新)자가 외형적인 모습의 유사성만큼이나 의미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박길수는 「四句教의 四性論的 근거와 의의」 논문에서 과감하게 흥미로운 주장을 펼친다. 왕양명 최후 교법으로 평가받는 사구교와 『전습록』 하권의 黃省曾이 기록한 문답 중에 나오는 사성론을 서로 연결한 시도이다. 바로 "사성론의 관점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사구교의 제1구에 나오는 무선무악(無善無惡)과 제2구의 유선유악(有善有惡)은 각기 심의 본체와 작용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유선유악은 사실상 의(意)가 선악으로 분기될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3구의 지선지악(知善知惡)과 제4구의 위선거악(爲善去惡)은 도덕 본체의 연원과 말단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말단은 현실적인 선악으로 체현되는 유폐에서 위선거악의 격물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 공부의 근거는 제3구에서 제시한 양지라는 점을 잘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구교에 담긴 심론과 공부론이 사실상 성에 관한 왕양명의 네 가지 견해에 기초하여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사구교는 네 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구: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은 마음의 본체이다(無善無惡是心之體), 제2구: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은 의념의 발동이다(有善有惡是意之動), 제3구: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은 양지이다(知善知惡是良知), 제4구: 선을 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격물이다. 사성론은 네 가지 성으로 구분된다. 제1성: 본체에서 말한 성〔自本體上說者〕으로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無善無惡的〕, 발용에서 말한 성〔有自發用上說者〕으로 선도 되고 불선도 되는 것〔可以爲善可以爲不善的〕, 원두에서 말한 성〔有自源頭上說者〕으로 맹자가 말한 성〔孟子說性〕 곧 성선, 유폐(말단)에서 말한 성〔有自流弊處說〕으로 선이

되거나 악이 된 것〔一定善一定惡的〕 곧 순자의 성악〔荀子性惡〕이다.

제1구와 제1성, 제2구와 제2성은 대응이 용이하다. 그러나 제3구와 제3성, 제4구와 제4성은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박길수도 이를 시인한다.

먼저 제3구와 제3성에 관한 박길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사성론과 사구교의 3구들은 각기 '성지원두시성선(性之源頭是性善)'와 '지선지악시양지(知善知惡是良知)'로 되어 있다. 일견 두 구절은 표현상 서로 다르지만, 실질적 의미는 동일하다. …또한 왕양명은 육징(陸澄)이 양지를 심의 본체로 규정하고 성선으로 간주하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면서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지(知)은 좋지 않음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그는 성선이 양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본심이 인간의 기질에 갖춰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성선이 양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양지와 성선을 연결 지으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박길수가 인용한 것처럼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지(知)은 좋지 않음이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왕양명은 양지를 천리명각이라고 한다. 천리명각은 천리 본체와 명각 작용을 연결한 용어로 恒照하는 양지를 규정한 말이다. 그래서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므로 지(知)은 좋지 않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길수가 원두처에서 논한 맹자의 성선을 통해 제3구에 나오는 양지의 의의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어서 제4구와 제4성에 관한 박길수의 입장을 들어보자. "사성론과 사구교의 제4구들의 내용도 형식상 표현은 다르지만, 각기 공부의 근거와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표리관계에 있다. 사성론의 '일정선

악(一定善惡)'은 유폐 차원에서 드러난 성의 모습이고, 사구교의 위선거악(爲善去惡)은 이미 현실화된 선악의 차원에서 실천하는 격물 공부이다. 특히 사성론의 일정선악은 위선거악의 격물 공부의 근거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길수가 사구교와 사성론을 연결 짓는 시도는 논문의 각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선행연구(任文利 저, 『心學的形上學問題探本』,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5)를 비판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성론이라고 평가한 『전습록』 원문을 분석해보면 본체와 발용, 원두와 유폐라는 두 개의 조합을 중심으로 논한 글이지, 네 개의 성을 개별적으로 설정한 논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구교는 많은 선행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대학』 조목과 연관성이 높다. 심즉리설은 주자의 즉물궁리적 『대학』 해석 비판이다. 「고본대학」 제창은 성의설의 경전적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치양지설은 치지 조목을 통해 성의설을 보완하는 이론적 성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사구교는 『대학』의 4조목인 물(物: 격물), 지(知: 치지), 의(意: 성의), 심(心: 정심)을 종합한 왕양명의 최후 교법이다. 만약 기존의 선행연구와 박길수의 관점을 비교한다면, 박길수의 본 논문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왕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으니, 박길수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데 주력한 나머지 『전습록』의 맥락을 충분히 고찰하지 않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먼저 왕양명은 생지위성이 무선무악(無善無惡)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무선무악의 개념이 일차적으로 도덕성보다 생명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하지만 고자의 문제점은 생지위성을 본성과 사물의 감응 현상에 일관되게

관철시키지 못한 데 있다. 다시 말해 고자는 성의 본질이 선악을 초월한다는 점에만 집착하여 선악이 발생하는 기원은 전적으로 외부 사물에 귀속시키는 모순을 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왕양명의 관점에서 이것은 결국 사물과 감응의 여부를 기준으로 성을 내외(內外)로 분리한 것이다. 실제로 선악의 원인을 오직 외부 사물의 영역에만 국한시킬 경우 결국 성은 선악 및 그에 따른 도덕적 의무와 무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왕양명은 언제나 성의 본체는 단일하지만 그 작용은 주객을 관통한다고 강조하였다. 간단히 말해 왕양명의 성론에서 선악의 발생은 본래 성의 활동의 산물이다." 이 글은 왕양명이 논한 고자 부동심 원문의 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역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전개하는데 치중하면서 발생한 매끄럽지 않은 원문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송명이학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철학사 관점 중에 풍우란은 정명도와 정이천 형제를 그 갈림으로 본다. 정이천을 계승한 주자, 정명도를 계승한 왕양명 식이다. 이명심은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理氣一物의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송명이학의 갈래를 두 계통으로 나눈다. "유·불·도를 포괄하는 동양철학의 종지는 천인합일 내지 만물일체를 구현함에 있다. 그런데 유학사상사를 개괄해보면, '인간과 천지만물이 하나가 됨'을 체현하는 방법론에서 性命철학과 生命철학의 두 줄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주학은 성명철학에 소속되고, 양명학은 생명철학에 소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양명과 녹문은 공히 인간의 본성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도덕'으로 규정하는 정주학과 변별되는 지점은 바로 '生意'의 강조에 있는 것이다." 성명철학은 정주학으로, 생명철학은 명도와 양명

학으로 구분한다. 이는 풍우란의 도식을 차용한 것이다. 성명철학과 생명철학 구분 도식은 크게 보면 그럴 듯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금방 이론적 장벽을 만나게 된다. 바로 '그렇다면 성명철학은 생명철학이 아니라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주자철학은 생명철학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 비판은 박길수의 다음 입장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견해 이면에는 생명에 대한 독특한 자각과 긍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는 주자학과 달리 성의 본질과 특징을 생명의 총체성이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규정한다. 이 때문에 그는 고자(告子)의 '생지위성(生之謂性)'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먼저 왕양명은 생지위성이 무선무악(無善無惡)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은 무선무악의 개념이 일차적으로 도덕성보다 생명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양명학의 정신이 存天理去人欲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무선무악의 개념이 일차적으로 도덕성보다 생명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준다."는 평가는 역시 지나친 감이 있다.

4. 평가와 전망

총14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로는 양명학(양명심학과의 비교 등) 관련 연구가 비중이 가장 높다. 본 보고서(명청대 유학사)를 작성하기 시작한 15년도부터(14년 발표 논문 기준) 왕양명에 대한 연구는 늘 수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학계에서 명대 유학사 연구 중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명·청대 유학 관련 논문으로 20년도 18편, 19년도 24편, 18년도 17편, 17년도 26편이었고, 올해 명대 유학사(주자학 양명학 분야) 총 14편 중에서 양명학(심학)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동양철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군이 다양화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내 연구의 영역이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거니와 연구자 층이 많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제4장

청대 사상 연구

류희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유학 연구와 관련된 중국의 청대 시기에 발표된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평가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중국 청대 유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 우선, 명대 말기와 청대 초기의 전환기에 활동한 학자들을 어느 시기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1840년 아편전쟁을 분기점으로 그 이후를 중국 근대로 본다. 그러므로 청대 유학의 범위는 청나라 건국(1616년)부터 아편전쟁까지로 보았으며, 명말·청초의 유학자도 청대 유학으로 포함하였다.

청대 유학의 연구는 시기의 제한 때문인지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다. 2021년도의 학위논문은 없고, 연구 논문도 10편에 불과하지만, 2020년의 왕부지 관련논문 2편과 안원 논문 1편보다는 많다. 10편의 논문 중에서 철학에 관한 것은 5편이며, 연구대상도 왕부지 관련 논문 5편, 황종희 1편, 고영무 2편 등 명말·청초의 학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10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김진근	왕부지 『周易外傳』의 无妄卦 풀이와 道·佛 兩家 비판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 제56집 (2021.12)	한국동양철학회
2	배다빈	淸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2021.9)	한국동서철학회
3	서성	王夫之 시론 중의 '現量'과 '詩的 想像'의 관계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54집(2021)	중국문화연구학회
4	안광호	顧炎武의 저술에 나타나는 중국 邸報 관련 기록 분석	중국학보 제96집(2021.5)	한국중국학회
5	이상은	황종희, 천하의 흥망에 필부도 책임이 있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1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6	이상은	고염무, 실학의 새바람을 일으키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2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7	이상은	왕부지, 기(氣)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3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8	이준경	『중용(中庸)』 '신독(愼獨)'의 도덕 교육적 의미 – 왕부지의 『중용』 이해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73호 (2021.11)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9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집 (2021.11)	동양철학연구회
10	정빈나	대진(戴震)의 혈기(血氣)와 심지(心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역학(易學)의 음양(陰陽)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5집 (2021.9)	한국유교학회

위의 논문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철학에 관한 논문은 5편이고, 2편은 문학과 역사에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3편은 칼럼 형식으로 철학자를 소개한 글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주제별 분류를 생략하고, 인물별로 분류해서 철학에 속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

2. 인물별 분류

2021년도 발표된 청대 유학의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면, 왕부지 5편, 황종희 1편, 고염무 2편, 대진 2편이다.

1) 왕부지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김진근	왕부지『周易外傳』의 无妄卦 풀이와 道·佛 兩家 비판에 대한 고찰	동양철학 제56집 (2021.12)	한국동양철학회
2	서성	王夫之 시론 중의 '現量'과 '詩的 想像'의 관계 고찰	중국문화연구 제54집(2021)	중국문화연구학회
3	이상은	왕부지, 기(氣)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3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4	이준경	『중용(中庸)』 '신독(愼獨)'의 도덕 교육적 의미 – 왕부지의 『중용』이해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제73호 (2021.11)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5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집 (2021.11)	동양철학연구회

다른 시기에 비해 연구 성과가 적은 청대 유학 연구의 성과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명말·청초의 왕부지·황종희·고염무 세 학자에게 편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왕부지에 관한 연구가 많다. 철학에 관련된 왕부지의 논문은 2018년 4편, 2019년 5편, 2020년 2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왕부지에 관한 2021년도 연구 성과를 보면, 철학에 해당되는 것이 3편, 문학 1편, 기타 잡글에 해당하는 칼럼이 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전문연구논문은 아니지만, 이상

은 교수의 「왕부지, 기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라는 칼럼이다. 더구나 이 글은 한국공업화학회에서 주관하는 『공업화학전망』에 실렸다. 아마도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적 상상력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획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융합한다는 면에서 매우 의미있고 앞으로 힘써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에 관한 논문은 3편이며, 고등학교 교사인 이준경 선생의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왕부지 『중용』해석의 '신독'의 의미를 고찰한 것이 있다. 그리고 김진근교수와 이철승 교수의 두 논문이 있는데, 김진근 교수는 왕부지의 주역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2020년 2편의 논문을 포함해 꾸준히 왕부지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이철승 교수도 왕부지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학자로서 왕부지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여러 편 내고 있다.

서성 교수의 논문은 불교의 인식론 개념인 '현량'을 문학의 '시적 상상력'과 관련해서 왕부지의 시를 고찰한 것으로 문학에 속하는 논문이다..

2) 황종희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이상은	황종희, 천하의 흥망에 필부도 책임이 있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1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명대 유학을 집대성했다는 유종주의 제자로서 명성이 높은 황종희

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명말·청조의 학자이다. 특히 중국최초의 체계적인 철학사인 『명유학안』과 혁명적인 정치철학과 입장을 밝힌 『명이대방록』으로 유명하다. 그러므로 당연히 황종희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의외로 황종희에 관한 연구가 그다지, 아니 적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검색해 본 결과, 2017년 1편, 2018년 1편, 그리고 2021년 1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2021년의 성과는 연구논문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학술지에 실린 것으로서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황종희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는 칼럼이다. 『명이대방록』에 비추어 보면, 비록 철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치학이나 역사학 분야의 연구 성과가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우리 학계의 분발이 요구된다.

3) 고염무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안광호	顧炎武의 저술에 나타나는 중국 邸報 관련 기록 분석	중국학보 제96집(2021.5)	한국중국학회
2	이상은	고염무, 실학의 새바람을 일으키다	공업화학전망 제24권 제2호 (2021)	한국공업화학회

고염무에 관한 연구 성과도 많지 않다. 2017년 2편, 2018년 1편, 2019년과 2020년에는 없다. 그나마 3편도 철학이 아니며, 고염무의 시와 한국의 학자, 예컨대 「연천홍석주의 문학관과 고염무의 영향」과 같은 논문들이다. 위의 2021년도 2편의 논문을 포함해 전문적인 철학 연

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또한 매우 의외라고 생각한다. 널리 알고 있듯이, 고염무는 경세치용을 주장한 실학을 개척한 대표적인 학자인 동시에 고증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한국유학에서 실학에 관한 연구는 매년 몇십 편씩 논문이 발표되는 것에 비한다면 더욱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

2020년 고염무에 관한 논문은 2편이다. 하지만 1편은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앞에서 보았던 이상은 교수의 연속기획에 의한 칼럼이다.

4) 대진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발행기관명	학술지명
1	배다빈	淸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2021.9)	한국동서철학회
2	정빈나	대진(戴震)의 혈기(血氣)와 심지(心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역학(易學)의 음양(陰陽) 관계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5집 (2021.9)	한국유교학회

이른바 '청대철학'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학자로 명말·청초의 세 선생(왕부지·황종희·고염무)을 제외하고, 실용주의로 유명한 안이학파의 안원과 이공, 그리고 대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펴본 세 선생을 제외하고 안원과 이공의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대진에 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진에 관한 논문은 2021년 2편 이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 동양철학계의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도 2021년의 대진 연구 2편은 순수한 철학 연구로서 배다빈

선생의 논문은 비교논문이고, 정빈나 선생의 논문은 순수한 대진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위안이 된다.

3.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21년도 청대 유학과 관련된 국내 연구성과는 모두 10편이며, 그 가운데 철학연구에 속하는 것은 5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5편의 철학 논문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비평하고자 한다. 서술은 연구대상별로 왕부지와 대진의 순서를 따르고, 비교논문은 뒤에서 다루겠다. 왕부지 논문의 경우는 김진근·이준경·이철승, 대진 논문의 경우는 정빈나·배다빈의 순서로 서술하겠다.

(1) 왕부지 관련 논문

1) 김진근: 「왕부지『周易外傳』의 无妄卦 풀이와 道·佛 兩家 비판에 대한 고찰」

김진근 교수는 왕부지의 『주역』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로서 국내의 몇 안 되는 왕부지 전문연구자이다. 그는 지난해에도 「왕부지의 否卦 풀이에 드러난 君子觀 고찰」 이라는 논문을 썼듯이 꾸준히 왕부지에 관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2021년에도 왕부지의 『주역』 연구자답게 왕부지 『주역외전』의 '무망괘'에 관련된 논문을 작성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왕부지의 『주역외전』에 나타난 '무망괘' 해석의 함축된 의미를 분석하고, 이어서 그 해석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기일원론(氣一元論)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논문의 요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부지 철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무망괘' 해석에 의거해 유가의 세계에 관한 긍정(有)의 논리, 즉 '있음'과 '생함'·'길러냄' 등의 의미를 추출하여 세계의 '참됨'·'망령됨 없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주역외전』의 해석에 드러난 도가와 불가에 대한 비판을 고찰했다. 도가와 불가가 자신들은 '없음(無)'의 차원으로 설정하고 유가는 '있음(有)'의 차원에 있다고 보고 유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비판했다. 왕부지는 도가와 불가가 도리어 세계의 본질을 오인해 망령되게 만들었다고 비판함으로써 유가를 옹호한 것임을 밝혔다.

셋째, 위와 같은 왕부지 논의의 근거는 모두 그의 기일원론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시 말해, 왕부지는 태허(太虛) 속에서 음기·양기 두 기가 상호 유기적 작용을 통해 거대한 조화(太和)를 이루며,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본체와 객형(客形)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것이다. 예컨대 인간의 감각능력에 의해 '있다'고 보는 차원(明)과 인간의 감각능력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없다'고 여겨지는 차원(幽)이 모두 기(氣) 하나의 세계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기는 이들 두 차원을 관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없음(無)'과 '있음(有)' 사이가 아닌 '어둠(幽)'과 '밝음(明)' 사이에서 명멸(明滅)한다는 것이다. 이러함은 천지만물의 끊임없는 생겨남에 의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바로 '망령됨 없음'의 실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가와 불가는 이러한 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없음(無)'을 전제로 유가의 '있음(有)'을 비판하고 조롱한 것이 오히려 망령된 것이고 비판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 논문의 요지는 한 마디로 왕부지가 기일원론에 근거해 도가와 불가를 비판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준경: 「『중용(中庸)』 '신독(愼獨)'의 도덕 교육적 의미
–왕부지의 『중용』이해를 중심으로–」

이준경 선생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동양철학 연구자라고 여겨진다. 보기 드물게 왕부지의 『중용』 해석을 선택해 교육적인 의미를 살펴본 의미있는 논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의 요지는 『중용』의 '신독(愼獨)'이 『중용』의 핵심이자 실천 개념인 '성(誠)'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도덕 교육자의 입장에서 지니는 의미를, 특히 왕부지의 『중용』 이해에 기반하여 그 실천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송대 신유학에 반대하는 왕부지는 『중용』을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교육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왕부지는 '신독'의 중요성을 '일음일양(一陰一陽)'하는 도(道)의 역동적인 성격에 기반한 『중용』의 '성(誠)'과의 관련성 속에서 '신독'이라는 내면적 성찰이 가르침을 수행하는 교육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상에서 끊임없이 선(善)을 추구하고 자 하는 군자(君子)의 노력이 '가르쳐 기르는(敎育)' 일의 핵심적 조건임을 '신독'의 실천적 의미를 통해 논증하였다. 그리고 『중용』의 '신독'이 일상의 사물에 감응하여 생겨나는 내면의 감정에 대해 사려하여 선악의 기미를 살피는 것으로 도덕 주체의 실존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성(誠)'의 수양임을 밝혔다.

둘째, 『중용』의 관점에 의하면, 교육의 본질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학습자의 성선의 마음을 존양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궁극적 지향은 학습자 스스로 존양성찰의 '성(誠)' 수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독'은 지속적인 존양공부로 가능한 성

찰로서 군자의 특성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대학』의 '신독'을 수양과 배움의 태도에서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중용』의 '신독'과 구분했다. 즉, 『대학』의 '신독'은 평소 행해지는 존양공부로서 학문과 수양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정직하여 거짓이 없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정직한 노력만이 일이 닥쳤을 때 선악의 기미를 알아 중용을 실천하도록 하는 『중용』의 '신독'이 가능하다는 것임을 밝혔다.

셋째, 『중용』에 의하면 교육은 진리를 먼저 깨우치고 수양할 줄 아는 교육자가 학습자들 역시 이 진리를 깨우치고 '신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왕부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의 '신독'을 강조했다. 즉, '신독'으로 중용의 도리를 행할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중용의 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자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교육자의 '중용'이 학습자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자겸(自謙)'은 교육자가 '신독' 수양을 통해 경험하는 '성(誠)'의 경지이며, 도덕적 만족감 내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교육자의 이상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처럼 이 논문은 실제 교육현장을 통해 얻은 경험에 근거해 '신독'의 도덕 교육적 의미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논문이라고 여겨진다.

3)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이 논문은 왕부지와 정약용의 본성론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이 논

문을 서술하게 된 동기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왕부지의 본성론과 정약용의 본성론을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하거나 성리학과 비교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왕부지와 정약용의 본성론을 직접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전자가 유가철학의 본성론 연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후자의 연구도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성리학과 기 철학 및 성리학과 성기호설의 비교 연구가 주로 본성에 대해 선험이나 경험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과 달리, 왕부지와 정약용의 본성론 문제는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인심과 도심의 관계 부분에서 견해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먼저, 왕부지의 기선·리선(氣善·理善)론과 정약용의 호선오악(好善惡惡)의 성기호설(性嗜好說)은 전통적인 성리학자의 기(氣)의 유선유악(有善有惡)과 리선(理善)에 근거한 성선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왕부지와 정약용의 유사함과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왕부지는 본성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본성을 시공을 초월한 형이상학적인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특성으로 여기는 것이다. 정약용 역시 본성을 변화하는 현실에서 삶을 이어가는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정약용은 성리학자들이 중시한 '본연지성'을 불교라고 비판하며, 본성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기호라고 하였다.

둘째, 왕부지와 정약용은 맹자의 사단(四端)에 대해 성리학자들이 도덕감정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것과 다르게 도심(道心)에 해당하는 본성이라고 한다. 정약용은 4단의 '단'을 본성의 실마리가 아니라, 본성

을 실행하는 시작이라고 하며, 왕부지는 4단을 7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본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왕부지와 정약용은 불선(不善)의 근거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정약용은 인심(人心)을 불선의 근거로 여기지만, 왕부지는 인심과 도심을 대립의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결합의 관계로 보고, 제자리(位)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불선의 근거라고 한다. 이러한 점은 왕부지가 생물학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대립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것과 다르게 정약용은 도덕적인 영지(靈知)의 측면과 본능적인 형구(形軀)의 측면을 구별하여 영지의 기호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부지는 맹자의 천형(踐形)론에 근거하여 몸과 정신의 유기적인 결합의 관점에서 성선설을 펼쳤다면, 정약용은 맹자의 대체(大體)와 소체(小體) 가운데서 대체의 관점에서 본성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진 관련 논문

1) 정빈나: 「대진(戴震)의 혈기(血氣)와 심지(心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역학(易學)의 음양(陰陽) 관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대진의 혈기와 심지의 관계를 역학에 근거해 기일원론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필자에 의하면, 대진은 혈기와 심지는 인간의 본성이며, 음양의 기(氣)라는 하나의 근본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심지가 어떻게 혈기의 영향을 받으며, 혈기와 심지가 연결되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역학에서 제시한 음양의 상호작용을 통해 혈기와 심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혈기와 심지는 상호작용의 구조에서 하나로 이어지는데, 감각적 영역의 지식을 획득하는 일과 정신적 영역의 지식을 획득하는 일은 음양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혈기와 심지에 관한 대진의 사유의 특색은 세계와 사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상적인 인식을 중시하고 신체와 정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유가 외부의 도전에 맞서 자기를 재구성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 배다빈: 「淸儒와 荀子 사상 관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錢大昕의 순자 이해 및 순자와 戴震 人性論의 내재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전대흔과 대진의 순자철학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 순자철학이 청대에 끼친 영향, 즉 청대의 순자학사(荀子學史)를 살펴본 것이다. 논문은 첫째, 명청교체기 이후의 순자지위의 제고, 둘째 전대흔의 순자에 대한 긍정적 관점 및 개념적 오류, 셋째 대진과 순자 인성론 간의 내재관계 및 단면적 이해에 관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청대의 순자학사에 관한 것으로 철학적인 의미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2021년도에 나온 청대 유학 중에서 철학과 관련된 5편의 논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성과 뿐만 아니라, 주목을 끌만한 논쟁적인 논문도 그다지 많지 않다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4. 평가와 전망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청대 유학 혹은 청대 철학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 범위가 짧다. 이런 까닭에 청대 유학에 관한 국내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많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의 동양철학 연구자들이 많지 않은 점도 있겠지만, 아마도 연구대상과 주제가 어떤 특정한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국내 동양철학의 연구경향을 개괄해 보면, 7·80년대는 선진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 90년부터 송·명대 철학의 연구자들이 증가한 것 같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양명학 연구가 성행하여 국제양명학 학술대회도 매년 거행되고 그에 따라 양명학 연구자도 증가한 것 같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는 현대신유학이 유행해서인지 근현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대는 송명과 근현대에 끼인 시기라 그런지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다행히 명말·청초의 왕부지·황종희·고염무에 대한 연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청대의 철학이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것이 다른 시기보다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생각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고증학적 사유·실사구시적 학문경향 등을 이끈 건가(乾嘉)학파와 안이(安李)학파의 철학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동·서 학문의 융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천주실의·영언여작 등의 서학(西學)에 관한 연구도 무척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처럼 청대에도 연구할 만한 다양한 사조들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학계의 청대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나 철학에 단절된 것이 없다면, 근대나 현대의 삶이나 생각을 연구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전의 것에 대한 다양한 탐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5장

근현대 중국 유학 연구

류희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중에서 유학 연구와 관련된 중국의 근·현대 시기에 발표된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평가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근·현대 중국 유학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살펴봐야겠다. 일반적으로 근대 중국철학은 본격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된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부터 1919년 5·4 신문화 운동까지를 말한다. 현대 중국철학은 1923년 과현논전(科玄論戰)부터 현재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아편전쟁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내의 중국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의 2021년도 근·현대 중국 유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32편으로 학위논문은 없고, 모두 연구 논문들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2020년 16편, 2019년 10편, 2018년 4편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아울러 엄복·강유위 등 근대화의 기초를 위해 노력한 학자부터 현대 신유학을 개창한 웅십력, 그리고 그 대표자인 모종삼, 중국철학사로 유명한 풍우란 등등 연구 인물과 주제들이 매우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32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지연	장태염의 유가 비판	인문사회21 제12권3호 (2021.6)	아시아문화학술원
2	김봉곤	중국근대유학의 이상사회론 –『대동서』와 『신중국미래기』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28호(2021.6)	영남퇴계학연구원
3	김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 –캉유웨이의 원시유학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103집(2021. 겨울)	범한철학회
4	김제란	웅십력의 부파불교 극미론에 대한 인식과 비판	문화와융합 제43권 2호 (2021.2)	한국문화융합학회
5	김제란	중국 근대불교에 미친 베르그송 철학의 영향	한국불교학 제98집 (2021.5)	한국불교학회
6	김제란	중관학(中觀學)에 대한 웅십력의 비판과 논쟁	한국교수불자연합회학회지 27권 2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7	김제란	한·중 근현대불교의 서양철학 수용과 비판	선문화연구 31집 (2021.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8	김현주	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에 입각한 양계초의 세계주의	정치사상연구 제27집 1호 (2021.봄)	한국정치사상학회
9	김현주	근대 지식인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중첩적 인식: 후스(胡適)의 자유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집 4호 (2021)	인문사회21
10	박승현	牟宗三의 儒學觀과 그 현대적 의의 –'인간다움'의 실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양명학 제63호(2021.12)	한국양명학회
11	박영미	근대 전환기 중국의 문명 인식과 '天' '國' 관념 –담사동과 엄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7집 (2021.1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2	박영우	웅십력 '내성외왕'론의 혁명성: '체용불이'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과예술 제11호 (2021.12)	인문예술학회
13	소진형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의 동아시아적 번역과 번역의 연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과 중국의 『법의 정신』 번역서의 정치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20권 2호 (2021.9)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4	양조귀, 조은상	論錢穆對漢代『春秋』學的研究	중국학보 97권(2021.8.)	한국중국학회
15	윤지원	20세기 중국 지식인의 문화관 –錢穆의 文化哲學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62집(20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16	윤지원	하린(賀麟)의 문화철학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5집(2021.9)	한국유교학회
17	이명수	동아시아 근대전환기 만물일체 사유의 전개–최한기와 담사동의 기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6호(2021)	동양철학연구회
18	이상화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미친 영향: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전과 이후 풍우란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2집(2021.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	이연승	胡適의 「說儒」에 나타난 '儒敎' 담론	중국학보 제98집(2021.11)	한국중국학회
20	이영란	량치차오(梁啓超) 감성 체계 변화에 따른 개혁 담론	21년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중인문학회
21	이영란	청말 '마정방종(摩頂放踵)의 감정과 공감 개혁–탄스통(譚嗣同)의 『인학(仁學)』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1호(2021)	한중인문학회
22	이재령	신문화 운동기 중국 지식인의 종교논쟁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2집(2021.12)	중국근현대사학회
23	이지영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번역가 고찰 –청말의 개혁사상가 옌푸(嚴復)의 『천연론』 번역 실천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2권 2호(2021. 여름호)	한국번역학회
24	조남호	모종삼의 미발체인설과 이발찰식설 비판	동서철학연구 제101호(2021.9)	한국동서철학회
25	조덕제	三民主義와 三均主義에 나타난 民 의식 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5집(2021.11)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6	陳亦伶, 김은영 옮김	강유위의 경학사상에 대한 하겸진의 비판	인문과 예술 제10호(2021.6)	인문예술학회

27	진종원	강유위 철학과 송학, 묵가의 관련성 일고찰 –『논어주(論語注)』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47집(2021.1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
28	천병돈	韓譯本『중국철학사』비교 연구 –유가 서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101집(2021. 여름)	범한철학회
29	최병욱	5·4운동 시기 陳獨秀의 기독교 인식 변화	인문과학연구 제69집(20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0	곽연우	中國淸末の政治改革と明治維新	퇴계학논총 제37집(2021.6)	퇴계학부산연구원
31	하주형	馮友蘭의 新理學과 '抗戰期的' 의미 –『新事論』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155집(2021.6)	동양사학회
32	한성구	"문제와 주의" 논쟁의 철학적 토대와 의의 –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101호(2021.9)	한국동서철학회

위의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대상인 인물과 주제들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다채로운 주체로 연구가 진행되어 특정한 주제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주제별 분류를 생략하고, 인물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려 한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13명의 학자와 서양철학 관련논문, 그리고 기타를 포함해 모두 15개로 구성된다. 인물별 분류는 출생 연도의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1) 엄복(嚴復, 1854–1921)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지영	탈식민주의 관점에서의 번역가 고찰 –청말의 개혁사상가 옌푸(嚴復)의 『천연론』 번역 실천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제22권 2호 (2021. 여름호)	한국번역학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엄복은 근대 중국철학의 시점이 되는 철학자이다. 그는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영국의 조선술을 배우러 영국으로 파견된 국비유학생이다. 그러나 그는 조선술 등의 과학기술이 서양의 근대화를 이룬 원인이 아니라 사회진화론과 같은 사상이라는 점을 깨닫고 귀국 후 번역작업을 시작하였다. 위의 논문에서 다루는 『천연론』은 바로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라는 사회진화론인데, 이것은 무자비한 자유경쟁과 적자생존을 강조하여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 심화된 영국의 사회갈등과 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반대해서 나온 책이다. 이 밖에 서양 근대화의 이론적 근거가 된 『국부론』·『자유론』·『법의 정신』 등을 번역·소개하여 중국 계몽의 물결을 연 선구자이다. 특히,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선 국민의 지혜(民智)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 교육입국(教育立國)을 강조했다.

국내의 엄복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양일모 교수가 있고, 『천연론』과 『진화와 윤리』가 모두 번역·출판되었다. 엄복과 관련된 연구 성과는 2020년 2편, 2019년 2편, 2018년 1편, 2017년 1편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2) 강유위(康有爲, 1858–1927) :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봉곤	중국근대유학의 이상사회론 –『대동서』와 『신중국미래기』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총 28호(2021.6)	영남퇴계학연구원
2	감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 –캉유웨이의 원시유학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103집(2021. 겨울)	범한철학회
3	陳亦伶, 김은영 옮김	강유위의 경학사상에 대한 하겸진의 비판	인문과 예술 제10호 (2021.6)	인문예술학회
4	진종원	강유위 철학과 송학, 묵가의 관련성 일고찰 –『논어주(論語注)』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제47집 (2021.1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동서』라는 이상사회론을 제기한 강유위는 철학과 정치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중국의 선각자이다. 강유위는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전반서화파와 달리 중국 전통에 근거해 서양문물을 수용하자는 중체서용(中體西用)적 입장을 취한다. 근래에는 강유위의 생각이 중·서 문화의 융합을 시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유위에 관한 연구 업적은 2021년의 4편을 포함해 2020년 6편, 2019년 6편, 2018년 4편, 2017년 10편으로 매우 많다. 이러한 많은 연구는 아마도 그의 저작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과 철학 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담사동(譚嗣同, 1865–1898)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영미	근대 전환기 중국의 문명 인식과 '天' '國' 관념 – 담사동과 엄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7집(2021.1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	이명수	동아시아 근대전환기 만물일체 사유의 전개–최한기와 담사동의 기학적 입장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6호(2021)	동양철학연구회
3	이영란	청말 '마정방종(摩頂放踵)의 감정과 공감 개혁–탄스통(譚嗣同)의 『인학(仁學)』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71호(2021)	한중인문학회

『인학(仁學)』으로 유명한 담사동에 관한 연구는 2020년 1편, 2019년 1편, 2018년 1편으로 많지는 않으나 비교적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 손문(孫文, 1866–1925)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조덕제	삼민주의와 삼균주의에 나타난 民 의식 연구	동양문화연구 제35집(2021.11)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911년 신해혁명을 주도하고 중화민국을 창설한 손문은 삼민주의로 유명하고 대만과 중국에서 모두 존중받는 혁명가이다. 특히 대만에서는 국부(國父)로 추앙되며, 그의 삼민주의를 실제로 정치이상으로 삼고 실현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요즘에도 손문의 삼민주의에 관한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느 대학교에는 대학원에 삼민주의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과도 개설되어 있다.

국내에선 위의 논문과 같이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삼민주의와 비교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근래에는 2018년에만 4편의 연구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5) 장태염(章太炎, 1868–1936)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지연	장태염의 유가 비판	인문사회21 제12권3호 (2021.6)	아시아문화학술원

장태염은 손문과 함께 혁명운동을 주도한 인물로서 장자의 「제물론』 해석으로 유명하다. 국내에서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1편, 2017년 1편의 성과가 있을 뿐이다.

6) 양계초(梁啓超, 1873–1929) :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현주	중국의 전통적 천하관에 입각한 양계초의 세계주의	정치사상연구 제27집 1호 (2021.봄)	한국정치사상학회
2	이영란	량치차오(梁啓超) 감성 체계 변화에 따른 개혁담론	21년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정치사상학회

근대 중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양계초는 강유위의 제자로

서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 명성과 영향이 컸던 정치혁명가이자 철학자이다. 그의 스승인 강유위의 '세계주의'와 달리 '국가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이 낙후된 원인은 혈연에 의한 '부민(部民)'단계에 머물러 국가의식이 없기 때문이며, "국민(國民)'으로 거듭 나야 근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신민'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신민설(新民說)』 뿐만 아니라, 근대 중국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이 있다. 이 책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는 길에 1차 세계대전의 폐해를 목격하고 쓴 유럽 여행 감상기이다. 양계초는 이 책에서 전쟁의 참화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추종하던 과학만능에 대해 "과학은 파산했다"라고 선언하며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양계초의 영향 하에 이후 중국의 학술계는 중국전통문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1923년의 과현논전(科玄論戰)으로 이어져 현대신유학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 박은식 등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가 서술한 『조선망국사략(朝鮮亡國史略)』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대학술개론』·『중국근삼백년학술사』 등은 청대 철학을 연구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공헌과 영향에 비해서 국내의 연구 성과는 많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국내 성과에는 2021년 2편, 2020년 4편, 2019년 2편, 2018년 2편, 2017년 6편이 있다.

7) 진독수(陳獨秀, 1879–1942)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최병욱	5·4운동 시기 陳獨秀의 기독교 인식 변화	인문과학연구 제69집(202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진독수는 이대조와 함께 1921년 중국공산당을 창립한 맑시스트이다. 그러나 맑시스트 이전에 진독수는 서구문명에 대한 전반서화파(全盤西化派)로서 과학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북경대학교 문과대학장으로 초빙되어 5·4신문화운동을 주도했으며, 호적(胡適)과 함께 『신청년』 잡지를 통해 백화운동 등 계몽운동에 온 몸을 던진 지식인이며, 이후 자유주의로 나간 호적과는 길을 달리해 사회주의로 나갔다. 또한 과현논전에서 호적과 함께 과학주의를 대표하였다.

진독수는 아마도 중국 근대화 혁명에 참가한 인물 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모택동 등 사회주의자들에게 수정주의라고 탄압을 받았지만, 두 아들도 사회주의 혁명에 희생됐듯이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는데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래에 복권되어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의 저작은 여러 연설문과 잡지에 실은 글들을 모은 『독수문존(獨秀文存)』이 있다.

중국에는 진독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성행하지만, 국내에는 2019년에 2편이 있을 뿐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근래에 『천두슈 사상선집』이 번역·출간 되었다.

8) 웅십력(熊十力, 1885–1968)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제란	웅십력의 부파불교 극미론에 대한 인식과 비판	문화와융합 제43권 2호 (2021.2)	한국문화융합학회
2	김제란	중관학(中觀學)에 대한 웅십력의 비판과 논쟁	한국교수불자연합회학회지 27권 2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
3	박영우	웅십력 '내성외왕'론의 혁명성: '체용불이'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제11호 (2021.12)	인문예술학회

웅십력은 현대신유학의 개창자로서 그 대표자인 당군의·서복관·모종삼의 스승이다. 그는 젊은 시절 신해혁명에 직접 참여한 뒤 지금 중국에 필요한 것은 정치혁명이 아니라 마음의 혁명이라고 깨닫고 학문연구에 힘썼다. 그리고 시대적 과제인 과학과 민주는 내성외왕(內聖外王)의 학문인 유학의 '외왕'이며, 이것은 중국문화의 본질인 공자·맹자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변질되어 계승되지 못한 공맹의 도(道)를 회복하는 데 힘썼다. 이처럼 중국전통에 근거하여 근대화를 이루려는 중체서용적 시도는 이른바 현대신유학의 시작이 되었다.

웅십력에 관한 연구는 대만과 홍콩, 중국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연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에는 4편, 2019년 1편, 2018년 1편 등 지금까지 석·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해 50여 편의 연구 성과가 있다. 또한 웅십력의 주저인 『신유식론(新唯識論)』과 『원유(原儒)』가 번역·출판되었다.

9) 호적(胡適, 1891–1962)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현주	근대 지식인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중첩적 인식: 후스(胡適)의 자유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2집 4호 (2021)	인문사회21
2	이연승	胡適의 「說儒」에 나타난 '儒敎' 담론	중국학보 제98집 (2021.11)	한국중국학회
3	한성구	"문제와 주의" 논쟁의 철학적 토대와 의의 –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101호 (2021.9)	한국동서철학회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존 듀이에게 실용주의를 사사(師事)한 호적은 젊은 나이에 북경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당시 문과대학장인 진독수와 『신청년』 잡지에 참여하며 백화운동 등 계몽운동에 힘쓴다. 아울러 진독수와 함께 과현논전의 과학주의 노선에 서서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실용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새로운 글쓰기 방법으로 『중국철학사대강(中國哲學史大綱)』(1919)을 서술했다.

호적은 중국 최초의 '자유주의자'라고 불리 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륙과 대만의 장개석 정부에서도 끝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다. 북경대학교 총장과 대만의 중앙연구원 원장을 맡을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다.

국내에 일찍이 호적의 철학사가 『중국고대철학사』(1962)라는 이름으로 번역·출간되어 많이 알려졌으며, 민두기 교수의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호적의 사상과 활동–』(1996)이라는 저술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이처럼 호적은 국내 학술계에 매우 익숙한 인물로서

그에 관한 연구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2020년 2편, 2019년 4편, 1918년 2편, 2017년 1편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10) 풍우란(馮友蘭, 1894–1990) :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하주형	馮友蘭의 新理學과 '抗戰期的' 의미 –『新事論』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제155집 (2021.6)	동양사학회
2	이상화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미친 영향: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전과 이후 풍우란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22집 (2021.8)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풍우란은 국내에 일찍이 그의 철학사가 번역·출간되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존 듀이에게 실용주의를, 그리고 월리엄 몬태규에게 신실재론을 사사(師事)하였다. 하지만 풍우란은 신실재론의 영향을 더 받아 귀국 후에 김악림(金岳霖)과 함께 청화대학교에서 신리학(新理學)을 철학체계를 주장했다.

풍우란은 철학사로 유명하지만, 사실상 그의 대표저작은 멸망의 위기에서 부강한 나라로 일어나야 한다는 염원이 담긴 『정원육서(貞元六書)』이다. 그 중에서 『신리학(新理學)』은 자신의 철학체계를 보여 주는 대표작이다. 『신원도(新原道)』는 오래 전에 곽신환 교수에 의해 번역·출간되었고, 최근에 신정근 교수에 의해 『신원인(新原人)』이 번역·출간되었다. 풍우란에 관한 국내의 연구 성과는 2020년 1편과 2017년 2편으로 명성에 비해서 그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1) 전목(錢穆, 1895–1990) :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양조귀 조은상	論錢穆對漢代『春秋』學的研究	중국학보 97권(2021.8.)	한국중국학회
2	윤지원	20세기 중국 지식인의 문화관 –錢穆의 文化哲學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62집(202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전목은 『주자신학안(朱子新學案)』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상 철학자라기 보다는 저명한 역사학자이다. 하지만 그는 철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저작을 내었으며, 근래에는 그의 애제자인 여영시(余英時)에 의해 세계적으로 명성이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전목에 관한 논문은 2021년의 2편 이외에 2017년 이후부터 검색되는 것이 없다.

12) 하린(賀麟, 1902–1992) :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윤지원	하린(賀麟)의 문화철학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5집(2021.9)	한국유교학회

하린은 양계초의 제자로서 하버드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학자이며, 칸트와 헤겔의 관념론에 의해 육왕심학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그는 중국이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논리 주체'를 이해하지 못해 '인식 주체'를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논증을 결여한 직관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인식 주체에 이르

지 못하고 오직 도덕 주체에만 머물러 근대적 지식체계, 즉 과학과 민주를 이룰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논리적 마음이 곧 리이다(論理心卽理)"라고 주장하며 육왕심학의 지행합일론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신유학에서 신리학과 대비되는 신심학(新心學)의 계열에 속하게 된다. 신심학은 웅십력·모종삼이고, 신리학은 풍우란·김악림이 대표자이다.

국내에는 하린 연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3편, 2018년 2편, 1017년 2편 등으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모종삼(牟宗三, 1909–1995) :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승현	牟宗三의 儒學觀과 그 현대적 의의 –'인간다움'의 실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양명학 제63호(2021.12)	한국양명학회
2	조남호	모종삼의 미발체인설과 이발찰식설 비판	동서철학연구 제101호(2021.9)	한국동서철학회

모종삼은 명실상부한 현대신유학의 대표 학자이다. 그는 웅십력의 애제자로서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웅십력은 그의 저명한 세 제자(당군의·서복관·모종삼)의 활약으로 인해 '현대신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운동이 일어나고, 그 명성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모종삼은 칸트를 중심으로 삼아 유학을 재해석하므로써 중국 유학의 '철학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전통 유학의 내성(內聖)에서 어떻게 신외왕(新外王), 즉 과학과 민주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철학작업을 죽기 전까지 하였다. 그의 영향력과 학문적

성취는 임종 전에 스스로 "고금무량(古今無兩)"이라고 했듯이 역사상 길이 남을 만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모종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80여 편에 이르며, 근래에는 이전보다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20년에는 1편, 2019년 1편, 2018년 1편, 1017년 2편이 있다. 그의 저작은 모종삼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작으로 뽑을 수 있는 『심체와 성체』가 국내에 완역되어 출간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번역·출간되었다.

14) 서양철학 관련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제란	중국 근대불교에 미친 베르그송 철학의 영향	한국불교학 제98집 (2021.5)	한국불교학회
2	김제란	한·중 근현대불교의 서양철학 수용과 비판	선문화연구 31집 (2021.12)	한국불교선리연구원
3	소진형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의 동아시아적 번역과 번역의 연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과 중국의 『법의 정신』 번역서의 정치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20권 2호 (2021.9)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인물별로 분류되지 않는 논문 중에서 서양철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3편이 있다. 웅십력 연구자로서 그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김제란 교수의 베르그송과 서양철학의 영향에 관한 논문이 눈에 띈다.

15) 기타 :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재령	신문화 운동기 중국 지식인의 종교논쟁	중국근현대사 연구 제92집 (2021.12)	중국근현대사 학회
2	천병돈	韓譯本『중국철학사』비교 연구 –유가 서술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 101집(2021. 여름)	범한철학회
3	소진형	中國淸末の政治改革と明治維新	퇴계학논총 제37집 (2021.6)	퇴계학부산연구원

인물로 분류되지 않는 논문 중에서 위의 세 논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국내에 출간된 중국철학사를 비교·연구한 천병돈 교수의 논문이 이채롭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2021년에 발표된 근·현대 중국 유학에 관련된 32편의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32편의 논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선택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겠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32편의 연구 성과 중에서 철학적으로 이론적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는 논문을 선별해서 살펴보겠다.

(1) 진종원 : 강유위 철학과 송학, 묵가의 관련성 일고찰 –『논어주(論語注)』를 중심으로–

강유위의 철학은 공자의 '인(仁)', 장재의 원기(元氣)에 근거한 사해동포주의의 영향하에 건립되었다고 널리 알고 있다. 하지만 묵가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점은 매우 이채롭다. 이 논문은 주희로 대표되는 송학(宋學)과 묵가와의 비교를 통해 강유위의 본성·인욕과 ·박애·공리 등의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강유위의 '본성'을 송학이나 묵가와 달리 도덕적인 규정이 배제된 자연적 조건인 지각개념으로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는 송학과 묵가를 비판하고, 개인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 즉 공리성이 도덕적 덕목인 인과 박애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대동사회의 목표는 모든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실현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처럼 필자는 강유위의 대동사상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지만, 아홉 가지(九界) 차별의 철폐를 주장하는 '세계주의'와 세계시민(天民)을 강조하는 강유위의 입장에 정합하는지는 재차 성찰해 볼 여지가 있다.

⑵ 강지연 : 장태염의 유가 비판

필자는 이 연구가 문헌분석 방법론을 통해 중국 사상가 장태염의 유가 비판 사상에 대해 서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에 의하면, 장태염은 존 로크의 경험론이 독단주의·권위주의 타파와 연결된다는 정치철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맹자의 성선설이 가지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성무선무악적 관점의 이론을 분석했다고 한다. 장태염은 이러한 동서철학의 비교 작업을 통해서 유가의 인성론을 비판하였다. 또한 죽음에 관한 관점에서 유가의 지향점은 불가와 대치된다고 장태염은 말했다. 불가의 열반이론이 독특한 사유 체계와 독특한 수련을 통해 죽음의 공포를 극복했다면, 삶과 죽음의 갈래 길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도의에 대한 선택일 수 있고, 생명이 가져야 할 존엄에 대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유가의 체계라는 것이다. 필자는 장태염의 철학이 인성론·본체론·사생론(死生論)을 통해 전통 철학 속에서 전개되는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⑶ 박영우 : 웅십력 '내성외왕'론의 혁명성: '체용불이' 개념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웅십력이 『원유』를 통해 보여준 내성외왕론에서 제시된 현대적 과제의 의미에 주목하고, 그의 내성외왕론의 성립이 '체용불이(體用不二)' 등 그의 '불이'의 철학적 논리를 통해 입증되는 사유과정을 추적하면서 그것이 지닌 개념적 특징과 성패의 의의를 지적하였다. 필자는 크게 두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웅십력은 내성외왕론에서 내성론은 전통 사상의 '천제(天帝)'와 같은 종교적·미신적 근원 개념을 철폐하는데, 이와 더불어 송명리

학의 '리' 개념 또한 전제주의 체제의 지배질서에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웅십력의 외왕론은 모든 계급적 지배질서를 혁파하여 '태평세'로 명명되는 대동사회를 건설하는 데 최종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가적 입장에서 사유재산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웅십력의 내성외왕론은 혁명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필자는 말한다.

(4) 한성구 : "문제와 주의" 논쟁의 철학적 토대와 의의 –후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문제와 주의 논쟁(問題與主義之爭)'은 5·4 신문화 운동시기에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나은가, 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나은가를 둘러싸고 실용주의자 호적과 사회주의자 이대조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이다. 표면적으론 "어떻게 중국을 개조할 것인가"라는 것이 논쟁의 중심주제였지만,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외국의 학문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논쟁 쌍방의 주요 인물이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대표하면서 '문제와 주의' 논쟁은 정치 권력을 선점하기 위한 권력투쟁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까닭에 이 논문은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철학적·사상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쟁을 살펴보았다. 즉, 본 논쟁이 단순히 정치적 영역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전통철학이 현대철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본질주의에 대한 신지식인의 비판과 극복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5) 이상화 : 1949년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미친 영향: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전과 이후 풍우란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중심으로

필자는 논문의 목적을 "사회주의 중국 건국 이전과 이후 풍우란 철학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분석하여 사회주의 중국 건국이 중국철학에 끼친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풍우란의 철학에는 단절성과 연속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을 본 논문은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단절성의 원인은 1949년 이후에 풍우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비판 내용을 보면, 풍우란 저작에 대한 계급성과 풍우란 철학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풍우란은 자신의 부르주아 계급성과 형이상학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중국의 지성계는 기존의 철학 혹은 중국철학에 대해 인정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그에 맞춰 풍우란 사상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연속성의 원인은 먼저 풍우란의 신실재론이 유물론과 내적·형식적으로 친화적이었다는 것에 있다고 한다. 신실재론은 보편 논리의 실재성을 강조하고, 사적 유물론은 역사발전 법칙의 실재성을 인정한다. 풍우란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의 변화가 어렵지 않았다. 자신이 주장하던 '보편성(共相)'이 철저하게 물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만 고려하면 유물론은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이었다. 또한 사회주의 중국에서 강조된 변증법도 풍우란의 사고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 변증법을 통해 풍우란은 기계적 유물론에서 벗어나 자기 사고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6) 윤지원 : 20세기 중국 지식인의 문화관 –錢穆의 文化哲學을 중심으로–

국내에 국학대사(國學大師)로 추존되는 전목에 관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 이렇듯 국내에서 잘 연구되지 않는 분야를 윤지원 교수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필자는 문화관을 중심으로 전목 선생의 동·서 문화에 대한 태도와 서세동점에 대한 입장을 보려는 듯하다. 그는 우선, "그 어떤 사회의식 형태든 사회적 존재의 산물이며 문화철학의 탄생과 형성 그리고 발전은 특정한 사회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히는 전목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관은 전목이 역사적 고찰과 철학적 사상을 결합하여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철학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목은 문화란"점진적인 발전의 오랜 역사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그룹의 삶"이라고 정의하며, 문화를 세 종류로 나누고, 인류 생활의 다양한 형태를 7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문화의 3 유형'과 '7 요소'라고 불렀다.

전목은 문화와 문명의 관계 그리고 문화를 대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중국문화의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의 시야에서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 관점을 제기한다. 그는 동서양의 서로 다른 경제적 특징과 자연환경이 동·서 문화의 본질적 차이의 원인이라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문화는 내경적 농경문화이고, 서양문화는 외경적 상업문화라고 한다. 전목의 문화철학 체계와 중·서 문화에 대한 비교는 오늘날 동아시아 문화연구에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며, 미래 문화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살펴본 결과, 이 논문은 논증적인 것이 아니라, 전목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역시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7) 조남호 : 모종삼의 미발체인설과 이발찰식설 비판

조남호 교수의 논문은 2021년 근·현대 중국 유학과 관련된 32편의 성과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논문이라고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 가지로 모종삼을 비판하고 있다.

첫째, 모종삼은 이통의 미발기상체인과 호굉의 이발찰식을 초월적 역각체증과 내재적 역각체증이라고 나누었는데, 이러한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모두 선정(定心)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발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정좌하여 정심상태에서 염두의 발동과 유전(流轉)을 살피는 것이 찰식이고, 더 나아가 염두가 발동하지 않아 염두에 대한 어떤 감정조차 발동하기 이전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미발기상체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모종삼은 호굉의 이발찰식을 내재적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도 사실상 정심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발찰식은 정심상태에서 염두와 감정이 발동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불교의 염주(念住) 공부는 참선의 정심상태에서 미발과 이발 모두 염두가 일어날 때 염두의 현행을 멈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감정과 사유가 일어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종삼이 주희의 도남학과 호남학의 구분을 따르지 않고 역각체증, 즉 초월적 체증과 내재적 체증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호굉과 이통을 주희와 다른 사유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

4.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2021년도 국내에서 발표된 근·현대 중국 유학에 관련된 32편의 논문을 인물별로 정리하고 7편의 논문을 선택해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근래에 근·현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청대의 연구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생각이나 역사는 단절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근·현대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청대 유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근·현대 연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가 어느 한쪽에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대신유학의 신심학, 즉 하린·모종삼 등의 연구가 많은 반면에 신리학 계통의 김악림·풍우란 등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육왕심학을 중시하는 웅십력의 영향이기도 하겠지만, 다양한 연구는 복잡다단한 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아울러, 맑시즘을 추종하는 진독수와 이대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중국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지금의 중국사회 및 정치 등등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부단히 유전하는 세계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제2부 한국유학

제6장

한국 성리학 연구

배제성·유한성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유교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것이다. 검토 범위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된 한국성리학 관련 학술지 논문으로 총 90편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연구 현황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물별,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살펴본 다음, 몇 편의 주요 논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 동일한 논문이 복수(複數)의 인물이나 주제에 관련될 경우에는 관련된 목록 모두에 중복하여 포함시켰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에서는 율곡 이이(李珥, 栗谷 1536-1584)에 관한 논문과 이황(李滉, 退溪1501-1570)에 관한 논문이 동일하게 15편(이황과 이이를 함께 다룬 논문 1편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을 합친 비중은 전체 논문 가운데에 약 32%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이이와 이황이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되는 양상은 본 레포트 분석이 동일한 규모로 처음 시행된 2016년 이래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양상들도 발견된다. 먼저 2017년까지 이황에 관한 연구는 이이에 비해서도 두 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황과 이이 사이의 차이는 2018년부터 감소하여 2019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근소하게 앞서고, 2020년에는 오히려 이이가 크게 앞서는 결과(17 대 6)가 나왔다. 그와 동시에 전체 목록에서 이황과 이이가 차지하는 비중도 26%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는 다시 이황의 연구 비중이 상승하면서 동수를 이루었으며, 이황·이이 연구 비율도 약 32%로 다소 상승하였다. 이황과 이이 다음으로 연구가 많았던 인물은 간재 전우로 7편이었다. 전우는 작년의 5편에 이어서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여헌 장현광(5편)과 송사 기우만(4편)에 관한 연구가 뒤를 이었는데, 이 두 인물에 관한 연구는 작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 율곡 이이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종성	「율곡의 공공성 리더십 이념과 천리구현의 정치 및 언론 소통의 문」	『대동철학』95	대동철학회
2	김희	「율곡 순언의 덕치론(德治論)과 군주 계몽의 정치성 연구」	『대동철학』 97	대동철학회
3	김희	「율곡 『순언』의 덕치(德治)과 양민(養民)의 관계 양상 연구」	『동서철학연구』 101	한국동서철학회
4	최보경	「율곡『經筵日記』에 나타난 士의 召命意識」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5	김세종	「율곡 이이의 정치이론[政道] 시론(試論)」	『동양철학연구』 106	동양철학연구회
6	이경동	「17세기 사상계의 율곡경세론 수용과 전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7	정도원	「조선 전기 도학자들의 리(理) 인식과 사회실천론–정암·퇴계·율곡의 역사의식과 실천담론의 계승,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8	이현선	「이이의 기질변화론 고찰–장재수양론과 대조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5	(사)율곡연구원
9	이영경	「율곡의 수양론에서 성의(誠意)의 도덕실천적 특성」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10	고윤숙	「「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와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修己)」 경(敬)의 연관성 고찰–정좌(靜坐)의 의미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11	최기훈	「이율곡의 『순언(醇言)』에 나타난 유도심성론(儒道心性論)의 회통(會通)」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2	김세종	「율곡의 사상에서 윤리의 주체성 문제 고찰—인심도심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난숙	「율곡의 천도 조화와 도체 해석–유도회통(儒道會通)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4	정강길	「리기지묘(理氣之妙)의 묘(妙)를 해명하기–율곡 리기론(理氣論)의 과정원자론적 분석」	『율곡학연구』 45	(사)율곡연구원
15	윤천근	「율곡의 『순언』에 대한 고찰–16세기 조선 시대문화의 전개와 연관하여」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2016년 이래 모든 조사에서 이이와 이황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편수가 많지만, 그 연구 분포를 보면 일관된 차이점도 있다. 그것은 이이에 관한 논문 가운데에는 유독 경세론 관련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위의 목록 중에서 경세론 관련 연구로 볼 수 있는 연구는 1~7에 해당하는 일곱 편이다. 이는 이황 관련 연구에서 보이는 두 편보다도 훨씬 많지만, 이이 연구 목록 자체로 보아도 전체 연구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나머지 8편의 연구는 수양론과 심성론, 이기론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순언』을 다룬 연구가 총 네 편으로 상당히 많다는 점도 눈에 띈다.

2) 퇴계 이황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강보승	「퇴계 이황의 역사의식과 경세사상 및 그 구현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2	정도원	「조선 전기 도학자들의 리(理) 인식과 사회실천론–정암·퇴계·율곡의역사의식과실천담론의계승,발전이라는관점에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3	정재권	「퇴계(退溪) 『활인심방(活人心方)』의 활용 방안 연구–심리상담을 중심으로」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4	박균섭	「퇴계 사상의 교육학적 해석과 미래 전망」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5	안동렬	「퇴계의 교육론에서 학교의 의미와 성격」	『교육철학』 91	한국교육철학회
6	김승영	「이황의 '미발수행법'을 통한 인간 욕망의 절제와 사회적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	『대동철학』 96	대동철학회
7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 『論語』 解釋」	『退溪學報』 149	퇴계학 연구원
8	이상호	「퇴계학 전승과 학파의 이론기반으로서 '퇴계학' 성립에 관한 연구(2)–사단칠정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	한국국학진흥원

9	김형찬	「理學과 心學, 그 간극 극복의 과제–주자의 만년설과 퇴계의 문제의식–」	『退溪學報』 150	퇴계학 연구원
10	김승영	「이황 미발론의 형성배경과 천리체인의 방법」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1	정도희	「퇴계의 人心道心說–「人心道心精一執中圖」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12	김성실	「퇴계의 人心道心 理解」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13	王晩霞	「퇴계의 주돈이 사상 계승적 측면」	『退溪學報』 149	퇴계학 연구원
14	최다은	「퇴계 매화시에 나타난 소박미담론」	『동양예술』 50	한국동양예술학회
15	서근식	「퇴계 이황의 『啓蒙傳疑』에서 『周易參同契』의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2021년 발표된 퇴계 관련 논문은 15편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이 관련 논문과 동수를 이루었다. 하지만 논문들의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변화된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기존 퇴계 연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단칠정 논쟁, 더 넓은 범위로는 이기론에 관련된 연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미발론 등을 다룬 수양론이나 넓은 의미의 교육론, 사상사적 측면, 경학적 측면 등의 주제가 다각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3) 간재 전우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 사상 고찰–喪禮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2	길태은	「간재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3	이승환	「간재 전우의 미발론과 정좌관」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4	유지웅	「간재 전우의 화서학파 성리설 비판과 문제의식」	『동서철학연구』 102	한국동서철학회
5	정종모	「艮齋田愚의 心統性情論과 그 철학적 의의」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6	이상익	「유교(儒敎)의 인문정신(人文精神)과 간재(艮齋)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의 의의」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7	김혜수	「간재 후학 立窩 金鍾淵의 삶과 성리학설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전우에 관한 연구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5-6편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의 일곱 편은 근소하게나마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이기는 하다. 또 그 가운데 포함된 연구 주제도 상당히 다양하다. 김현수는 전우의 예학 사상을 다루었고, 길태은은 경학적 관점을 통해서 전우의 도의에 내재된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승환은 전우의 미발론을 주제로 다루었고, 정종모의 전우의 심통성정론을 철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익은 전우의 대표적인 학설 중 하나인 성사심제설을 인문정신이라는 더 넓은 관점에서 조명하였고, 유지웅은 타 학파(화서학파)에 대한 전우의 비판에 담긴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김혜수는 전우의 후학을 중심으로 간재학파의 성리설을 연구하였다.

4) 여헌 장현광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엄연석	「장현광의 태극설과 경위설의 문화다원론적 재조명-『여헌 선생 성리설』의 이론적 해명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	한재훈	「조선 성리학에서 여헌학파의 학파적 좌표」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	김낙진	「心法의 관점에서 본 장현광의 경위설」	『孔子學』 44	한국공자학회
4	엄연석	「여헌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5	홍성민	「理氣經緯의 형이상학과 도덕적 인간학」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2021년 한국 성리학 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장현광에 관한 연구가 예년에 비해서 많았다는 것이다. 엄연석은 장현광 학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알려진 경위설의 도덕실천적 의미를 규명한 논문과 문화다원적인 함의를 조명한 논문까지 2편의 연구를 발표했다. 김낙진은 심법의 관점에서 수양론에 중점을 두어 경위설을 분석했다. 홍성민 역시 경위설을 주제로 다루었는데 이기론에 따른 형이상학적 특성과 인간관을 종합적으로 드러내었다. 한재훈은 학파적인 관점에서 여헌학파를 다루었다.

5) 송사 기우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강학활동과 蘆沙學派의 확대」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2	박학래	「기우만(奇宇萬) 문인들의 강학활동과 노사학맥(蘆沙學脈)의 지속」	『儒學研究』 5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학문활동과 蘆沙性理說의 계승」	『남명학연구』 7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2021년 연구동향에서 보인 또 하나의 특징점은 노사학파의 송사 기우만에 대한 연구가 4편으로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3편이 동일한 연구자(박학래)의 성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해당 연구자의 지향을 반영하는 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기우만이 주목받는 것은 노사 기정진으로부터 이어진 노사학맥에 대한 연구의 확장을 가리킨다. 박학래 뿐만 아니라 김근호 역시 기우만의 심학과 위정척사(부정척사) 사상과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를 발표하였다.

6) 우암 송시열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문준	「송시열의 도학적 사회사상」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2	박학래	「尤庵 宋時烈의 수양공부론芻議」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3	박학래	「尤庵 宋時烈의 "中節"說 淺析」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2021년 목록에서 우암 송시열에 관한 논문은 세 편 포함되었다. 김문준은 송시열의 사회사상을 다루었다. 반면 안재호는 송시열의 수양론과 심성론을 다룬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7) 성호 이익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전수연, 김민재, 김용재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6)」	『양명학연구』 60	한국양명학회

2	이재복	「이익과 이병휴의 공칠정설과 그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66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3	최정연	「성호학은 주자학의 미분화적사고를 탈피했는가-리 개념의 분화현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성호 이익은 실학자로도 분류되지만, 성리학과 연관 관계가 높은 내용이 다루어진 연구의 경우에는 목록에 포함시켰다. 전수연 등은 양명학에 대한 조선성리학자들의 비판을 주제로 한 연구 기획의 일환으로 성호 이익을 다루었다. 이재복은 성호학파의 분기를 초래할 정도로 격렬한 토론 주제였던 공칠정설을 이익과 이병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최정연은 "리 개념의 분화현상"을 주제로 성호학과 주자학의 관계를 분석적으로 규명하였다.

8) 남당 한원진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배제성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론 연구」	『양명학연구』 62	한국양명학회
2	최영진, 조첨첨	「「太極圖說」에 대한 南塘의 理氣論的 해석체계-經義記聞錄 「太極圖」를 중심으로-」	『철학』 146	한국철학회

남당 한원진 관련 연구는 이황과 이이를 제외하면, 지난 몇 년 간 지속적으로 5-6편이 꾸준히 발표되었던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그런데 2021년에는 두 편만이 발표되었다. 연구방향도 기존에 주로 논의되었던 방식과는 다르다. 배제성의 연구는 한원진의 학설을 전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의 양명학 비판에 추점을 두어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최영진과 초첨첨은 한원진의 저술인 『경의기문록』에 나타난 「태극도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그의 성삼층설에 대한 분석까지 논의를 확장하여 전개하였다.

3. 주제별 분류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리학 이론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이에 관한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은 총 51편으로 전체 논문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37%)이나 2020년(4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사실 이기심성론은 성리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 여타의 다른 응용이나 실천적 측면 또한 어느 정도는 이에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범주 구분에 있어서 다소간의 관점 차이나 매년도별의 연구동향에 따른 변동은 있을지라도 이기심성론의 높은 비중 자체는 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가지는 것은 수양론 및 교육론으로 총 16편(약 18%)인다. 이는 개수와 비중 면에서 2020년과 일치한다. 경세론 관련 논문은 9편으로 10%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의 13편(약 14%)보다 감소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14편으로 대략 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의 23편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수양론 및 경세론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였지만, 경세론과 기타 범주 논문들은 상당히 줄었고, 이기심성론 관련 연구의 개수와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이기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상현	「삼산 권기덕의 성리설」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	양순자	「「외필(猥筆)」의 사상적 단초를 찾아서–기정진(奇正鎭)과 조성가(趙性家)의 문답을 중심으로」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3	장세호	「사계 김장생의 철학 사상」	『韓國思想과文化』 104	한국사상문화학회
4	김승영	「입암 남정우의 「태극도설」 해석에 나타난 우주론 이해의 특성」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5	김동희	「구봉 송익필의 리기묘합적 사유–한국유가철학 방법론 모색–」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6	이원준	「낙론계 성리학자들의'리약기강(理弱氣强)'명제 인식–18세기 이후 한국 성리학계의 '이기일원화(理氣一元化)'경향성과 관련하여」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7	이난숙	「율곡의 천도조화와 도체 해석–유도회통(儒道會通)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8	정강길	「리기지묘(理氣之妙)의 묘(妙)를 해명하기–율곡 리기론(理氣論)의 과정원자론적 분석」	『율곡학연구』 45	(사)율곡연구원
9	최정연	「성호학은 주자학의 미분화적 사고를 탈피했는가–리 개념의 분화현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10	王晩霞	「퇴계의 주돈이사상 계승적 측면」	『退溪學報』 149	퇴계학 연구원
11	엄연석	「여헌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12	홍성민	「理氣經緯의 형이상학과 도덕적인간학」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13	조우진	「月波 鄭時林의 主理說—交遊關係와 「猥筆」 論辨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14	정도원	「문봉 정유일의 합리적 세계인식과 도학지향」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15	최영진, 조첨첨	「「太極圖說」에 대한 南塘의 理氣論的해석체계-經義記聞錄 「太極圖」를 중심으로-」	『철학』 146	한국철학회
16	조민환	「조선조 書論에 나타 난理氣論적 書藝認識」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이기론에 대한 논문은 14편으로 전년도(5편)에 비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이기론과 심성론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이기론과 심성론을 합한 전체의 편수와 비율이 더 중요하다. 이기론과 심성론을 합한 이기심성론의 편수 역시 2020년 39편에서 2021년 51편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이이, 이황, 김장생, 장현광, 기정진, 김장생, 정유일 등이 다루어졌다.

2) 심성론

2021년 목록에 포함된 심성론 관련 논문은 총 35편이었다. 논문 수가 많은만큼 전년도와 유사하게 이 논문들을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 호락논쟁, 심설논쟁 그리고 기타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세종	「율곡의 사상에서 윤리의 주체성 문제 고찰—인심도심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철학논집』69	한국철학사연구회
2	이재복	「이익과 이병휴의 공칠정설과 그 의미」	『인문과학연구논총』 66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인문과학연구소
3	이상호	「퇴계학전승과 학파의 이론기반으로서 '퇴계학'성립에 관한 연구(2)—사단칠정론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	한국국학진흥원
4	정도희	「퇴계의 人心道心說—「人心道心精一執中圖」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5	김성실	「퇴계의 人心道心理解」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6	룩이준	「정시한의 사단칠정론 재검토—'理氣渾淪'개념을 통해서—」	『退溪學報』 150	퇴계학 연구원

7	최정연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	『儒學硏究』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정재현	「사단칠정론은 철학이론인가?」	『유교사상문화연구』83	한국유교학회

2021년에 발표된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 관련 논문은 8편으로 전년도의 5편에 비해서는 다소 많았지만 2019년의 15편에 비해서는 여전히 훨씬 더 적었다. 예년의 경향을 보면 사단칠정 및 인심도심론에 대한 논문은 지속적으로 심성론 내에서 가장 많은 편수를 차지하여 왔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 이례적으로 크게 줄어서 호락논변보다 더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었다. 2021년에는 다시 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어 호락논쟁(4편)보다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전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압도적인 비중은 아니다. 이러한 변동양상이 이후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록에 포함된 논문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세종은 율곡의 인심도심론이라는 익숙한 주제를 윤리의 주체성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하게 풀어내었다. 정도희와 김성실은 상대적으로 사단칠정론이 더 주목받아 온 이황의 인심도심론에 초점을 둔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정연은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을 특징을 규명하였다. 한편, 정재현은 성리학 연구에서 가장 철학적인 이슈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져 온 사단칠정론이 정말로 철학이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2) 호락논쟁 관련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유지웅	「18세기 중반 기호낙론계 심론—심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儒學硏究』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이종우	「김창흡과 이현익의 미발과 미발공부의 유무에 관한 논쟁 및 김창협과 비교」	『양명학연구』 63	한국양명학회
3	이종우	「주희의 미발공부 유무와 호락논쟁」	『온지논총』67	온지학회
4	배제성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2021년 호락논쟁 관련 연구는 4편으로 전년도의 11편에 비해서 크게 줄었다. 이는 2018년 이래로 4편, 7편, 11편으로 증가해 온 경향이 반전된 양상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한원진과 이간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기론 파트에서 최영진과 조첨첨의 「「太極圖說」에 대한 南塘의 理氣論的해석체계- 經義記聞錄 「太極圖」를 중심으로-」가 한원진을 중심으로 호락논쟁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또한 호락논쟁 자체를 주제로 다룬 논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의 네 편의 논문 주제를 보면 유지웅은 낙론계를 통해 심에 대한 이기론적 규정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종우와 배제성은 한원진과 이간 당대의 호락논쟁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다룬 내용과 인물이 다르다. 이종우는 김창흡과 이현익을 다룬 논문 한 편과 더불어 주희의 미발공부와 비교하여 여러 명의 호락논쟁 논자들의 학설을 함께 다룬 논문 한 편을 발표하였다. 배제성은 외암 이간과 더불어서 인물성동론을 주장한 호학의 구성원인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론을 주제로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020년도 조사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호락논쟁에 대한 연구

가 한원진과 이간의 논쟁 이후의 다양한 전개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21년 한 해 동안 발표된 논문의 양은 적었지만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면서 추후 더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볼 만 하다.

(3) 심설논쟁 관련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전병철	「자동(紫東) 이정모(李正模)의 한주(寒洲) 성리설(性理說) 수용과정과 심설(心說) 논변」	『한국철학논집』70	한국철학사연구회
2	유지웅	「간재 전우의 화서학파 성리설 비판과 문제의식」	『동서철학연구』102	한국동서철학회
3	김낙진	「허유의 심설토론과 갈등의 양상」	『한국철학논집』70	한국철학사연구회
4	이형성	「重軒 黃澈源의 蘆沙學繼承에 의한 心性論一攷 –明德과 人心道心說을 中心으로–」	『남명학연구』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호락논쟁 이후 조선 후기의 대규모 논쟁인 심설논쟁 관련 논문은 4편으로 2020년에 비해서 1편 늘었다. 결국 심설논쟁 관련 연구는 지난 3년간 비슷한 정도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 올해 발표된 네 편의 논문은 심설논쟁에 관련된 주요 학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지웅은 간재학파의 관점에서 화서학파의 논의를 함께 다루었고, 전병철과 김낙진은 한주학파에 초점을 두어 심설논쟁을 조망하였다. 이형성의 연구는 노사학파의 관점에서 심설논쟁의 주요 이슈인 명덕설에 관해 논의하였다.

(4) 기타 연구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전성건	「송산 권재규의 心性一體論과 向華背夷論」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학문활동과 蘆沙性理說의 계승」	『남명학연구』 7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68	한국철학사연구회
4	계영경	「성현 『부휴자담론』에 나타나는 '기질지성'의 일관성문제—이택후의 '積澱' 개념과 연관하여—」	『민족문화』59	한국고전번역원
5	안재호	「尤庵 宋時烈의 "中節"說 淺析」	『동서철학연구』99	한국동서철학회
6	이형성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의 수도적(守道的) 유학계승(儒學繼承)과 심성합일적(心性合一的) 수양론(修養論)」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7	김종석	「『心統性情圖』해석을 둘러싼 쟁점과 맥락—李晩寅과 尹胄夏의 논변을 중심으로—」	『退溪學報』 149	퇴계학 연구원
8	홍원식	「한재 이목의 도학정치론과 철학사상」	『孔子學』44	한국공자학회
9	김근호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의 성리설(性理說)」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10	최기훈	「이율곡의 『순언(醇言)』에 나타난 유도심성론(儒道心性論)의 회통(會通)」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1	김형찬	「理學과 心學,그 간극 극복의 과제—주자의 만년설과 퇴계의 문제의식—」	『退溪學報』 150	퇴계학 연구원
12	김승영	「이황 미발론의 형성배경과 천리체인의 방법」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13	이명심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연구」	『양명학연구』 60	한국양명학회
14	정종모	「艮齋 田愚의 心統性情論과 그 철학적 의의」	『동양철학연구』105	동양철학연구회
15	이상익	「유교(儒敎)의 인문정신(人文精神)과 간재(艮齋) 성사심제설(性師心弟說)의 의의」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6	윤호진	「農山 鄭冕圭의 蘆沙學繼承과 學問世界」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7	이치억	「문봉 정유일의 퇴계학 계승 양상」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18	추제협	「입재 정종로의 성리설, 單說과 並說의 통합적 사유」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9	배제성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론 연구」	『양명학연구』 62	한국양명학회

기타로 분류된 연구 가운데는 위에서 이미 제시한 범주들에 어느 정도 관련된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연구의 초점이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 기타로 따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 예를 들면 전성건의 「송산 권재규의 心性一體論과 向華背夷論」, 박학래의 「松沙 奇宇萬의 학문활동과 蘆沙性理說의 계승」, 김근호의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와 같은 연구들은 심설논변에 관련되는 연구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로 분류된 연구들의 폭은 넓은 편이다. 홍원식은 한재 이목의 도학정치론을 다룬 논문을 발표했고, 이치억은 문봉 정유일의 퇴계학 계승 양상을, 추제협은 입재 정종로의 성리설을 특징을 규명한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다. 김승영은 퇴계 미발론의 형성 배경을 천리체인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명심은 조선 후기 호락논쟁 과정에서 독특한 학설을 주장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녹문 임성주와 왕양명의 심성론을 비교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전우의 성사심제설을 유교의 인문정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이상익의 연구나 리학과 심학의 간극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통해 이황의 관점을 해석한 김형찬의 연구도 주목할 만 하다.

3) 수양론 및 교육론

2021년에 게재된 수양론 및 교육론에 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현선	「이이의 기질변화론 고찰 — 장재 수양론과 대조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5	(사)율곡연구원
2	정재권	「퇴계(退溪) 『활인심방(活人心方)』의 활용방안 연구 —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退溪學論叢』 37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3	안재호	「尤庵 宋時烈의 수양 공부론 芻議」	『한국 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4	박균섭	「퇴계사상의 교육학적 해석과 미래전망」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5	길태은	「간재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6	김혜수	「간재 후학 立窩 金鍾淵의 삶과 성리학설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7	김낙진	「心法의 관점에서 본 장현광의 경위설」	『孔子學』 44	한국공자학회
8	안동렬	「퇴계의 교육론에서 학교의 의미와 성격」	『교육철학』 91	한국교육철학회
9	강동호	「제주오현 규암 송인수의 수기치인 공부론과 교육실천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94	한국교육철학회
10	사재명 황영신	「한국 유학의 심성론에 근거한 대학생 인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 「신명사도」와 「천군전」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1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1	김승영	「이황의 '미발수행법'을 통한 인간욕망의 절제와 사회적 갈등의 해결방안 모색」	『대동철학』 96	대동철학회
12	성광동	「성리학의 공부론과 이상적 삶의 모습에 대한 고찰」	『동양고전연구』 83	동양고전학회
13	이승환	「간재 전우의 미발론과 정좌관」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14	이영경	「율곡의 수양론에서 성의(誠意)의 도덕실천적 특성」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15	고윤숙	「「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와 『성학집요(聖學輯要)』 「수기(修己)」 경(敬)의 연관성 고찰— 정좌(靜坐)의 의미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16	유민정	「朱熹와 李滉의 修辭學的『論語』解釋」	『退溪學報』149	퇴계학 연구원

16편의 연구에서 역시나 이황을 주제로 한 연구가 5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이가 3편 전우가 2편을 차지하고 있다. 수양론과 교육론에서 기존에도 많이 다뤄진 이황과 이이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전우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제로 나누자면 정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논문이 다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수양을 행위로서 고찰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학이나 심리상담 그리고 욕망이라는 현재의 주제들과 연관된 논문들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에서도 수양론과 교육론이 여전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만한 주제로 연구자들에게 인식되었음도 확인 가능했다. 이에 이황의 미발수행을 욕망의 절제라는 관점에서 다룬 논문을 개별 리뷰로 분석하여 현재 어느 수준까지 수양론을 현대적 의미와 연관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경세론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이종성	「율곡의 공공성 리더십 이념과 천리구현의 정치 및 언론소통의 문」	『대동철학』95	대동철학회
2	김희	「율곡 순언의 덕치론(德治論)과 군주계몽의 정치성 연구」	『대동철학』97	대동철학회
3	김희	「율곡『순언』의 덕치(德治)과 양민(養民)의 관계 양상연구」	『동서철학연구』101	한국동서철학연구회
4	최보경	「율곡『經筵日記』에 나타난 士의 召命意識」	『동양철학』55	한국동양철학회

5	김세종	「율곡 이이의 정치이론[政道] 시론(試論)」	『동양철학연구』 106	동양철학연구회
6	강보승	「퇴계 이황의 역사의식과 경세사상 및 그 구현에 관한 고찰」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7	이경동	「17세기 사상계의 율곡 경세론 수용과 전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8	김문준	「송시열의 도학적 사회사상」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9	정도원	「조선 전기 도학자들의 리(理) 인식과 사회실천론 — 정암·퇴계·율곡의 역사의식과 실천담론의 계승,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율곡학연구』 44	(사)율곡연구원

총 9편의 논문에서 우선 율곡을 주요 주제로 담고 있는 논문이 7편으로서 율곡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주목할 것은 율곡의 「순언」연구가 2편으로 유일하게 중복된 텍스트라는 것이다. 물론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기타 연구에서도 「순언」이 언급됐기에 이는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도덕경』의 편집본인 「순언」이 당시 정치와 경세에 해법으로 어떻게 풀이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순언」에 관한 논문 하나를 아래 개별 리뷰 파트에서 분석하였다.

5) 기타

여러 다양한 주제로 엮은 기타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보였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철웅	「변계량의 사상과 도교인식」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2	엄연석	「장현광의 태극설과 경위설의 문화 다원론적재조명—『여헌선생성리설』의 이론적 해명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함영대	「栗溪 鄭琦의 학술정신—시대인식과 학술저작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7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강학활동과 蘆沙學派의확대」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5	최다은	「퇴계 매화시에 나타난 소박미담론」	『동양예술』 50	한국동양예술학회
6	서근식	「퇴계이황의 『啓蒙傳疑』에서 『周易參同契』의 의미연구」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7	한재훈	「조선성리학에서 여헌학파의 학파적 좌표」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8	전수연 김민재 김용재	「조선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검토(6)」	『양명학연구』 60	한국양명학회
9	정성희	「근대 호서산림(湖西山林)의 학문적 위기 대응방식과 사상적 배경」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10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 사상고찰— 喪禮를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11	허태용	「'성리학대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유교학회
12	김기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시에 나타난 도학사상 연구」	『儒學研究』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박학래	「기우만(奇宇萬) 문인들의 강학 활동과 노사 학맥(蘆沙學脈)의 지속」	『儒學研究』 5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4	윤천근	「율곡의 『순언』에 대한 고찰 — 16세기 조선 시대 문화의 전개와 연관하여」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총 14편의 논문이 보이는데, 다양한 인물들이 논의된 가운데 의병장 기우만에 대한 연구가 두편 보인다는 것에서 구한말 유학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헌 장현광에 대한 연구도 다수 보인다는 점, 그리고 퇴계의 시를 분석한 작품도 보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다양한 주제에 대한 탐구는 연구자들에게 숙제

로 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논평자는 특히 구한말 유학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에 간재 전우의 예학을 개별리뷰를 통해 고찰해 보았다.

4. 주요 분석 논문 및 비평

① 김희 「율곡 「순언」의 덕치론(德治論)과 군주 계몽의 정치성 연구」

비록 동일한 연구자에게서 2편이 나오긴 했지만 『도덕경』을 재편집한 율곡의 「순언」 연구가 올해 3편이나 행해졌다는 점은 나름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본다. 이 논문의 필자는 「순언」에 담긴 율곡의 정치적 함의를 담고자 여러 편의 논문을 써왔음을 이번 연구자료 정리로 알 수 있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연 「순언」 연구가 텍스트에 알맞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논의해볼 가치가 있어 이에 대한 평을 남기고자 한다.

필자는 '1 율곡의 사실적 경험성과 「순언」」 저술의 정치성'을 통해 당시 율곡이 『도덕경』을 재편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율곡에게 있어 「순언」의 저술은 도덕경에 대한 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나 일회적인 형태의 유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진다.'라는 김학래의 언급을 인용하여 「순언」에 담긴 율곡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는 도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정(仁政)을 강조하는 율곡은 현실정치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순언」을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율곡이 붕당의 대립을 기존의 성리학적 해법으로는 분명 한계가 느꼈을 것이라 예상한다. 『도덕경』에 대한 율곡의 해석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율곡은 무위(無爲)가 붕당의 정치적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본다. 때문에 『도덕경』에서 강조하는 '嗇'이 군신(君臣)이 서로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한다.

필자는 본문2 '수양주체의 정치적 전화성(轉化性)'에서 조선 중기

사회의 혼란한 정치 상황은 이해관계로 왜곡된 이념의 대립성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사익을 제어하고 자기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도덕경의 '嗇'이 군주의 수양론에 유효하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전통 성리학이 지향하는 천명에 대한 인식은 『도덕경』의 무위에서도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군주가 자기실현을 이룰 수 있다고 정리한다.

위 논문은 단순히 유학자가 도가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를 넘어 율곡이 위정자로서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순언」을 편집했는가를 설명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논평자는 필자가 「순언」에 대한 일관된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있음을 기존 연구 그리고 같은 해 다른 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필자가 「순언」을 군주론적 시각에 입각해 연구목적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만 그럼에도 해결할 문제가 몇 가지 보인다. 우선 필자의 문제의식이 과연 합리적으로 논증되었는가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이 논문은 「순언」 자체에 대한 텍스트 분석이 전무하다. 「순언」이라는 텍스트 즉 『도덕경』을 재편집한 이 글에 맞춰진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선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순언」에 대한 율곡과 당시 문인들의 직접적 언급을 인용해 이 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였어야 한다. 두 번째 「순언」에서 보여지는 편집과정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편집이라는 행위에 간접적으로 새겨진 율곡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다. 적어도 이 과정이 잇어야만 필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순언」에 대한 율곡의 문제의식을 독자들도 확인하고 공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이에 없다.

때문에 「순언」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하려면 필자가 참고한 선행연구와 필자의 기존 연구를 반드시 검토해야만 가능했다.

다만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필자의 불친절한 글쓰기는 여전히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므로 율곡이 제창한 경장을 통한 치세의 변통론은 쇠난의 정국을 타개해 나아가기 위한 군주의 정치적 활동성과 역량을 당위의 목적론이 기능하는 필연의 세계관 속에서 강화하는 내용이 된다.

필자는 율곡의 「순언」 집필목적을 설명하면서 당시 정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음을 위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과 방법론이 무엇이든간에 철학은 어려운 학문이 맞으며, 철학적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보기 쉬운 글이 아님은 모두가 인정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문은 연구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글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지나치게 가독성 없는 문장은 필자로서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장이 논문 전체에 일관되게 이어지기에 가뜩이나 선행연구와 원전 분석이 없는 상태라서 문장만으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 독자에게는 좀 가혹하다고 느껴진다.

논평자로서 경세론에서 「순언」은 유일하게 중복 연구된 텍스트였고, 그런 점에서 반드시 다뤘어야 했는데, 두 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글이 서술됐기 때문에 과연 내용을 다룰 수 있을지 고민이었다. 하지만 이 글을 평가한 이유는 성리학을 떠나 연구자가 본인의 논문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를 반면교사로

서 보여줬기 때문이다. 점차 성리학 논문은 학회에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이번 연구분석 계기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런 점에서 연구자들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김승영, 「이황의 '미발수행법'을 통한 인간욕망의 절제와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안 모색」

필자는 현대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갈등의 원인으로 인간 욕망의 조절 문제를 꼽았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내면으로 치환시킨 필자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미발(未發)시에 관한 퇴계의 언급들을 기미용사—계신공구—거경의 구도로 분석했다.

먼저 남언경과 논의한 퇴계의 언급들을 통해 미발시 기가 용사(用事)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인간이 순수한 리를 체인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논증했다. 중요한 것은 기가 용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기와 리의 괴리가 지나치게 심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어떻게 퇴계가 해결해갔는지이다. 필자는 이에 퇴계가 말하는 용사하지 않는 기란 심기(心氣)라고 지목하며 미발시에 마음이 고요하므로 리가 오롯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뒤에 주로 논의될 리의 체인에 관한 복선으로 기능한다.

이어서 필자는 마음의 병을 퇴계가 리의 체인 부족이라고 진찰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계신공구를 통해 마음의 병을 어떻게 다스릴지 다루고 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일무적과 계신공구를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정신을 항상 또렷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필자의 분석이다. 그리고 이러한 또렷한 정신으로 시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욕망도 적절히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미발시 마음이 또렷이 깨어있어야 리를 체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 과정을 감정이 싹트기 전 그리고 보거나 듣지 않을 때 항상 정신이 깨어있기 때문에 삶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리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체험으로 이통의 '융석', '쇄락'으로 차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경을 통한 욕망조절을 논했다. 필자는 경(敬)이 동정을 관통하고 있음을 근거로 미발시 또렷이 깨어있는 정신을 바탕으로 이발시 대상사물을 응접할 때도 알맞게 대할 수 있어 욕망이 조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미발에 대한 퇴계의 언급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에 대한 충분한 인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의 성패는 크게 미발시의 수양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는지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욕망의 조절에 얼마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분석했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우선 미발에 대한 필자가 언급한 '또렷한 정신'과 표현은 분명 사물을 접하지 않은 상태라는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 미발에 관한 언설들을 나름 합리적으로 풀이한 증거라고 본다. 또 미발을 기미용사, 계신공구, 리의 체인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필자가 개념을 충실하게 복기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미용사를 심기로 풀이하는 부분을 통해 독자들도 이해가능한 수준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미발공부를 인식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만 그럼에도 논문이 미발공부를 완전히 설득력있게 말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미발은 일반 독자에게는 어렵고, 또 논문도 그러한 난해함을 완벽히 풀어주지는 못했다. 이는 현대적인 해석과 원전에 대한 충실함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필자는 미발을

'감정이 싹트기 전', '의식의 흐름을 포착하기 전'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했다. 우선 전자는 적연부동, 혹은 미발을 말 그래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이미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구하기를 생각하면 또 문득 이는 생각함이니, 이미 생각하면 곧 이미 발한 것이다.'〔蘇季明問喜怒哀樂未發之前, 求中可否? 曰不可. 旣思於喜怒哀樂未發之前求之, 又却是思也, 旣思卽是已發〕에 입각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과 필자가 제시한 또렷한 정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는 것이다. 분명 필자 스스로는 이미 미발을 이해했을 지는 몰라도 이 이해과정이 충분히 논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발의 대한 오해는 계속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리의 체인에 대해서도 계속 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리를 체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그것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현대적으로 합당하게 설명할 지를 필자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가 제목에서부터 내걸었던 욕망의 조절이 필자의 미발수행을 통해 얼마나 해결됐냐가 의문이다. 욕망의 조절은 현대인들도 겪고 있는 문제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통해 분명 필자는 미발공부가 현대에도 유의미함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다만 내용의 대부분이 미발공부에 대한 일반적 언급이고 이것이 실제로 사람이 겪는 참고 싶어도 참지 못하는 욕망의 발로에 얼마나 직결한지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다. 단순히 리를 체인해서 욕망이 조절이 됐다면 이는 지나치게 지성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으로 욕망을 접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주지주의가 그다지 크게 설득력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욕망을 너무 쉽게 봤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③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사상 고찰 ―상례를 중심으로―」

필자는 간재 전우의 예학 사상 연구가 초기단계임을 먼저 전제하고 있다. 이에 간재 예학의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예학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간재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검토하고 여기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효종에 대한 복제(服制)문제에서 불거진 장자복제(長子服制),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 대한 상례를 논의한 부재위모상(父在爲母喪), 그리고 훼손된 무덤을 보수하는 복토(復土)과정에서의 복제에 관해 간재의 견해와 그 논거를 분석함으로써 간재 사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했다.

우선 장자복제의 경우 필자는 예송논쟁에서 정현의 '적처소생(嫡妻所生)'에 대한 가공언의 소(疏)가 각기 상이하게 해석됨을 소개했다. 윤휴와 허목은 소(疏)에서 언급된 '적처의 소생이면 모두 적자라 이름한다'를 바탕으로 효종에 대한 복제로 장자삼년복을 주장했음을 보인다. 이어 우암은 가공언의 소(疏)를 근거로 종통을 계승하더라도 장자삼년복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중 서자가 후사를 잇는 경우 체이부정(體而不正)으로 재최기년복이 옳다고 반론한 부분을 소개했다. 또 간재는 적장자의 아우가 서자이므로 참최복을 입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여 우암의 주장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필자는 간재의 견해는 적적상승의 종법 원리가 삼대까지 이어진다는 우암의 의견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음을 논증하여 간재가 율곡학파의 의견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어 필자는 아버지가 생존하실 적 어머니의 상례에 대해 간재는 매산 홍직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논증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최복을 입다가 15개월에 담제를 하고 이후 심상(心喪)으로 삼년상을 마침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돌아가

신지 27개월이 될 때 우암과 도암은 간략히 곡하고 다음 날 길복으로 갈아입는다고 주장하지만, 간재는 이미 담복을 벗었으니 상복을 입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간재의 주장은 매산이 우암의 주장을 도암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바탕하고 있음을 필자는 논증했다.

마지막으로 가례의절과 고례•주자의 예설이 가장 차이나는 부분인 개장복(改葬服)을 논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묘가 훼손되어 관이 드러날 때 우암은 복토 후 상복을 벗는다고 주장했는데, 간재는 복토 후에도 3개월간 시마복을 입는다는 매산의 의견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간재는 우암이 시마복을 바로 벗는다고 주장한 적도 있고, 3개월간 입는다고 주장한적도 있다며 후자가 우암의 정론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간재가 우암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밀한 부분에서는 특히 매산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매산의 주장에 유일하게 간재가 비판한 부분이 승중(承重)한 서자의 차자가 친조모에 대해 어떤 복제를 택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다. 매산은 친조모에 대해 기년복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간재는 친조모도 결국 서조모이므로 심상만 해야 한다며 매산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를 통해서 간재가 매산의 의견을 강력히 수용하지만 그럼에도 적서(嫡庶)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에 이 문제는 반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재의 매산 예설의 수용은 적서의 명확한 구분에 기반한 것이므로 간재 예설의 기준점은 적서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위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독성과 명확함이다. 구한말 가장 중요한 유학자로 손꼽히는 간재가 실천적 영역인 예학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논증했다. 간재의 주장이 기존 주장의 어떤 부분을 수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취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예학을 논평자와 같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분명 유학자의 사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피려면 결국 실제 사례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예학은 분명 연구자들이라면 되짚어볼 영역이라 생각한다. 그 점에서 위 연구는 이미 확실한 우위를 보였다. 아울러 간재의 견해가 일관되게 율곡학파의 주장을 계승하고 적서의 엄격한 구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 부분에서 입증했기 때문에 간재 예학의 특징도 명확히 잡을 수 있었다.

④ 김성실, 「퇴계의 人心道心理解」

우선 이 논문은 이황의 사단칠정론을 다룬 선행연구는 많이 있지만, 그의 인심도심설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이황의 인심도심설의 의미를 밝히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논문은 선행연구와는 크게 다르며, 급진적이기까지 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통념과 달리 이황은 호발설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인심과 도심의 구분 자체도 부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이르는 출발점은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고 양자를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 도심을 목적론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윤리적·실천적 함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아마도 저자는 인심과 도심의 구분이 곧 인간의 마음을 이원화하고 분열시키는 함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의 연

장선에서, 저자에 따르면 퇴계 역시 결코 인심과 도심을 구분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구분을 지향하려고 했던 것이 퇴계의 실제 목적이었다. 이에 호응하여, 퇴계는 '리발이기수지'와 '기발이리승지'의 대비 구도 또한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리발이기수지'만을 주장했으며, '리발이기수지'에 대응하는 도심의 존재만을 인정하였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무수히 많은 선행연구들이 공유하는 기본적인 관점과 틀을 부정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소하다. 이에 관해서는 저자의 주장을 직접 제시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

> 여기서 퇴계와 고봉은 '사단이 순선하고 성에서 발한다'는 명제에는 서로 간에 異見이 없다. 그러나 칠정에 있어서는 고봉은 선악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았고, 퇴계는 性發爲情이기에 情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그 情이 '理에서 발하지 않고 氣에서 발했다〔氣發而理乘之〕'는 '착각'을 하게 될 때 정이 '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런 순간조차도 '情' 자체는 선할 뿐이며 단지 자신의 '착각'으로 정이 악하다고 느끼는 것 뿐이다.[1]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논쟁은 조선 성리학 관련 주제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그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반적인 이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장에 일종의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소한, 이황이 기대승에 비해서 사단과 칠

1 원 논문 82쪽

정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이기론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러한 구분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확립하려 하였음은 명백하고, 그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전거 또한 적지 않다는 그 동안의 인식이 정말 크게 잘못되었던 것인가 하는 불안감마저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저자가 이처럼 새롭고 과감한 주장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 주장을 제시한 방식에 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부분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이와 같이 중요한 주장에 대해서 자세한 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에 대한 내용은 각주로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 이황의 주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논문이 주장하는 전체 논지의 성패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이다. 사실 이 주장만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도 이황과 사단칠정론 연구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자가 이에 대한 논증을 너무 소략하게 제시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만 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자가 소략하게나마 제시한 전거와 그에 관련된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은 가능하다. 우선 다음 내용이 그 전거이다.

> "如四端之拔 理發而氣隨之 自純善無惡 必理發未遂 而掩於氣 然後流爲不善 七者之情 氣發而理乘之 亦無有不善 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

위 글은 「성학십도」 제6도인 심통성정도에 실린 내용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용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저자는 이로부터 "퇴계가

오직 理發만을 주장하였으며, 氣發은 실재〔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생각 속의 영역에 있는 '착각'"이라는 주장을 도출한다. 저자는 그 핵심적인 근거를 '만약 기가 발했는데 중절하지 않아서 그 리를 멸하면, 제멋대로 하여 악이 된다〔若氣發不中 而滅其理 則放而爲惡也〕'는 표현에서 찾는다. 여기서 '만약 기가 발했는데 중절하지 않아서...'에서의 가정형의 표현이 실제의 사실이 아닌 착각임을 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과 현실과 다르게 착각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또 문장의 표현으로 보아도 '기가 발하여 중절하지 않아서 그 리를 멸한다고 착각한다면'이라는 식의 표현은 상당히 어색하다. 결국 저자가 주장하는 '착각'의 의미를 주어진 문장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칠정'이 '기발이리승지'라는 표현은 '若氣發不中' 앞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착각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더구나, 저자의 이해방식을 받아들인다면 '기발이리승지'는 애초에 착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선함이 없다'는 술어를 붙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전거와 해석만으로는 저자의 주장에 충분한 설득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물론 저자가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더 정리된 주장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이 논문에서도 이미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미뤄두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이 논문의 전체 논의가 바로 이 주장에 따라 추론되고 확장된 해석들이기 때문이다. 추후의 연구를 통해 더 보완된 논의를 기대한다.

⑤ 최영진, 조첨첨, 「太極圖說」에 대한 南塘의 理氣論的 해석체계
-『經義記聞錄』「太極圖」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남당 한원진이 자신의 저술인 『경의기문록』 가운데 「태극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글의 초두에서 이 논문이 한원진의 성리설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의 '태극도설 해석'에 주안점을 둔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호락논쟁과도 연관되는 한원진 이기심성론의 특성이 그 해석에 반영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원진의 학설과 호락논쟁, 그리고 태극도설의 해석사라는 측면들이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논문의 구체적인 전개는 「태극도설」 내용 가운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쟁점을 한원진이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는지를 보이고, 그러한 해석의 함의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주자 성리학의 근본적인 난제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리(理)의 동정(動靜)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한원진은 '리의 관점'과 '기의 관점', 그리고 '원두의 관점'과 '유행의 관점'이라는 측면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태극이 음양을 생(生)한다는 표현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한원진은 생(生)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한 혼동을 초래한다고 본 송시열과 달리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태극과 음양, 즉 리와 기의 구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유에서이다. 저자는 이러한 한원진의 입장이 '리선기후'와 '이기이물'의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태도의 반영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태극의 보편성과 특수성, 본연지성과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그의 성삼층설에도 관계되는 이기론의 세 가지 공식을 도

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불리'(기질지성), '부잡'(초형기의 본연지성), 그리고 '병포불리부잡'(인기질의 본연지성)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문이 조선 후기 논쟁사를 다루는 접근 방식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유학 경전을 중심으로 한 중요 문헌에 대한 해석의 과정과 이기론과 같은 이론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불가결한 측면으로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조선 성리학사에서는 성리학 이론에서 비롯된 논쟁 과정이 그 이기론 체계의 조정과 정교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러한 논쟁의 이슈는 이기론적 관점과 경학 해석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때, 우리는 조선 성리학의 논쟁 및 거기서 제출된 주장의 의미와 독창성을 더 풍부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은 태극도설의 해석사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그러한 상관관계를 풍부하면서도 심도 있게 풀어내고 있다. 태극도설이라는 문헌 해석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성리학 이기론의 근본적인 특징, 그리고 한원진의 성삼층설 및 그 논쟁점 등이 여러 각도에서 논리적으로 잘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태극도설의 해석사라는 더 넓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원진의 학설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후 조선 후기 논쟁사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참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⑥ 최정연, 「성호학은 주자학의 미분화적 사고를 탈피했는가
—리 개념의 분화 현상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성호 이익의 학설에서 드러나는 리의 분화가 함의하는 바와 그것을 통해 이익이 추구한 목적을 규명하였다. 저자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성호학의 리의 분화가 해석되고 있는 두 양상을 제시한다. 일단의 학자들은 그 리의 분화가 물리와 도리를 구분한 것으로 도덕과 구분되는 사물탐구, 즉 과학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성리학의 도덕주의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여 근대의 서양 지식을 포섭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리의 분화는 곧 태극과 개별 현상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이일분수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몇몇 학자들은 이익이 반드시 유럽의 과학지식을 추구해야만 할 강한 이유가 없었으며 굳이 주자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지식들을 추구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반론한다. 이러한 관점을 따를 경우 성호학이 이일분수적 세계관을 부정했다는 해석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이견들 사이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저자가 검토하는 것은 '리의 분화'라고 하는 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저자는 이익 학설에서 리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물리와 도리의 분리와 완전히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자연에서 실현되는 리'와 '심에서 실현되는 리'로 구분하는 것이 이익의 실제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분이 주자학적 세계관의 거부를 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 저자는 이익이 여전히 하나의 태극을 중심에 두는 통일성의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분화된 리는 여전히 상호연관

성을 유지하고 있게 되며, 근대 과학의 수용이라는 필요는 이익에게서 나타난 리의 분화 이면의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서 저자가 제시하는 하나의 가설은 이익이 퇴계의 사칠설을 옹호하기 위한 이론 체계를 건립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가졌다는 것이다. '자연에서 실현되는 리'와 '심에서 실현되는 리'라고 하는 구분되는 측면은 각각 기발과 리발, 즉 칠정과 사단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조선 후기 사상사라는 난맥상을 잘 풀어내기 위해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논지를 잘 전개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서 나타난 사상적 변동의 양상은 많은 경우에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형태로 여러 요인들이 얽힌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점은 한편으로는 퇴계학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격렬한 토론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학자로 받아들여지면서 서학에도 큰 관심을 가진 이익과 같은 학자의 경우에는 한층 더 복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이견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전거 및 자신의 해석 역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익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사상사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5. 나가는 말

이상으로, 2021년 한국 성리학 관련 연구 전체 동향 및 주요논문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전체 현황을 요약해보면, 일단 인물별 검토에서는 큰 변화가 발견되었다. 연구성과분석이 시작된 이래,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던 이황에 관한 논문이 2020년에는 6편에 불과하여 크게 줄었으며 이이와 이황을 합한 비중 또한 전체 조사 논문의 약 26%로 많이 감소했었다. 이에 비해서 2021년에는 다시 이황 연구의 수가 증가하여 이이와 동수를 이루었는데, 이와 더불어 이황과 이이 연구의 전체 비중 또한 2020년(26%)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약 32%로 나타났다. 2020년 보고서에는 이황과 이이를 중심에 둔 연구경향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판단하였으나 2021년에는 다소 반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조사의 한 특징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5·6편 정도로 안정적인 연구 경향을 형성해왔던 한원진 관련 연구가 2편으로 줄었고, 이와 더불어 호락논쟁에 관한 논문도 4편으로 전년도 11편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는 점이다. 반면 간재 전우에 관한 연구가 이황·이이 다음으로 많은 7편이었고, 심설논쟁에 관한 연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편이 발표되어서 상대적으로 연구 빈도가 유지 및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에 추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주제별 검토에서는 이기·심성론에 대한 논문의 비중(51편, 약 57%)이 매우 높았다. 이는 2019년(37%)이나 2020년(43%)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포함된 수양론 및 교육론(16편, 약 18%)의 비중은 작년과 동일했다. 경세론에 관한 논문은 9편이며 그 비중은 10%로 2020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논문들이 14편으로 대략 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의 23편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동향을 보면 수양론 및 경세론은 동일한 비중을 유지하였지만, 경세론과 기타 범주 논문들은 상당히 줄었고, 이기심성론 관련 연구의 개수와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물별로는 이황·이이에 편중되고, 주제별로는 이기심성론, 사단칠정·인심도심에 편중된 경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경향이 다소 반전되어 증가한 양상을 보인 것이 한 특징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예전에 비해서는 편중이 완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더 장기적인 시야의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선 후기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폭 넓은 방법론이 적용되면서 우수한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러한 성과의 축적을 통해서 조선 성리학사 전반을 통괄하 수 있는 시야과 관점이 확립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7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21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 26개, 유교학 4개, 인문학 4개, 중국어와 문학 1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양명학〉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4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인물별(주제별) 분류에 따른 해당 논문을 소개하고, 이어서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을 했다. 편의상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정제두(강화학파) 관련 논문이고, 둘째는 박은식 관련 논문이고, 셋째는 양명학과 성리학 관련 논문이다.

2. 인물별(주제별) 분류

1) 정제두(강화학파) 관련 논문(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명월	鄭齊斗와 鄒守益의 '德福觀'을 중심으로 살펴본 韓.中 陽明學의 정체성과 종교성 탐색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	천병돈	초간본『李參奉集』에 나타난 李匡呂 학술사상과 실학정신(1)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3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주체 인식과 사회적 구현의 문제—정인보의 '감통(感通)'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4	진성수	가족서사로 본 담원 정인보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5	이남옥	하곡학파의 지역적 전개와 사상사적 의미	양명학	한국양명학회
6	김윤경	하곡학파의 「原論」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사회비판론	孔子學	한국공자학회

2021년도 한국 양명학 관련 논문 14편중에서 정제두(강화학파) 논문이 6편이다. 이는 2020년도 한국 양명학 관련 논문 전체 13편중에서 6편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히 정제두(강화학파) 관련 연구가 주축을 이룬다. 한국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학파의 위상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월의 「鄭齊斗와 鄒守益의 '德福觀'을 중심으로 살펴본 韓·中 陽明學의 정체성과 종교성 탐색」은 황종희가 『明儒學案』에서 양명학의 적전으로 특필한 東廓 추수익(1491~1562)과 霞谷 정제두(1649~1739)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명학의 정체성과 종교성을 탐색한 논문이다.

김명월은 이렇게 정리한다. "추수익과 정제두는 모두 좌파의 '任情

縱欲'을 반대하면서, 인욕을 제거하는 공부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꿈과 두 학자의 易說을 통해 나타난 것이며, 이는 신비주의와 종교성도 드러내고 있다."

김명월이 말하는 종교성은 이렇다. "양자의 덕복관은 天則, 天命, 자연규율의 불가항성을 구현하는데, 이는 양지의 절대성, 주재성을 강조함으로써 심학의 현실에서의 실천적 측면을 촉진한 것이다. 두 학자는 양지가 '상제강충'임을 긍정하였으며, 『서경』의 상제관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두 학자는 모두 '상제강충', '양지현성'을 믿고 있었는데, 이는 '초월적인 有'에 치중하는 것이다. 양자의 덕복일치라는 덕복관은 바로 양지의 능동성을 강조하며, 그 최종목표는 공부를 통해 마음의 지극함(帝의 좌우 반열에 드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천병돈은 하곡학파 관련 논문을 매년 1·2편을 발표해오고 있다. 최근 몇 년은 새로 발굴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곡학파 전승 내력을 밝히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본 「초간본 『李參奉集』에 나타난 李匡呂 학술사상과 실학정신(1)」 논문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글이다. 그는 월암 이광려의 학술사상을 공부론을 중심으로 실학과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인간은 實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다. 이 實心은 活物로서 형이상의 실체다. 그러나 實心은 形氣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욕망에 가려진다. 욕망에 가려진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寡欲해야 한다. 寡欲은 공부의 한 방법이다. 寡欲은 욕망의 제거가 아니라 조절이다. 그러므로 공부는 기질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월암은 '학문'을 통해 욕망에 얽매이는 기질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월암이 제시한 공부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욕망의 조절, 성현에 대한 믿음, 四有所, 五辟, 謹獨, 無自欺등이다. '四有'란 '화냄〔忿懥〕、두

려움〔恐懼〕、좋아라는 일〔好樂〕、근심〔憂患〕'이다. '五辟'이란 '친애해서 치우침〔親愛而辟〕'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여 치우침〔賤惡而辟〕' '두려워하고 공경하여치우침〔畏敬而辟〕' '불쌍하게 여김으로 치우침〔哀矜而辟〕' '오만하고 게으름으로 치우침〔敖惰而辟〕'을 말한다. '謹獨'은 愼獨의 의미인데, 월암은 '근독' 의 핵심을 '無自欺'에 두었다. 월암이 제시한 학문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성인과 같은 의지, 정좌, 절제, 엄숙, 공손, 근신, 경외 등이다. '성인의 의지'란 '인욕의 절제' '옳은 것의 실천' '실심의 실천' 등이다. '정좌'란 사물과 氣에 동요되기 쉬운 心을 안정시켜 사물과 氣에 동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월암의 공부론은 실생활 속에서 배고플 때 밥을 먹은 것처럼 實心을 다하는 것이다."

박태옥과 진성수의 논문은 위당 정인보를 다루고 있다. 정인보는 잘 알려진 것처럼 강화양명학파의 존재와 그 의의를 한국 사회에 강렬하게 전해준 문화 거인이다.

박태옥은 「근대 유교지식인의 주체 인식과 사회적 구현의 문제—정인보의 '감통'론을 중심으로」에서 정인보의 감통론을 다룬다. "정인보는 본심인 양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감통이 필요하며, 감통을 통해 개인의 주체성은 물론이고 나아가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고 암울한 식민지배 아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실천철학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정인보 철학의 핵심을 감통론으로 보았고, 이를 구명하기 위해 근대 이후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주체의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인보가 강조한 주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가 곧 감통의 주체로서 실심과 얼 개념을 근거로 하여 양지를 극진히 실천하는 방법을 통해 도덕덕 주체이자 감통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임을 고찰하였다. 이로써 정인보의 철학체계는 간이직절

한 양명학의 방법론을 구사하지만, 그것은 이론의 세계에 사장되지 않고 '만물일체의 인'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유학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주었다. 양지를 실현하는 것은 주체의 통렬한 자각과 성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사물과 사람이 한 몸이라는 양명학적 사유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의 타자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인보가 강조한 '감통'론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진성수는 「가족서사로 본 담원 정인보」 논문에서 감통과 실천, 언행일치와 진실함, 민족정신과 애국심,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강조한 담원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되었는지 6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가학을 계승한 선비로서의 담원은 가문의 유풍을 계승하여 대의를 귀중히 여겼다. 담원은 조부의 주선으로 난곡 겸곡 단재 등에게 배울 수 있었다. 둘째, 효심이 깊은 아들로서의 담원은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자모사에 담긴 양모와 생모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장기간 출장 중에도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며 틈틈이 보낸 안부 편지와 각종 음식 등은 그의 효심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자상한 남편으로서의 담원은 먼저 세상을 떠난 성씨 부인을 애도하며 지은 시조 첫 정 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로 고생하는 조씨 부인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 2녀 경완에게 어머니를 당부하는 편지, 3녀 양완이 기억하는 부모님에 대한 회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넷째, 다정한 아버지로서의 담원은 '큰 학자였지만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정이 많은 가장'이었다. 중학생이던 4남 양모의 뺨에 얼굴을 비비며 '따가우냐?' 묻고 '업어보자'라고 말하거나 어린 양완의 농담을 익살로 받아주고, 출가한 딸인 경완의 생일까지도 세심하게 챙기

는 친정아버지였다. 다섯째, 자녀의 눈높이 교육자로서의 담원은 '시는 꼭 원전으로 읽어야 하며 무엇을 읽든 자기 주관이 중요하다'고 가르친 일, 책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강조한 일, 자녀들의 말씨 하나도 세심하게 살피며 무엇보다 '노력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친 일 등을 통해 잘 드러난다. 여섯째, 국학을 강조한 양명학자로서의 담원은 조국독립을 위해 결심한 뒤 아호를 지은 일, 일본어로만 강의해야 하는 연희전문을 떠난 일,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겨레의 '얼'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계몽에 투신한 일, 해방 후 4대 국경절 노래를 작사한 일, 국학대학 개교 및 육당이 변절했을 때의 일화 등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남옥은 「하곡학파의 지역적 전개와 사상사적 의미」 논문에서 하곡학파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사학적 훈련을 거친 연구자답게 이남옥은 하곡학파 연구의 1차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다. "하곡학파는 하곡 정제두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한 일군의 학자를 말한다. 그의 학문과 사상을 후대까지 계승한 영일정씨 정제두 가계, 전주이씨 덕천군파 이경직 가문의 이광명 가계·이광사 가계·이광신 가계, 평산신씨 신대우 가계를 중심으로 가계 기록인 족보와 가승을 비롯해 개인 기록인 묘도문자와 행장 등을 분석한 결과 18~19세기 하곡학파는 대체로 강화에서 경기와 충청 지역으로 전개되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일정씨 정제두 가계는 강화와 통진을 주요 거점으로 하면서 천안 등지로 확산되어 갔고, 전주이씨 덕천군파 이경직 가문의 이광신 가계도 충주·은진·노성 등 충청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주이씨 덕천군파 이경직 가문의 이광명 가계는 강화에 세거하였고, 평산신씨 신대우 가계는 광주 이거 후 세거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전개 과정에서 강화·광주·진

천은 하곡학파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강화에는 정제두의 묘와 거처를 비롯해 하곡학파 관련 유적이 있어 후대까지 하곡학의 계승이 이루어졌으며, 광주에서는 신작과 정약용의 학술교류를 통해 하곡학과 다산학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진천에서는 소론계 인물 다수가 교류하면서 하곡학이 다시 역사 위로 부상했다. 그 결과 정인보는 조선학운동에서 하곡학을 조선 역사의 중요한 한 갈래로 지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윤경은 하곡 정제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중견학자로 정제두와 조선 성리학계, 하곡학파 분화 발전 양상 등 강화양명학파 연구 성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본 「하곡학파의 「原論」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사회비판론」 논문도 그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김윤경은 본 논문에서 이충익의 「假說」과 「君子之過說」, 이건창의 「原論」, 이건방의 「原論」과 「屬原論」을 통하여 세 명의 강화하곡학파 인물의 역사인식과 사회비판론을 분석한다. "이들은 모두 公論이 중시되는 정치원리와 당쟁이 격화되는 현실문제가 직결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공론에 의리와 명분을 제공하는 道學과 도의의 진실성 여부가 정치와 사회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된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들의 「원론」은 구체적인 사건을 기술하여 시비를 가리는 당론서와 달리, 객관적 서술을 바탕으로 거짓 도학이 형성한 공론과 그 폐단을 문제삼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거짓 도학의 실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송시열과 노론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근거로 진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학문과 정치, 사회 전반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2) 박은식 관련 논문(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정심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2	김우형	박은식 유교구신론의 철학적 기획:구학(舊學)에서 신학(新學)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3	김우형	백암 박은식 양명학론의 독창성과 특색—본령(本領)학문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공자학회	孔子學

2021년도 한국 양명학 관련 논문 14편중 박은식 논문이 3편 발표되었다. 박정심은 박은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로 박은식 연구 전문가이다. 김우형은 주자 인식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로 2편의 본 논문은 김우형이 속한 사업단의 연구 성과물로 추정된다.

박정심은 박은식을 양명학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늘 한다. 박은식은 유교의 개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명학의 의의를 긍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의 양명학 연구자들은 박은식을 자연스럽게 양명학자로 규정한다. 사실 박정심이 이해하는 양명학과 한국의 양명학 전공자들이 규정하는 양명학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박정심은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박은식의 사상적 전환은 근대적 격변에 직면한 유학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양지적 근대주체는 서구의 계몽이성을 마주하고 있었으며, 이성과 다른 관점에서 근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금 여기 나’를 성찰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박은식은 양명학의 사상

적 특징을 근대적 맥락에서 통찰하고 더 나아가 유럽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매몰당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그것은 하등자나 무문자, 혹은 공정한 감찰관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모두 치양지를 실현한 참된 인간주체인 '진아'였다. 진아는 근대적 격변과 망국의 위기에 직면하여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물론 인간다운 삶을 모색하였다. 박은식도 신학의 효용성과 과학기술의 편리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열강의 국가적 힘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어, 제국의 통치와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분을 비판하였다. 과학적 방법으로 자연을 탐구하고 활용하여야만 부국강병과 자본주의의 발달을 도모하여 생리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이 종국에는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전락했다면, 과연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에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것 또한 당연하다. 견문지에 대한 본연지적 성찰과 과학자에게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한 것이 박은식의 양명학 사상의 큰 특징이다."

김우형의 「박은식 유교구신론의 철학적 기획: 舊學에서 新學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와 「백암 박은식 양명학론의 독창성과 특색—本領 학문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두 논문은 박은식 사상에서 강조점을 달리한 논문이다. 첫 번째 논문은 유교구신론의 측면에, 두 번째 논문은 양명학 측면에 착안한 논문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 김우형은 이렇게 말한다. "1905년 무렵부터 박은식은 전면적 개화의 입장을 취하면서 서양의 신학문을 적극 수용하되, 전통적 구학은 개량해서 과학과 철학이라는 신학문의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즉,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여 발전시키되, 도덕적 맥락에서 명확하고 쉬운 양명학의 본령공부를 도입

함으로써 리학을 철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에 함축된 철학적 기획은 리학을 본령학문으로서 철학으로 전환하고 조선성리학의 철학적 요소를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철학의 일부분을 점유해야 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 국가주의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과 철학의 보편성을 강하게 지향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점에서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에 함축된 철학적 기획은 오늘날 한국철학의 형성과 방향 정립에 있어 선구적인 작업으로서 평가될 만하다."

두 번째 논문에서 김우형은 또 이렇게 말한다. "말년에 박은식은 최종해석에서 참된 주체로서의 眞我란 意와 知로 이루어진 마음이라고 말한다. 지는 견문지와 본연지로 나뉘는데, 견문지는 사물의 원리에 근거할 때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다. 본연지는 양지의 다른 이름으로서 내적이고 도덕적인 깨달음을 의미하지만, 견문지를 주재하고 사물의 근원을 비추는 작용도 한다. 따라서 양지는 본체가 아니라, 인식과 도덕을 포괄하는 주체의 근본능력〔본능〕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박은식의 주체(진아) 개념은 도덕적 인식적 성격을 띰으로써, 도덕적 본체인 양지가 과학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던 량치차오와 대조된다. 박은식 만년의 양명학론은 주희와 왕수인을 독창적으로 결합한 양태를 띠며, 조선 리학 전통에 근거해서 양명학을 자신의 독특한 철학으로 변형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3) 양명학과 성리학 관련 논문(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희영, 김민재, 김용재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 (5)–식산 이만부를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2	전수연, 김민재, 김용재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6)— 성호 이익과 순암 안정복을 중심으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3	이명심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理氣—物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4	배제성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론 연구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5	채희도	'心卽理' 명제와 율곡 '心是氣論'의 대응 —지각설과 격물설을 중심으로—	(사)율곡학회	율곡학연구

김희영, 김민재, 김용재의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 (5)-식산 이만부를 중심으로-」, 전수연, 김민재, 김용재의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6)—성호 이익과 순암 안정복을 중심으로—」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공동연구 과제의 성과물들이다.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 검토'라는 주제로 매년 꾸준한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먼저, 식산 이만부를 다룬 논문에서 서두에 본 논문의 의의를 이렇게 말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 가운데서도 이만부의 양명학 비판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었다. 이에 논자들은 이만부가 양명학을 비판했던 자료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이 글에서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7세기에서 18세기 초반까지 활동했던 이만부가 보여준 양명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그의 道統 인식을 확인하여 학문적 성향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전제

로, 이만부가 왕수인과 양명학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담긴 글을 살펴보고, 양명학 비판 양상을 확인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가? "논자들은 이만부의 양명학 비판을 양명학의 주요 개념인 심즉리 비판, 치양지 비판, 친민설 비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이상을 통해 살펴보면, 이만부는 조선의 주자학자로서 철저히 주자학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시기와 이 무렵까지 있었던 조선 성리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과 그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만으로 17—18세기에 걸쳐 진행된 조선 학계의 양명학 비판 경향을 완전히 규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이만부의 글 가운데 양명학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당시 남인 학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만부의 양명학 비판의 학파적 성향은 성호 이익과 순암 안정복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고 전편 연구를 확대한다. "이익과 안정복의 유학으로서의 양명학에 대한 인식은 이단으로 배척했던 과거 정주 성리학자들의 견해와 같다. 그러나 경세적인 영역에서는 왕수인의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른 조선의 정주 성리학자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조선후기 실학을 개척한 학자들에게서 양명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명심은 녹문 임성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임성주 관련 후속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명심은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理氣一物의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이렇게 정리한

다. “양명과 녹문의 문제의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두 학자 공히 순선무악한 본심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도덕의 주체가 본성을 넘어 본심으로 확대되는 논리적 발전을 성취한 것이다. 따라서 양명학은 정주학의 내재적 심화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고, 녹문 철학 또한 조선후기의 유학사상사가 심학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양명은 리기적 본체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리기론과 심성론의 유기적 정합성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있다. 그리하여 양명의 본의와는 달리, 후학으로 갈수록 심 본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猖狂自恣〕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녹문은 본심과 본성의 존재근거로서 담일청허지기〔도덕적 호연지기〕를 제출함으로써 도덕에 대한 형이상학적 절대성과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는 형이하자로서 악의 가능성이 있다’는 정주 성리학자들의 뿌리 깊은 인식은, 녹문 철학에 대해 후학이 계승하기 어려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심의 논문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다.

배제성은 남당 한원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한원진을 포함한 호락논쟁 관련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배제성은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론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심과 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이론적 차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도덕적 수양과 유학전통과의 관계라는 문제로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주자학과 양명학 사이의 중요한 관점 차이가 전승된 유학전통의 지식이 도덕수양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록 주자학과 양명학의 차이에 대한 기존의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연구와 다른 각도에서 조선 주자학자의 양명학 비판의

의미를 발견하여 드러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원진은 유학전통에 기반을 두어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수호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러한 공동선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사물에 대한 탐구의 중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필수적인 가치와 지식이 인간의 도덕성과 본래적으로 일치한다는 신념이 주자학의 심성론과 격물설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채희도 「心卽理' 명제와 율곡 '心是氣論'의 대응 —지각설과 격물설을 중심으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율곡의 심시기는 양명학의 심즉리 설의 대응이라는 가설이다. "조선에서 陽明學이 득세하지 못한 이유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쪽은 조선은 동아시아의 학술 지형과 무관한 자체의 철학을 개발하고 자신의 문제에 치중하느라 양명학이 틈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견해이다. 다른 쪽은 주자학이 가진 한계를 지적한 양명학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주자학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듯이 오인되는 부분을 16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주자학의 핵심과 궁극적 관심을 짚어내고, 또 한편으로 보완하여 주자학을 심화시킨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이 문제는 율곡학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과연 율곡학은 기존 주자학에서 이탈하여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운 철학을 완성하여 주자학과 다른 별도의 문호를 열고 이후 조선 철학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한 것인가? 또는 육왕학의 도전에 대하여 조선 지식인들이 성리학적 역정을 거치는 동안 온축된 힘을 바탕으로 펼친 응전이라 평가할 것인가? ……첫째로 '주희와 이이의 지각론의 동이는 무엇인가?', 둘째로 '주희의 격물 우선 주의는 양명학에 의해 어떻게 도전받는가?', 셋째로 '율곡학에서 지각과 주재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넷째로 '양

명학의 심즉리설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이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다섯째, 이이가 심시기를 주장하는 맥락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다." 채희도의 논문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송대와 명대의 유학을 보통 송명이학이라고 한다. 송명이학이라는 명칭은 청대 유학과 차별화 되는 송명대 유학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송대 이학과 명대 이학(심학)의 공통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할 것이다.

송명이학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철학사 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풍우란, 노사광, 모종삼의 입장을 꼽을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풍우란은 정명도와 정이천 형제를 그 갈림으로 본다. 정이천을 계승한 주자, 정명도를 계승한 왕양명 식이다. 노사광은 송명이학을 우주론에서 본체론으로 그리고 심성론이라는 발전과정으로 본다. 우주론은 주돈이, 장재, 소옹을 본체론은 정명도, 정이천, 주자를 심성론은 왕양명을 거론한다. 노사광은 創生天道의 사유실험을 통해 우주론보다는 본체론이, 본체론보다는 심성론이 완성된 이론체계라고 한다. 모종삼은 송명이학 발전사를 3계통으로 본다. 『대학』을 중심으로 정이천에서 주자로 이어지는 계통, 『맹자』를 중심으로 육상산에서 왕양명으로 이어지는 계통, 『주역』, 『중용』, 『논어』, 『맹자』를 중심으로 주돈이, 장재, 호굉, 유종주로 이어지는 계통이다.

이명심은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理氣一物의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송명이학의 갈래를 두 계통으로 나눈다. "유·불·도를 포괄하는 동양철학의 종지는 천인합일 내지 만물일체를 구현함에 있다. 그런데 유학사상사를 개괄해보면, '인간과 천지만물이 하나가 됨'을 체현하는 방법론에서 性命철학과 生命철학의 두 줄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주학은 성명철학에 소속되고, 양명학은 생명철학에 소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정주학적 천인합일은

리로써 합일, 명도와 양명의 만물일체는 기로써 일체를 추구한다는 내용으로 구분하려고 한다." "명도는 신체기관의 마비를 '不仁'으로 비유함으로써, 仁을 생명의 속성으로 설명한다. 또한, 명도는 "天은 生을 道로 삼는다"고 함으로써, 천도(천리)를 생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논리는 '性之生理'로써 性과 生을 합일하는 양명의 사상적 실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氣의 生意'를 중시하는 녹문 또한 명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자면, 양명과 녹문은 공히 인간의 본성을 '생명'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도덕'으로 규정하는 정주학과 변별되는 지점은 바로 '生意'의 강조에 있는 것이다."

성명철학은 정주학으로, 생명철학은 명도와 양명학으로 구분한다. 이는 풍우란의 도식을 차용한 것이다. 성명철학과 생명철학 구분 도식은 크게 보면 그럴 듯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금방 이론적 장벽을 만나게 된다. 가령 '그렇다면 성명철학은 생명철학이 아니라는 말인가?'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

이명심은 부제목으로 정한 '理氣一物의 관점을 중심으로'에서 드러나듯이 임녹문과 왕양명 심성론의 접근성을 이기일물이라는 측면에서 풀어간다. 본래 왕양명은 이기론 프레임을 애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론을 구축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가 남긴 이기론에 대한 몇 가지 자료들을 단서로 살펴보면 기와 별개로 존재하는 실체로서의 리의 독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의 조리로서, 곧 기를 통해 드러나는 리의 원리성에 주목한다. 이는 이명심이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주기론자로 평가받는 임녹문의 이기론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다만 정치한 탐구를 위해서는 임녹문이 이기일물을 주장한 이유

와 왕양명이 이기일물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명심의 논문에서는 이 점을 논하지는 않았다.

왕양명 이기론 면모를 잘 보여주는 명제인, '리는 기의 조리이고, 기는 리의 운용이다'는 명제를 양명학의 맥락에서 언급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왕양명은 우주도상에 대한 이기론적 설명은 애초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심성론 측면에서 그의 이기론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왕양명은 주자의 즉물궁리적 격물치지를 거부하고, 심즉리에 기반하여 心外無理와 心生理를 주장한다. 이것의 이기론적 설명이 바로 '리는 기의 조리이고, 기는 리의 운용이다.'

그렇다면 生意라는 측면에서 임녹문과 왕양명 심성론의 공통성을 논한 본 논문의 구도 외에 임녹문이 심을 평가한 내용을 고찰하고 그 일치성을 탐구했다면 더욱 성공적인 논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가령 본 논문에서 이명심이 말하고 있듯이 임녹문은 '理氣同實, 心性一致'를 중요한 명제로 제시한다. 애초에 이는 이간이 사용했던 명제다. 이간은 미발심체순선설을 논증하면서, 자신이 말한 未發은 大本의 未發이기 때문에 이기동실, 심성일치라고 했다. 또한 그는 공부를 통해 도달한 결과로서 이기동실과 심성일치를 주장한다고도 했다. 이는 주자가 공부를 통해 심이 이치를 따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心與理一 명제와 유사하며, 양명학의 심즉리 명제와는 거리감이 있다. 반면에 임녹문은 기일원론을 주장하면서 이기동실, 심성일치를 제시한다. 이는 왕양명이 天理明覺說을 주장하며 사단을 떠난 사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심즉리를 주장하는 입장과 친연성이 보인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주자학과 양명학의 논쟁과 대결은 송명이학의 가장 뜨거운 주제다. 달리 말하면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를 따

지는 문제는 송명이학의 핵심을 관통하는 주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에 대한 이해는 송명이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배제성은 「남당 한원진의 양명학 비판론 연구」에서 조선 유학계의 거물인 한원진의 비판을 통해 주자학과 양명학의 동이를 따져보았다. 그의 중요한 평가는 이렇다. "기존의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사회 공동의 가치를 발견하여 공유하고,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공자 이래로 확립된 유학의 공통적인 지향이다. 이러한 지향 안에는 기존의 문화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측면과, 그러한 문화를 선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측면이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주자학과 양명학은 각각 전자와 후자의 경향에 잘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제성의 이러한 이해는 양명학에 대한 이해 틀이 배경에 깔린 듯하다. 바로 양명학과 근대정신이라는 도식 말이다.

양명학은 명대 중기와 말기에 당대의 현학으로 사상계를 지배했고, 명 조정은 왕양명을 공묘에 종사하여 관학으로 인정을 했다. 한편 중국 사상계의 흐름에 늘 빠르게 반응하던 조선은 도리어 양명학을 이단으로 배척했다. 왜 양명학이 조선에서 이단으로 배척을 받게 되었는가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다. 한국적 어떤 정서, 혹은 문화유형을 고려할 때에도 역시 전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희도는 「心卽理' 명제와 율곡 '心是氣論'의 대응 —지각설과 격물설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주장을 한다. 바로 '율곡이 심시기 명제를 제시

하면서 심즉리를 주장한 양명학의 위험성을 잘 방어했기 때문이다'는 주장이다.

한말에 간재 전우가 성사심제, 성존심비, 심학성의 명제를 통해 한주 이진상의 심즉리설과 일군의 심주리 주장을 비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전우 입론의 출발이 바로 성즉리, 심시기 명제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율곡이 심즉리 명제를 대항하기 위해 심시기 명제에 주목했다는 주장은 실상 물증이 약하다. 심시기 명제가 『율곡전서』에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의 입지를 좁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율곡 본인이 양명학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실학을 고리로 율곡학과 양명학의 공통분모를 찾고자 했던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심시기 명제가 우암 송시열을 통해 율곡학파의 정설로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채희도의 문제의식을 확대하여, 우암 송시열이 심시기 명제를 주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찰한다면 심시기 명제의 출현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4. 평가와 전망

한국양명학 논문 편수는 14년도 8편, 15년도에 12편, 16년도 15편, 17년도 16편, 18년도는 19편, 19년도 18편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도 13편으로 줄었다가 21년도에는 14편으로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경향은 비단 한국 양명학 논문 편수만의 현상은 아니다. 중국 명청대 논문 편수도 줄었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 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조선유학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명학(하곡학파)의 비중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2021년도에 전체 편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른바 문제작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1편을 꼽자면 이명심의 「녹문과 양명의 心性論 비교 연구—理氣一物의 관점을 중심으로—」을 추천한다.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향후 조선 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헌의 제약이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보완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8장

한국 실학 연구

단윤진

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유교 레포트—한국 학계의 유교연구 성과 분석 및 전망』의 한 부분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실학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위의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87편으로 일반 학술지 논문 77편, 학위 논문 10편(석사2편, 박사 8편)을 포함한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논문은 조선 후기 유학자를 중심으로 한 실학 관련 논문으로 한정하려 하였으며, 가급적 그 외의 논문은 제외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1)다산 정약용(1762~1836), 2)성호 이익(1681~1763), 3)성호학파, 4)담헌 홍대용(1731~1783), 5)순암 안정복(1712~1791), 6)반계 유형원(1622~1673), 7)소남 윤동규(1695~1773), 8)영재 유득공(1748~1807), 9)성제 허전(1797~1886), 10)혜강 최한기(1803~1877) 11)덕촌 양득중(1665~1742)등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경학, 2)철학, 3)문헌학, 4)문학, 5)예학, 6)정치경제, 7)비교, 8)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았다.

먼저 2021년 한국실학 관련 논문의 총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은선	磻溪 柳馨遠의 公田制와 토지 공유(共有)사상;	석사	강원대학교
2	변은미	朝鮮時代 六書論 硏究	석사	고려대학교
3	김단영	星湖學派에서 公喜怒說의 提起와 展開에 관한 硏究 : 修養論을 中心으로;	박사	성균관대학교
4	노윤숙	星湖 李瀷의 詩世界 硏究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5	문성호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	박사	성균관대학교
6	박광철	다산정약용의 권형론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7	신혜연	반계 유형원의 실리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8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	대구한의대학교
9	이승원	다산의 행정사상을 통한 협치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	동아대학교
10	이위	李栗谷.丁茶山受王陽明哲學思想影響之硏究	박사	한서대학교
11	고윤숙	정약용 역학의 수양론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12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13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論) 비교 고찰	한국실학연구.42	한국실학학회
14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인간관에 나타난 실천적 특징 고찰	동양철학연구.107	동양철학연구회
15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6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균 관념에 나타난 정치철학적 함의	범한철학.104	범한철학회

17	김 몽	다산 정약용 시가에서 장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8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	김봉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해배(解配) 이후 교유관계에 대한 고찰(1) —前期(1818~1827)에 限하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21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2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23	김유미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제: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중심으로 = Humans and Animals in Theory and Practice	이화어문논집. 54	이화어문학회
24	김윤경	설태희의 실학관과 조선성리학 비판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25	김윤정	순조대 가순궁嘉順宮 상례와 복제服制 논의 — 다산 정약용의 「가순궁상례문답嘉順宮喪禮問答」을 중심으로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6	김은미	장기(長鬐) 유배기 다산(茶山) 시의 향방(向方)과 성격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27	김영우	다산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28	김종두	이순신·정약용의 충효정신과 리더십 고찰 : 리더십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순신 연구논총. 3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9	김종복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0	김지인	진산사건에 나타난 제사관에 관한 고찰: 윤지충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63	한국선교신학회
31	김진아,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사상 — 일표이서의 행정개혁사상에 기반이 되는 심리학적 요인 연구 —	민족사상. 15	한국민족사상학회

32	김충열	1880년대 개화파의 세계관 탐구: 실학과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33	김태희	실학담론의 재구성과 양득중의 실사구시론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34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1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5	김학봉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 다산 정약용과 토마스 토렌스를 중심으로	신학저널. 49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신학연구소
36	노요한	유득공 『발해고』의 사료인용 양상과 역사서술 방법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7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42	한국한문고전학회
38	노지현	『매씨서평』의 문헌적 검토 — 『채화정집』과 『정본여유당전서』의 비교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39	박경	『흠흠신서』 殺獄 판결에 나타난 감정의 법적 수용 방식 :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학회
40	도민재	성호 이익의 관혼례(冠婚禮) 의절(儀節) 연구	온지논총. 67	온지학회
41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 : 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42	박인호	순암 안정복의 북방 인식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43	박종천	정약용이 제시한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삶 — 청족(淸族)의 열복(熱福)과 유인(幽人)의 청복(淸福) —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44	박지현	성호학파와 북학파의 예설 비교연구 — 성호 이익과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동양학. 8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45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6	배다빈	论朝鲜后期儒家对荀子的思想的采纳 —以李瀷、丁若镛的人性论为中心	중국학보. 95	한국중국학회
47	배병대	유교의 종교적 변용 연구 —성호학파의 상제관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1	한국동서철학회
48	백민정	정약용의 靈體와 權衡 개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 59	한국고전번역원

49	백민정	정약용 추서론(推恕論)의 철학적 함의–자수(自修)와 치인(治人)의 관계를 통해 본 다산의 서(恕) 이해	철학연구. 6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50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51	손용택	『대동수경』의 경제지리 인식: 사회과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 6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52	신윤수	《冽水文簧》과 丁若鏞의 변려문 인식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53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 108	한국동양철학연구회
54	심경호	정약용 수택본 『규장전운』 안어(按語)와 전(傳) 장지완 『규장전운간오』의 비교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55	심지우	이익과 홍대용의 악률론 연구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56	안승우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주역』	문학/사학/철학. 67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57	안승우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홍범(洪範)에 대한 관점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58	양원석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92	한민족어문학회
59	육수화	순암 안정복과 담헌 홍대용의 동궁(東宮)교육에 투영된 제왕학	교육철학. 81	한국교육철학회
60	윤석호	『고금비언(古今鄙諺)』을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과 신작(申綽)의 학술 교유의 일면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61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62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1) — 「고금비언古今鄙諺」을 중심으로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63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2) — 「백언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로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64	윤용남	다산 정약용의 양심(良心)철학 체계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65	이경구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서 해석과 용어 활용의 의미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66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을 통해 본 시속時俗·국제國制 인식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67	이병유	'실학의 예론과 예학' 연구 현황과 과제	사학연구.144	한국사학회
68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69	이승원,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부제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15	한국민족사상학회
70	이원준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瀷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의 '道東' 의식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71	이재복	정약용의 사칠설(四七說)과 법감정(法感情)	철학.사상.문화 37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72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73	이헌창	『임원경제지』 예규지(倪圭志)의 경제사상과 경제정보	경제사학. 45	경제사학회
74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 (1) : 『여유당집(與猶堂集)』과 『담헌서(湛軒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5	장진엽	다산 정약용의 제화시 연구	동양학. 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76	전성건	다산(茶山)과 문산(文山)의 강토(講討): 행사(行事)와 본원(本源)의 두 길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77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78	정도원	반계 유형원의 田論과 大同法 이해	우계학보. 41	우계문화재단
79	정은주	性齋 許傳의 西學 인식—『受廛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89	국제어문학회
80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81	최식	湛軒 洪大容의 小品文 — 天涯知己 斷想 — = Literary Writings of Damheon Hong Dae—yong — Fragmented Thought of Cheonaejihi —	동방한문학. 89	동방한문학회
82	최원규	실학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사회복지 역사 접근	사회복지역사연구. 4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83	최정연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4	하나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나타난 공공성(公共性)의 철학적 기초 — 공감(共感)을 통한 공정(公正)의 실현 —	철학. 149	한국철학회
85	함영대	오학론(五學論)으로 읽는 경전학의 이면 —경학과 과거 문장학의 조응—	한국한문학연구. 83	한국한문학회
86	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회
87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51편(일반논문 46편, 학위논문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성호 이익은 8편(일반 논문 7편, 학위논문 1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은 5편(일반논문 4편, 학위논문 1편), 반계 유형원은 3편(일반 논문 1편, 학위논문 2편), 나머지는 모두 일반 학술지 논문으로 담헌 홍대용은 일반논문 6편, 순암 안정복 4편, 성제 허전 2편, 소남 윤동규 2편, 영재 유득공 2편, 혜강 최한기 2편, 덕촌 양득중 1편이 있다. 전년도(2020년) 인물에 관한 논문은 유형원 4편, 박세당 4편, 성호학파 21편, 북학파 15편, 정약용 44편, 정조대왕 7편의 일반 논문이 있었다. 2020년, 2021년 대부분의 논문이 다산 정약용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성호와 성호학파가 잇고 있다. 2021년에는 박세당의 논문을 찾을 수 없고 나머지 실학자들에 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각각의 논문에서 인물들은 서로 비교되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논문이 많은 순서로 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약용 (다산, 1762~1836), 총 51편(박사논문 5편, 일반 논문 4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학위논문	발행기관
1	문성호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	박사	성균관대학교
2	박광철	다산정약용의 권형론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3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	대구한의대학교

4	이승원	다산의 행정사상을 통한 협치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	동아대학교
5	이위	李栗谷.丁茶山受王陽明哲學思想影響之研究	박사	한서대학교
6	고윤숙	정약용 역학의 수양론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7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論) 비교 고찰	한국실학연구.42	한국실학학회
8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9	김몽	다산 정약용 시가에서 장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0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1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김봉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해배(解配) 이후 교유관계에 대한 고찰(1) —前期(1818~1827)에 限하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13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4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15	김윤정	순조대 가순궁嘉順宮 상례와 복제服制 논의 — 다산 정약용의 「가순궁상례문답嘉順宮喪禮問答」을 중심으로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6	김은미	장기(長□) 유배기 다산(茶山) 시의 향방(向方)과 성격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17	김영우	다산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18	김종두	이순신·정약용의 충효정신과 리더십 고찰 : 리더십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순신 연구논총 3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19	김지인	진산사건에 나타난 제사관에 관한 고찰: 윤지충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63	한국선교신학회

20	김진아,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사상 — 일표이서의 행정개혁사상에 기반이 되는 심리학적 요인 연구 —	민족사상. 15	한국민족사상학회
21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 1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2	김학봉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 다산 정약용과 토마스 토렌스를 중심으로	신학저널. 49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신학연구소
23	노지현	『매씨서평』의 문헌적 검토 — 『채화정집』과 『정본여유당전서』의 비교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4	박경	『흠흠신서』 殺獄 판결에 나타난 감정의 법적 수용 방식 :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학회
25	박종천	정약용이 제시한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삶 — 청족(淸族)의 열복(熱福)과 유인(幽人)의 청복(淸福) —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6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7	배다빈	论朝鲜后期儒家对荀子的思想的采纳 —以李瀷、丁若镛的人性论为中心	중국학보.95	한국중국학회
28	백민정	정약용의 靈體와 權衡 개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59	한국고전번역원
29	백민정	정약용 추서론(推恕論)의 철학적 함의–자수(自修)와 치인(治人)의 관계를 통해 본 다산의 서(恕) 이해	철학연구. 6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30	손용택	『대동수경』의 경제지리 인식: 사회과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학교육. 6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31	신윤수	《洌水文簧》과 丁若鏞의 변려문 인식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32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108	한국동양철학연구회
33	심경호	정약용 수택본 『규장전운』 안어(按語)와 전(傳) 장지완 『규장전운간오』의 비교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34	안승우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주역』	문학/사학/철학. 67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35	양원석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92	한민족어문학회
36	윤석호	『고금비언(古今鄙諺)』을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과 신작(申綽)의 학술 교유의 일면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37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8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1) — 「고금비언古今鄙諺」을 중심으로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39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2) — 「백언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로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0	윤용남	다산 정약용의 양심(良心)철학 체계 =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s philosophy of conscience	동양철학연구.108	동양철학연구회
41	이경구	다산 정약용의 저술에서 해석과 용어 활용의 의미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2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을 통해 본 시속時俗·국제國制 인식	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3	이승원,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부제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민족사상.15	한국민족사상학회
44	이재복	정약용의 사칠설(四七說)과 법감정(法感情)	철학.사상.문화 37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45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108	한국동양철학연구회
46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 (1) : 『여유당집(與猶堂集)』과 『담헌서(湛軒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47	장진엽	다산 정약용의 제화시 연구	동양학. 8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48	전성건	다산(茶山)과 문산(文山)의 강토(講討): 행사(行事)와 본원(本源)의 두 길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49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50	최정연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1	함영대	오학론(五學論)으로 읽는 경전학의 이면 —경학과 과거 문장학의 조응—	한국한문학연구. 83	한국한문학회

정약용에 대한 논문은 총 51편으로 박사논문 5편, 일반논문이 46편이다. 전년도(2020년, 44편)와 비교했을 때 다소 증가하였다. 박사논문으로는 문성호의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성균관대학교), 박광철의 「다산정약용의 권형론 연구」(전북대학교), 이승경의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대구한의대학교), 이승원의 「다산의 행정사상을 통한 협치행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이위의 「李栗谷˙丁茶山受王陽明哲學思想影響之硏究 」(한서대학교) 등의 5편의 논문이 있다.

일반 논문으로 윤석호는 1)「『고금비언(古今鄙諺)』을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과 신작(申綽)의 학술 교유의 일면」,(〈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문화연구원), 2)「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1) —「고금비언古今鄙諺」을 중심으로」,(〈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2) —「백언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로」,(〈다산학〉 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등 총 4편의 논문을 썼다.

김경수는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論) 비교 고찰」(〈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등 2편의 논문이 있다.

백민정도 「정약용의 靈體와 權衡 개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연구〉 59, 한국고전번역원), 「정약용 추서론(推恕論)의 철학적 함의-자수(自修)와 치인(治人)의 관계를 통해 본 다산의 서(恕) 이해 」(,철학연구〉 6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등 2편의 논문이 있다.

2) 성호(이익, 1681~1763), 총 8편(박사논문 1편, 일반논문 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노윤숙	성호 이익의 시 세계 연구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2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3	김유미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제: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4	이화어문학회
4	도민재	성호 이익의 관혼례(冠婚禮) 의절(儀節) 연구	온지논총. 67	온지학회
5	심지우	이익과 홍대용의 악률론 연구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6	하나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나타난 공공성(公共性)의 철학적 기초 — 공감(共感)을 통한 공정(公正)의 실현 —	철학. 149	한국철학회
7	안승우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홍범(洪範)에 대한 관점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8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노윤숙은 「星湖 李瀷의 詩世界 硏究」(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과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등 2편의 논문이 있다.

3) 성호학파 총 5편(박사논문 1편, 일반논문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단영	星湖學派에서 公喜怒說의 提起와 展開에 관한 硏究 : 修養論을 中心으로	박사	성균관대학교
2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 : 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4	박지현	성호학파와 북학파의 예설 비교연구 — 성호 이익과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동양학. 8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5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4) 담헌 홍대용(1731~1783), 총 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인간관에 나타난 실천적 특징 고찰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2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균 관념에 나타난 정치철학적 함의	범한철학. 104	범한철학회
3	심지우	이익과 홍대용의 악률론 연구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4	육수화	순암 안정복과 담헌 홍대용의 동궁(東宮)교육에 투영된 제왕학	교육철학. 81	한국교육철학회
5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 (1) : 『여유당집(與猶堂集)』과 『담헌서(湛軒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6	최식	湛軒 洪大容의 小品文 — 天涯知己 斷想 —	동방한문학.89	동방한문학회

5) 순암 안정복(1712~1791), 총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복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	박인호	순암 안정복의 북방 인식 = Sunam An Jeong—bok' idea of the Northen boundary and Border Defense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4	육수화	순암 안정복과 담헌 홍대용의 동궁(東宮)교육에 투영된 제왕학	교육철학.81	한국교육철학회

6) 반계 유형원(1622~1673), 총 3편(박사논문 1편, 석사논문 1편, 일반논문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은선	磻溪 柳馨遠의 公田制와 토지 공유(共有)사상	석사	강원대학교
2	신혜연	반계 유형원의 실리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3	정도원	반계 유형원의 田論과 大同法 이해	우계학보. 41	우계문화재단

7) 소남 윤동규(1695~1773), 총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8) 영재 유득공(1748~1807), 총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복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	노요한	유득공 『발해고』의 사료인용 양상과 역사서술 방법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양명학회

9) 성제 허전(1797~1886), 총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2	정은주	性齋 許傳의 西學 인식—『受廛錄』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89	국제어문학회

10) 혜강 최한기(1803~1877), 총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論) 비교 고찰	한국실학연구.42	한국실학학회
2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 Comparative Study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1) 덕촌 양득중(1665~1742), 1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태희	실학담론의 재구성과 양득중의 실사구시론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철학, 3)문헌학, 4)문학, 5)예학, 6)정치·경제, 7)비교, 8)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1)경학은 학위논문 2편(석사1편, 박사 1편)과 일반논문 8편으로 모두 10편의 논문이 있다. 2)철학은 박사논문 4편과 일반논문 15편으로 총 19편이다. 3)문헌학은 일반 논문 20편, 4)문학은 박사논문 1편과 일반논문 5편으로 총 6편이다. 5)예학은 일반 논문 7편, 6)정치·경제는 9편(박사1편, 석사1편, 일반논문 7편)이다. 7)비교 논문은 9편이며, 8)기타 논문은 10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주제별로 중복되는 논문도 상당수 있다. 논문들이 각각 다양한 주제로 개성 있게 발표되어, 공통분모를 찾아 범주를 이루기가 어려운 논문도 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주제별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 한 가지 범주로만 넣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있다.

1) 경학(10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변은미	朝鮮時代 六書論 硏究	석사	고려대학교
2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	대구한의대학교
3	고윤숙	정약용 역학의 수양론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영우	다산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5	박순남	『소학』의 한국적 변용 : 성호학파의 소학서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87	한국문학회
6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7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 108	한국동양철학연구회
8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9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71	한국철학사연구회
10	함영대	오학론(五學論)으로 읽는 경전학의 이면 —경학과 과거 문장학의 조응—	한국한문학연구. 83	한국한문학회

2) 철학(18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단영	星湖學派에서 公喜怒說의 提起와 展開에 관한 硏究 : 修養論을 中心으로	박사	성균관대학교
2	문성호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	박사	성균관대학교
3	박광철	다산 정약용의 권형론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4	신혜연	반계 유형원의 실리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5	구만옥	자연지식에 대한 성호학파(星湖學派)내부의 담론 — 윤동규(尹東奎)와 안정복(安鼎福)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6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인간관에 나타난 실천적 특징 고찰	동양철학연구. 107	동양철학연구회
7	김경수	담헌 홍대용의 균 관념에 나타난 정치철학적 함의	범한철학.104	범한철학회
8	김유미	인간—동물 관계의 인식과 실제: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4	이화어문학회
9	김윤경	설태희의 실학관과 조선성리학 비판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10	김태희	실학담론의 재구성과 양득중의 실사구시론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11	백민정	정약용의 靈體와 權衡 개념에 대한 재검토	민족문화. 59	한국고전번역원
12	백민정	정약용 추서론(推恕論)의 철학적 함의–자수(自修)와 치인(治人)의 관계를 통해 본 다산의 서(恕) 이해	철학연구.64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13	윤용남	다산 정약용의 양심(良心)철학 체계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14	이재복	정약용의 사칠설(四七說)과 법감정(法感情)	철학.사상.문화 37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15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16	최정연	성리학과 서학의 공존: 다산 정약용의 사칠설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7	하나	성호 이익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에 나타난 공공성(公共性)의 철학적 기초 — 공감(共感)을 통한 공정(公正)의 실현 —	철학. 149	한국철학회
18	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회

3) 문헌학(20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통과 근대의 만남 =	규장각.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1	한국국악학회

5	김종복	실학자들의 발해지리 고증 —안정복·유득공·한진서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6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 방 학 지 . 1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	노요한	유득공 『발해고』의 사료인용 양상과 역사서술 방법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8	노지현	『매씨서평』의 문헌적 검토 — 『채화정집』과 『정본여유당전서』의 비교	다산학.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9	박경	『흠흠신서』 殺獄 판결에 나타난 감정의 법적 수용 방식 : 복수 살인 및 부모 위해자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60	한국역사민속학회
10	손용택	『대동수경』의 경제지리 인식: 사회과교육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 6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1	신윤수	《洌水文簧》과 丁若鏞의 변려문 인식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12	심경호	정약용 수택본 『규장전운』 안어(按語)와 전(傳) 장지완 『규장전운간오』의 비교	한문학논집. 59	근역한문학회
13	윤석호	『고금비언(古今鄙諺)』을 통해 본 정약용(丁若鏞)과 신작(申綽)의 학술 교유의 일면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14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1) — 「고금비언古今鄙諺」을 중심으로	다산학.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5	윤석호	신발굴 자료 『고금비언古今鄙諺』의 분석 (2) — 「백언시百諺詩」와 「아언지하雅言指瑕」를 중심으로	다산학.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6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을 통해 본 시속時俗·국제國制 인식	다산학.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7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18	이원준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瀷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의 '道東' 의식	규장각.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	이헌창	『임원경제지』 예규지(倪圭志)의 경제사상과 경제정보	경제사학. 45	경제사학회

20	임미정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위당문고 자료의 성격과 가치 (1) : 『여유당집(與猶堂集)』과 『담헌서(湛軒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9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4) 문학(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노윤숙	星湖 李瀷의 詩世界 硏究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2	김몽	다산 정약용 시가에서 장자의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학논집. 8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3	김은미	장기(長鬐) 유배기 다산(茶山) 시의 향방(向方)과 성격	한국문학논총. 89	한국문학회
4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문고전학회
5	장진엽	다산 정약용의 제화시 연구	동양학.8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6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5) 예학(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윤정	순조대 가순궁嘉順宮 상례와 복제服制 논의 — 다산 정약용의 「가순궁상례문답嘉順宮喪禮問答」을 중심으로	다산학.38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	김지인	진산사건에 나타난 제사관에 관한 고찰: 윤지충과 정약용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63	한국선교신학회
3	도민재	성호 이익의 관혼례(冠婚禮) 의절(儀節) 연구	온지논총. 67	온지학회

4	박지현	성호학파와 북학파의 예설 비교연구 — 성호 이익과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동양학.8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5	이병유	정약용의 『사례가식四禮家式』을 통해 본 시속時俗·국제國制 인식	다산학.37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6	이병유	'실학의 예론과 예학' 연구 현황과 과제	사학연구.144	한국사학회
7	이봉규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41	한국실학학회

6) 정치·경제(9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김은선	磻溪 柳馨遠의 公田制와 토지 공유(共有)사상	석사	강원대학교
2	이승원	다산의 행정사상을 통한 협치행정에 관한 연구	박사	동아대학교
3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論) 비교 고찰	한국실학연구.42	한국실학학회
4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	동양학.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5	김백철	『經世遺表』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	김종두	이순신·정약용의 충효정신과 리더십 고찰 : 리더십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순신 연구논총.35	수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7	김진아,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한 행정개혁사상 — 일표이서의 행정개혁사상에 기반이 되는 심리학적 요인 연구 —	민족사상.15	한국민족사상학회
8	김태희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경세유표』	동방학지.18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9	이승원, 김형빈	다산 정약용의 협치행정사상(부제 :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민족사상.15	한국민족사상학회

7) 비교(9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신혜연	반계 유형원의 실리의 성리학과 실학사상 연구;	박사	전북대학교
2	김경수	정약용과 최한기의 위민론(爲民論) 비교 고찰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4	박지현	성호학파와 북학파의 예설 비교연구 — 성호 이익과 담헌 홍대용을 중심으로	동양학. 8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5	심지우	이익과 홍대용의 악률론 연구	한국예술연구. 32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6	육수화	순암 안정복과 담헌 홍대용의 동궁(東宮)교육에 투영된 제왕학	교육철학.81	한국교육철학회
7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108	동양철학연구회
8	전성건	다산(茶山)과 문산(文山)의 강토(講討): 행사(行事)와 본원(本源)의 두 길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9	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회

8) 기타(10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이위	李栗谷、丁茶山受王陽明哲學思想影響之研究	박사	한서대학교
2	김봉남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해배(解配) 이후 교유관계에 대한 고찰(1) —前期(1818~1827)에 限하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3	김충열	1880년대 개화파의 세계관 탐구: 실학과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0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4	김학봉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인간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 다산 정약용과 토마스 토렌스를 중심으로	신학저널. 49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신학연구소
5	박종천	정약용이 제시한 19세기 향촌 사대부의 삶 — 청족(淸族)의 열복(熱福)과 유인(幽人)의 청복(淸福) —	다산과 현대. 14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6	배다빈	论朝鲜后期儒家对荀子的思想的采纳 —以李瀷、丁若镛的人性论为中心	중국학보.95	한국중국학회
7	배병대	유교의 종교적 변용 연구 —성호학파의 상제관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1	한국동서철학회
8	양원석	茶山 丁若鏞 字學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92	한민족어문학회
9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42	한국실학학회
10	최원규	실학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사회복지 역사 접근	사회복지역사연구. 4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21년 실학관련 논문은 총 87편이다. 그 중 5편의 논문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1)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지준호)

"실학의 집대성자"로 추앙받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후대에 남긴 방대한 저술은 그의 학문 공부가 어떠했는가를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이다.다산 정약용의 공부론을 관통하는 핵심은 "절차탁마의 공부"로서, 군자(君子)가 되기 위해서 의(義)를 지키고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아 실천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논어고금주』는 바로 이러한 그의 절차탁마 공부론의 내용이자 성과이다.절차탁마의 공부는 도(道)를 근거로 하여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너그럽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훌륭한 면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더 나아가 위정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재능에 따라 직책이나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2)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 (〈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이봉규)

허전이 편성하였던 『사의』의 체제는 1870년에 간행된 목활자본에서 알 수 있다. 허전 사후 1909년에 간행된 목판본 『사의』는 제자와 영남 지역의 유학자들이 함께 활자본에 교정을 가하고 체제를 일부 새

로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목판본은 활자본 이후 허전과 제자들에 의해 가해진 수정을 일부만 반영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의』의 정본을 편찬할 경우, 두주와 노필연의 「士儀考誤增註」 등을 교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편찬되는 가례서는 『가례』의 체제를 따르는 유형과, 독자적으로 의절을 수립하고 주석을 부가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방식은 이익의 『星湖禮式』에서 시작되었고, 정약용의 『四禮家式』으로 이어졌다. 허전의 『사의』는 고례와 『가례』를 중심으로 의절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주석을 부가하면서, 변례와 상관되는 쟁점에 대해서 "辨疑"의 항목을 두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허전은 사의도(106도)로 가례도(31도)를 대체하였고, 부고전 告廟, 成殯, 계후자에 대한 상복 등 『가례』에 없거나 『가례』와 다른 규정을 의절에 새로 추가하였다. 『사의』는 성호학파의 예학 전통을 계승하면서 당대 중국과 한국에서 논의된 예설까지 수렴하여 서민의 수준에서 가례를 실행할 수 있게 편성한 독자적인 가례서이다. 허전은 예설에서 『星湖禮說類編』의 설을 주로 계승하면서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의 견해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正體를 후계자가 아닌 부친과 조부에게 해당한다는 것, 적자가 생존해 있으면 적손의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조모나 모친이 생존해 있을 때 승중손의 처가 시조부에 대하여 중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호학파의 관점을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반면, 입후한 뒤의 승계에서 계후자의 지위를 우선시하고, 환종을 반대한 것은 이이의 견해를 계승한 것이다. 또한 계후자의 상복을 의복이 아닌 正服으로 규정하면서 이익, 이상정, 권상하, 한원진, 이재 등의 견해를 원용하였다. 허전은 정약용의 『상례사전』의 견해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

3)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이철승)

왕부지와 정약용은 맹자의 성선설을 계승한다. 왕부지는 기선·리선(氣善·理善)의 관점이고, 정약용은 호선오악(好善惡惡)의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한다. 이는 기의 유선유악(有善有惡)과 리선(理善)에 근거한 성리학자들의 성선설과 구별된다.왕부지와 정약용은 본성을 시공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인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날마다 구현해야 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4단에 대해, 성리학자들처럼 도덕감정의 영역에만 국한시키기지 않고, 도심(道心)에 해당하는 본성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들은 불선(不善)의 근거에 대해 견해를 달리 한다. 정약용은 인심(人心)을 불선의 근거로 여기지만, 왕부지는 인심과 도심을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결합의 관계로 여기고, 제자리(位)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을 불선의 근거로 여긴다. 이는 왕부지가 생물학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설정한 것과 달리, 정약용은 도덕적인 영지(靈知)의 측면과 본능적인 형구(形軀)의 측면을 구별하며 영지의 기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곧 왕부지는 맹자의 천형(踐形)론에 근거하여 몸과 정신의 유기적인 결합의 관점에서 성선설을 펼쳤고, 정약용은 맹자의 대체(大體)와 소체(小體) 가운데 대체의 관점에서 성기호설을 펼쳤다. 이처럼 왕부지의 성선설은 생물학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통일시킨 면에서 본성의 범주를 확장했고, 정약용은 도덕적인 면만을 본성의 영역에 해당시킴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을 특화시켰다.

4)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瀷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의 '道東' 의식」
(〈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원준)

본 연구는 息山 李萬敷(1664~1732)의 『道東編』과 星湖 李瀷(1681~1763)의 『道東錄』의 저술배경, 내용 및 구조,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기남인계의 '道東' 의식의 실체를 시론한 것이다. 『도동편』은 退溪 李滉(1501~1570)과 栗谷 李珥(1536~1584) 등 한국 성리학자들만의 언설을 『性理大全』의 체제로 망라한 것으로, 식산은 도통의 적전을 퇴계로 상정하면서도 율곡의 설까지 아울러 수록함으로써 학파와 정파에 관계없이 한국 유학의 발전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도동록』은 퇴계의 언설을 『近思錄』 체제에 준하여 정리한 것으로, 성호는 사서의 입문서인 『근사록』을 의식한 채 퇴계설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적 도학 전통의 기원을 밝히고 이를 한국적 도학 입문서로 삼고자 하였다. 두 저서는 모본의 차이로 인해 편차 구성, 인용 문헌의 범위, 분량 등이 일치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각 저서의 저자들은 한국 유학자의 언설만을 대상으로 삼아 수집 및 편집하고 이를 동일한 표제로 명명함으로써 '道學' 또는 '道統'의 東傳을 형용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퇴계를 도학의 정점이자 도통의 적전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식산과 성호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사를 포기하고 학문에 매진하여 후일 근기남인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인정받았다. 두 저서가 저술된 시기는 남인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서인 노론 정권이 들어서고,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유지를 이은 노론의 존명의리사상이 萬東廟와 大報壇이라는 중화계승 상징물로 가시화되던 때였다. 근기남인계인 두 학자로서는 노론이 선점한 중화계승 의식에 상응하면서도 저들이 구축한 주자학 절대주의 및 춘추의리와는 구별되는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두 학자의 '도동' 서적 저술은 근기남인계 지식인으로써의 책임의식과 위기의식의 발로로, 퇴계가 도학의 정점이자 도통의 적전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유학의 발전상을 드러내고 그 중심을 퇴계로 설정함으로써 식산과 성호가 제시하고자 한 '도동' 의식은 주자학 그 자체에 대한 정치한 분석에 기반하고 일련의 상징물로 가시화된 노론식의 '중화계승' 의식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5)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
(성균관대 박사논문, 문성호)

이 논문은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을 연구한 것이다. 주자학과 정약용은 모두 욕구 존재의 필연성을 인정하였다. 주자는 정자의 말을 통해 사람이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정약용도 사람에게 無欲이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먼저, 정약용은 朱子學的 傳統에 基盤하여 욕구의 부정적 측면을 주장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극복·억제·절제 대상으로서의 욕구와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는 욕구 등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朱子學的 傳統에 基盤하여 주장한 욕구의 긍정적 측면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주자는 밝아진 본심에서 나오는 욕구는 지극한 이치에 적합하게 된다고 하였고, 정약용은 도덕적·경제적·문화적인 人間事의 모든 일들이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실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정치적 측면에서 주자는,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통치자는 백성들을 잃고 그 결과 천하도 잃게 되며, 백성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통치자는 백성들의 마음과 함께 천하도 얻게 된

다고 하였다. 정약용 또한 백성들의 願欲을 목민관의 관심의 대상이자 해결의 주된 과제이며 성취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할 목표 과녁으로 여겼다. 朱子學과 정약용은 모두 욕구에 양면적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주자는 欲仁, 欲義, 欲禮, 欲智의 욕구는 좋은 욕구〔好欲〕지만, 하늘의 이치를 멸하고 물리치며 가는 곳마다 해로움을 끼치는 욕구는 좋지 않은 욕구〔不好欲〕라고 하였다. 정약용도 사람 안에 있는 道心의 욕구를 좇으면 善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지만, 人心의 욕구를 좇아가면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긍정적 욕구관의 基底로서의 性을 말할 때, 성이 하늘이 부여해 준 嗜好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약용은 朱子學的 입장보다 삶의 原動力으로서의 欲求와 寡欲을 통한 欲求의 調節을 더 강조함을 살펴보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原動力으로서의 欲求를 보면, 정약용은 주자가 인정한 욕구의 긍정적 측면인 도덕적 욕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육체적·사회적·지적 활동 등의 전반적인 활동에 욕구가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주돈이의 無欲이 아닌 맹자의 寡欲이 옳다며 寡欲을 긍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약용이 백성들을 포함한 인간의 현실적 삶 속에서 발현되는 욕구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인욕을 깨끗이 다 없애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 인욕정진의 어려움은 정약용이 주렴계가 주장한 무욕이 아닌 맹자의 과욕으로 구체적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긍정적 욕구관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정약용이 주장하는 긍정적 욕구관의 淵源은 맹자의 '여민동락'이다. 정약용의 긍정적 욕구관은 愛民 차원의 정치로 이어진다. 정약용은 백성들의 욕구를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統治者의 중요한 임무이면

서 牧民官들의 핵심 사명이라고 여겼다. 정약용의 긍정적 욕구관은 경제적으로는 백성들의 부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수용하고 이를 만족시켜 주어 그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백성들을 이롭게 하자는 방향 안내판을 설정한 것이다. 그는 백성들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이로움이 된다고 여겨 백성들의 재산 증대를 지향하였다. 정약용의 긍정적 욕구관은 교육적으로는 학습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습자 존중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욕구와 필요 및 현실적 상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자는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 준다. 또한 학습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욕구를 지혜롭게 충족해 갈 수 있도록 코칭하는 욕구 코칭 교육으로의 교육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알게 한다.

5.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2021년 1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몇 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소개하였다. 2020년에는 총 103편(학술논문 100편, 학위논문 3편)의 논문이 있었고, 2019년에는 학술논문 115편, 학위논문 7편 등 총 122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2021년 1년 동안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은 총 87편이다. 이것은 한국 학계의 연구 업적이나 아쉬운 점은 전년도에 비해 논문의 양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실학이 한국 학계의 관심의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여전히 정약용에 대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주제별 분류에서는 다양한 논문이 발표되어 여러 영역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인물별 분류는 다산 정약용에 관한 논문은 51편(일반논문 46편, 학위논문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성호 이익은 8편(일반 논문 7편, 학위논문 1편), 성호학파에 대한 논문은 5편(일반논문 4편, 학위논문 1편), 담헌 홍대용은 일반논문 6편, 반계 유형원은 3편(일반 논문 1편, 학위논문 2편), 나머지는 모두 일반 학술지 논문으로 순암 안정복 4편, 성제 허전 2편, , 소남 윤동규 2편, 영재 유득공 2편, 덕촌 양득중 1편이 있다. 혜강은 다산과의 비교 논문이 2편 있다. 전년도(2020년) 인물별 분류에 관한 논문은 유형원 4편, 박세당 4편, 성호학파 21편, 북학파 15편, 정약용 44편, 정조대왕 7편의 일반 논문이 있었다. 2020년, 2021년 대부분의 논문이 다산 정약용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뒤를 성호와 성호학파가 잇고 있다. 나머지 실학자들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미미하다. 각각의 논문에서 인물들은 서로 비교되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둘째, 주제별 분류는 1)경학, 2)철학, 3)문헌학, 4)문학, 5)예학, 6)정치경제, 7)비교, 8)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1)경학은 학위논문 2편(석사1편, 박사 1편)과 일반논문 8편으로 모두 10편의 논문이 있다. 2)철학은 박사논문 4편과 일반논문 15편으로 총 19편이다. 3)문헌학은 일반 논문 20편, 4)문학은 박사논문 1편과 일반논문 5편으로 총 6편이다. 5)예학은 일반 논문 7편, 6)정치·경제는 9편(박사1편, 석사1편, 일반논문 7편)이다. 7)비교 논문은 9편이며, 8)기타 논문은 10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주제별로 중복되는 논문도 상당수 있다.

셋째, 한국 실학 관련논문을 정리하고 분석 및 비평에서는 2021년도 논문을 소개하고 5개의 논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1)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지준호), 2) 「『士儀』의 체제와 예설의 학파적 성격」(〈한국실학연구〉 41, 한국실학학회, 이봉규), 3) 「왕부지와 정약용 철학에 나타난 본성론 문제」(〈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이철승), 4)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瀷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의 '道東' 의식」(〈규장각〉 5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이원준), 5) 「다산 정약용의 주자학적 욕구관에 대한 수용과 재정립」(성균관대 박사논문, 문성호) 등의 논문을 소개하고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 실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학문 연구를 계속해 주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바탕으로 한국 실학의 수준 높은 논문들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과 현대사회와 접목된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깊

이 있는 논문이 나올 것을 또한 기대한다.

제9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단윤진

1. 들어가는 말

본 보고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한국에서 출간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경학사상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나타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위의 등재 학술지와 등재 학술 후보지를 살펴본 결과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경학 관련 논문은 총 52편으로 학위논문 2편(석사 1편, 박사 1편), 일반 논문은 50편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논문은 조선 유학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외의 논문도 다소 포함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1)권근(양촌, 1352~1409), 2)정조대왕(홍재, 조선 22대 왕, 1752~1800), 3)이황(퇴계, 1502~1571), 4)이익(성호, 1681~1763), 5)윤동규(소남, 1695~1773) 6)정약용(다산, 1762~1836), 7)정국채(조선후기?~?), 8)전우(간재, 1841~1922) 등으로 살펴보고 그 외의 유학자들에 관해서도 조사하였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1)『대학』, 2)『논어』, 3)『맹자』, 4)『중용』, 5)『역학』, 6)『시경』, 7)『서경』, 8)『춘추』, 9)『예기』 및 『악기』, 10)사서 및 경서, 11)기타 등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몇 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

망을 조망해 보았다.

먼저 2021년 한국경학사상 관련 논문의 총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학위논문	발행기관
1	고윤숙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2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공자학. 43	한국공자학회
3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4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김서윤	正祖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錢時의 「洪範」해석	중국학. 76	대한중국학회
6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7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8	김수경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시경일과(詩經日課)』 삼권(三卷)의 분석을 더하여	대동문화연구.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9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10	김익수	고구려의 경학사상과 인성교육정책	한국의 청소년 문화. 38	한국청소년문화학회
11	김종수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의 학문세계의 대체와 학적 담론	인문학연구. 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2	김종수	향유(鄕儒)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사서경학(四書經學)	동방문화와 사상. 10	동방문화 대학원 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3	김종수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춘추(春秋)』 연찬과 우암학(尤菴學) 계승	포은학연구. 27	포은학회

14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문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15	박종배	퇴계와 율곡의 경서 석의 및 언해의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31	교육사학회
16	박종천	가장본家藏本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 문화재단
17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8	배제성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19	서근식	퇴계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의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105	동양철학연구회
20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21	서근식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108	동양철학연구회
22	석승징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	동양학.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3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108	동양철학연구회
24	신재식	峿堂 李象秀의 『論語』 해석과 朱子學	동양한문학연구. 58	동양한문학회
25	엄연석	여헌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26	오보라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중용장구보설(中庸章句補說)』 연구 — 구조 분석 특징과 主氣的 학설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27	유민정	주희(朱熹)와 이황(李滉)의 수사학적(修辭學的) 『논어(論語)』 해석(解釋)	퇴계학보. 149	퇴계학연구원
28	윤상수	『서천견록』을 통해 본 권근의 서경관 : 근엄(謹嚴)과 흠(欽)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9	윤석호	『맹자(孟子)』를 척도로 본 조선후기 공전(公田) 담론의 경세학적 층차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30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1	이경훈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的 考察	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32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33	이영준	정조(正祖)의 『사서대전(四書大全)』에 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하여 — 『사서집석(四書輯釋)』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4	이익환	훈민정음과 가림토문자의 제자制字 및 체계體系에 관한 역易학적 분석 검토	세계환단학회지. 8—1	세계환단학회
35	인정현	이산의 간괘(艮卦) 이해	시대와 철학.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6	임귀남	고산 윤선도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7	한국시가문화학회
37	임재규	권근(權近)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상수학적 방법론 : 오징(吳澄)의 『역찬언(易纂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8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39	정강길	"人能弘道 非道弘人"에 대한 非본체론적 道 이해 — 과정으로서의 道와 眞理에서 進理로 —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 연구원
40	정일남, 장남희	김종직(金宗直) 시문의 『시경』 운용 및 그 의미	동방한문학. 89	동방한문학회
41	조정은	권근의 『예기천견록』 중 「악기」편 분석 : 체제 재편과 독해 관점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2	지정민	동양고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논어집주대전』을 활용한 『논어』 강의	한국교육사학. 43—3	한국교육사학회
43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44	최종호	정조와 문답한 '詩經講義' 연구—周南과 召南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45	함영대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의 몇 가지 측면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46	함영대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47	함영대	퇴계 이황의 『經書釋義』 의 저변에 대한 일고	남명학연구. 70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8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학회
49	황병기	조호익 『역상설(易象說)』의 역학사상과 그 위상	태동고전연구. 4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50	이시연	正祖의 『大學』 解釋 硏究	석사논문	경상대학교
51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

2. 인물별·주제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각각의 인물을 중심으로 논문을 살펴보고 쉽게 알기 위해 표를 만들었다. 그 결과 1)권근(양촌, 1352~1409) 3편, 2)정조대왕(홍재, 조선 22대 왕, 1752~1800) 5편, 3)이황(퇴계, 1502~1571) 4편, 4)이익(성호, 1681~1763) 3편, 5)정약용(다산, 1762~1836) 13편, 6)정국채(조선후기?~?) 2편, 7)전우(간재, 1841~1922) 2편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약용의 논문은 13편으로 조선 유학자 중 가장 많고 정조가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은 이황 이다. 그 외 나머지 유학자들이 각각 1편씩 있는 것은 표로 만들지 않고 수록하였다.

1) 권근(양촌, 1352~1409),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정은	권근의 『예기천견록』 중 「악기」편 분석 : 체제 재편과 독해 관점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임재규	권근(權近)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상수학적 방법론 : 오징(吳澄)의 『역찬언(易纂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윤상수	『서천견록』을 통해 본 권근의 서경관 : 근엄(謹嚴)과 흠(欽)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정조대왕(조선 22대 왕, 1752~1800),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최종호	정조와 문답한 '詩經講義' 연구—周南과 召南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2	인정현	이산의 간괘(艮卦) 이해	시대와 철학.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	이영준	정조(正祖)의 『사서대전(四書大全)』에 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하여 — 『사서집석(四書輯釋)』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4	김서윤	正祖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錢時의 「洪範」해석	중국학. 76	대한중국학회
5	이시연	正祖의 『大學』 解釋 硏究	석사논문	경상대학교

3) 이황(퇴계, 1502~1571), 4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퇴계 이황의 『經書釋義』 의 저변에 대한 일고	남명학연구. 70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	서근식	퇴계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의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3	박종배	퇴계와 율곡의 경서 석의 및 언해의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31	교육사학회
4	유민정	주희(朱熹)와 이황(李滉)의 수사학적(修辭學的) 『논어(論語)』 해석(解釋)	퇴계학보. 149	퇴계학연구원

4) 이익(성호, 1681~1763),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학회
2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3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국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5) 윤동규(소남, 1695~1773),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2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명학회

6) 정약용(다산, 1762~1836),1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의 몇 가지 측면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	고윤숙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4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6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7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8	박종천	가장본家藏本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 문화재단
9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11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12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

7) 정국채(조선후기?~?),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수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춘추(春秋)』 연찬과 우암학(尤菴學) 계승	포은학연구. 27	포은학회
2	김종수	향유(鄕儒)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사서경학(四書經學)	동방문화와 사상. 10	동방문화 대학원 대학교 동양학연구소

8) 전우(간재, 1841~1922),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공자학. 43	한국공자학회
2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 Abstract Yijing thought of Jeon Woo(田愚)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이 외의 1편씩 있는 조선 유학자의 논문은 이의조(경호, ?~?)에 대한 논문이 김종수의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의 학문세계의 대체와 학적 담론」(『인문학연구』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이정직(석정, 1841~1910)은 김수경의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에 대한 해

석학적 접근 —『시경일과(詩經日課)』 삼권(三卷)의 분석을 더하여 」(『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현상벽(관봉, ?~?)은 배제성의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이병휴(정산, 1710~1776)는 서근식의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한국고전번역원), 허목(미수, 1595~1682)은 석승징의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동양학』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이상수(오당, 1820~1882)는 신재식의 「峿堂 李象秀의 『論語』 해석과 朱子學 」(『동양한문학연구』 58, 동양한문학회), 장현광(여헌, 1554~1637)은 엄연석의 「여헌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회), 유희(서피, ?~?)는 오보라의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중용장구보설(中庸章句補說)』 연구 — 구조 분석 특징과 主氣的 학설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이기경(목산, 1756~1819)은 이경훈의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的 考察」(『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윤선도(고산, 1587~1671)는 임귀남의 「고산 윤선도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7, 한국시가문화학회), 김종직(계온, 1431~1492)은 정일남, 장남희의 「김종직(金宗直) 시문의 『시경』 운용 및 그 의미」(『동방한문학』 89, 동방한문학회), 이유태(초려, 1607~1648)는 함영대의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조호익(지산, 1545~1609) 은 황병기의 「조호익 『역상설(易象說)』의 역학사

상과 그 위상」(『태동고전연구』 4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등이 있다.

주제별 분류에서 각각의 논문을 살펴보자면 1) 『대학』 5편 , 2) 『논어』 7편, 3) 『맹자 4편』, 4) 『중용』 2편, 5) 『역학』 10편, 6) 『시경』 6편, 7) 『서경』 5편, 8) 『춘추』 3편, 9) 『예기』 및 『악기』는 2편, 10)사서 및 경서는 3편, 11) 기타는 5편 등이 있다. 이상을 보면 『역학』과 『논어』가 비교적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복된 경우도 다소 있다.

1) 『대학(大學)』,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星湖學派 貞山 李秉休의 『大學』 해석의 의미 연구	민족문화. 58	한국고전번역원
2	김경수	다산과 혜강의 대학관(大學觀)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비교 고찰	동양학. 8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3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대학(大學)』 해석에서 서(恕)의 함의(含意)	퇴계학논총. 38	사단법인 퇴계학 부산연구원
4	박찬호	다산의 격치육조설(格致六條說) 연구	유학연구.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이시연	正祖의 『大學』 解釋 硏究	석사논문	경상대학교

2) 『논어(論語)』, 7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유민정	주희(朱熹)와 이황(李滉)의 수사학적(修辭學的) 『논어(論語)』 해석(解釋)	퇴계학보. 149	퇴계학연구원

2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공자학. 43	한국공자학회
3	지준호	『논어고금주』를 통해 본 다산 정약용의 절차탁마 공부론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4	신주연	『논어』 '북신(北辰)과 뭇별(衆星)'의 비유를 통해 본 정약용의 유위론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5	신재식	峿堂 李象秀의 『論語』 해석과 朱子學	동양한문학연구. 58	동양한문학회
6	정강길	"人能弘道 非道弘人"에 대한 非본체론적 道 이해 — 과정으로서의 道와 眞理에서 進理로 —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 연구원
7	지정민	동양고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논어집주대전』을 활용한 『논어』 강의	한국교육사학. 43—3	한국교육사학회

3) 『맹자(孟子)』,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가장본 『맹자요의』 검토의 몇 가지 측면 =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2	함영대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	동방한문학. 88	동방한문학회
3	배제성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 『맹자』 「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4	김종수	경호(鏡湖) 이의조(李宜朝)의 학문세계의 대체와 학적 담론	인천학연구. 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5	윤석호	『맹자(孟子)』를 척도로 본 조선후기 공전(公田) 담론의 경세학적 층차	학림. 48	연세사학연구회

4) 『중용(中庸)』,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배제성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 『맹자』 「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	율곡학연구. 46	(사)율곡연구원
2	오보라	서피(西陂) 유희(柳僖)의 『중용장구보설(中庸章句補說)』 연구 — 구조 분석 특징과 主氣的 학설 비판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5) 『역학(易學)』, 10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서근식	퇴계 이황의 『계몽전의(啓蒙傳疑)』에서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의 의미 연구	동양철학연구. 105	동양철학연구회
2	서근식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동양철학연구. 108	동양철학연구회
3	인정현	이산의 간괘(艮卦) 이해	시대와 철학. 3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4	임재규	권근(權近)의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에 나타난 상수학적 방법론 : 오징(吳澄)의 『역찬언(易纂言)』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5	고윤숙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6	황병기	조호익 『역상설(易象說)』의 역학사상과 그 위상 = The Yi—ology of the Theory of the Images of Changes of Cho Ho—ik	태동고전연구. 47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7	엄연석	여헌 역학사상의 경위설과 분합론의 도덕실천적 의미	동양철학. 56	한국동양철학학회
8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9	이익환	훈민정음과 가림토문자의 제자制字 및 체계體系에 관한 역易학적 분석 검토	세계환단학회지. 8—1	세계환단학회

10	이승경	茶山 丁若鏞의 易學에 대한 硏究 : 전통 易學에 대한 獨創的 解釋을 中心으로	박사논문	대구한의대학교

6) 『시경(詩經)』, 6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노윤숙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만시(挽詩)와 교류시(交流詩)에 드러난 의식(意識)의 일고찰(一考察)	한국고전연구. 42	한국한문고전학회
2	홍유빈	星湖 李瀷과 白雲 沈大允의 國風說 비교 연구 — 朱熹가 규정한 淫詩를 대상으로 —	고전과 해석. 33	고전문학 한문학 연구학회
3	최종호	정조와 문답한 '詩經講義' 연구—周南과 召南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57	한국고전번역원
4	김수경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 — 『시경일과(詩經日課)』 삼권(三卷)의 분석을 더하여	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5	임귀남	고산 윤선도 東詩 「문인폐육아(門人廢蓼莪)」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47	한국시가문화학회
	정일남, 장남희	김종직(金宗直) 시문의 『시경』 운용 및 그 의미	동방한문학. 89	동방한문학회

7) 『서경(書經)』,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상수	『서천견록』을 통해 본 권근의 서경관 : 근엄(謹嚴)과 흠(欽)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김성재	가장본家藏本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의 서지적 고찰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3	김보름	다산 정약용의 『상서고훈』 저술과 개정 과정 연구 — 필사본의 검토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56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김서윤	正祖의 『經史講義』를 통해 본 錢時의 「洪範」해석	중국학. 76	대한중국학회
5	윤석호	정약용(丁若鏞)의 기자(箕子) 인식(認識) — 고법(古法)탐구와의 연동(連動)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8) 『춘추(春秋)』,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수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춘추(春秋)』 연찬과 우암학(尤菴學) 계승	포은학연구. 27	포은학회
2	박종천	가장본家藏本 『춘추고징春秋考徵』과 『민보의民堡議』의 문헌적 검토	다산학. 39	재단법인 다산학술 문화재단
3	석승징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춘추설(春秋說)」 연구	동양학. 8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9) 『예기(禮記)』 및 『악기(樂記)』, 2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세중	정약용(丁若鏞) 『악서고존(樂書孤存)』 악기론의 음악실제상 문제점	한국음악연구. 70	한국국악학회
2	조정은	권근의 『예기천견록』 중 「악기」편 분석 : 체제 재편과 독해 관점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6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0) 사서(四書) 및 경서(經書), 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종수	향유(鄕儒)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사서경학(四書經學)	동방문화와 사상. 10	동방문화 대학원 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	이영준	정조(正祖)의 『사서대전(四書大全)』에 관한 비판적 인식에 대하여 — 『사서집석(四書輯釋)』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42	한국실학학회
3	전성건	소남 윤동규의 학문과 四書學의 의미	양명학. 63	한국양면학회

11) 기타, 5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익수	고구려의 경학사상과 인성교육정책	한국의 청소년 문화. 38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	박종배	퇴계와 율곡의 경서 석의 및 언해의 교육사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31	교육사학회
3	이경훈	木山 李基敬 『東儒經說』의 書誌的 考察	전북학연구. 3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4	이익환	훈민정음과 가림토문자의 제자制字 및 체계體系에 관한 역易학적 분석 검토	세계환단학회지. 8—1	세계환단학회
5	지정민	동양고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논어집주대전』을 활용한 『논어』 강의	한국교육사학. 43—3	한국교육사학회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2021년도 한국 경학 사상 논문은 모두 52편이다. 그 중 5편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길태은은 그의 논문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에서 이 연구는 『논어』를 통해 본 도의의 의미를 간재 중심으로 고찰한 글이라고 말한다. 이에 「독논어」의 주요 견해를 확인해 보고, 간재 생애에 있어서 도학적 의리정신과 교학적 자정의 의미를 『논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활동했던 간재는 외세의 침략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심각한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간재는 「독논어」에서 '학이시습'의 '학'자를 주석함에 '심이성을 배워야 한다.'는 심학성을 바른 학문으로 인식했다. 만일 존심(尊心)으로 해석하면 바로 광자나 방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심이 도의를 따라야 함을 주장한다. 그렇기에 간재의 문제 의식은 '선악을 실행할 수 있는 심이 어떻게 하면 순선한 본성에 근본 할까'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곧 인간의 본성에 근본 하는 윤리실천 주체의 확립을 통해 심이 도의〔性理〕를 실천하는 것이 선비정신이며 도학정신임을 주장한다. 간재의 교학적 자정의식 속에서 교학과 저술활동은 공자가 제시한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 행동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물러나 숨는다.'는 도의 구현방법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러한 간재의 삶과 경학 태도를 보면 존성을 중시한 도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당시 국가사회의 부조리와 왜양의 침탈은 모두 인간의 심기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간재가 망국이

라는 극악의 모순을 목도하며 일제강점의 불합리를 겪어야 했던 시기를 비취어 볼 때 그의 현실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필 수 있다.

2) 고윤숙은 그의 논문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에서 정약용은 역학의 핵심적인 방법론인 역리사법(易理四法)을 통하여, 천인성명(天人性命)의 이치와 더불어 역법(曆法)을 역(易)에서 배제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주희의 성리학적 역학에 대한 비판이며, 정약용 역학의 핵심은 추이(推移), 효변(爻變), 호체(互體)라는 역리와 「설괘(說卦)」의 물상이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원시 유학의 상제(上帝)와 우주 및 인간이 구분되는 천인분리(天人分離)의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정약용이 역사(易詞)를 시대적인 문화의 텍스트로 읽는 것은, 체용일원(體用一源)적 결합의 방식으로 『주역』을 독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점의 괘효()사의 해석이 단순히 괘효의 부호 체계의 내적 규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태 속에서 실리(實理)와 결부하여 다양한 삶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의미를 갖는 해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주희의 역학과 수양론의 상호 연관성에서 보자면, 『주역』의 의리란 역리, 즉 법칙적 규범의 기능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내면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믿음과 내면화는 세계의 법칙적 전개에 대한, 즉 개연적 법칙성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희의 역학은 복서(卜筮)에 의지하는 결정론의 단계를 넘어서서 규범과 개연성에 대한 주체의 자발적 동의와 합류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인 수용을 한 정약용의 미발(未發) 상태는 단지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발동하지 않았을 따름이며, 마음의 사려(思慮)가 작동하는 수양의 영역이 된다. 즉 미발에서는 수

양 주체가 자주의 권형의 자리에서 윤리적 사려와 신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수양의 과정은 천명(天命), 즉 내면의 반성적 목소리인 도심(道心)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정약용은 상제의 시선을 통한 신독(愼獨)과 사려를, 성리학의 거경(居敬)과 궁리(窮理)에 대한 비판적인 수양론 체계로 제시하고 있다.

3) 배제성은 그의 논문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에서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수장」(특히 '솔성지위도')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호락논쟁의 대표적 논자로 널리 알려진 한원진과 이간은 사실 호학에 소속된 동문들이며, 그들의 토론이 가진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러 동문들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현상벽은 자주 이간과 나란히 언급되는 중요한 참여자이다. 현상벽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논쟁의 양상이나 쟁점의 함의에 대해 더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인물성동이론의 대표적인 전거로 꼽히는 『맹자』「생지위성장」과 『중용』「수장」(특히 '솔성지위도')에 대한 해석에 주목함으로써 현상벽의 기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상벽은 두 전거에 대한 해석에서 철저히 동론의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지위성장」 해석에서 그는 당초 한원진의 해석에 동조했던 이간보다 빨리 동론의 입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이간의 견해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솔성지위도' 해석에 있어서 현상벽은 이간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간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한원진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주장을 제시한 반면, 현상벽은 철저히 본 연

지성의 절대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동론의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논쟁에서 현상벽의 역할을 포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논쟁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역동적인 상호토론의 과정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서근식의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는 윤동규의 역학사상에 대해 살펴 본 것이다. 윤동규의 저술은 「행장〔邵南先生尹公行狀〕」과 「제문〔祭邵南尹丈東奎文〕」을 지은 안정복(安鼎福)의 말처럼 후대에 전할 만한 것은 없고 '지의(志疑)' 몇 권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안정복은 「행장」에서 이익이 윤동규가 『태현경(太玄經)』을 잘 알고 있다고 칭찬한 점을 언급하였다. 『태현경』은 윤동규의 역학(易學)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부분이다.성호학파에서 윤동규의 위상은 이익이나 초창기 제자들이 언급한 부분에서 그가 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에 신후담(愼後聃)으로부터 비롯된 '공희로(公喜怒) 논쟁'에서 젊은 제자들이 윤동규를 따르기 보다는 신후담의 견해에 동조했던 이병휴(李秉休)의 입장을 따름으로써 성호학파에서 점점 잊히게 되었다. 윤동규가 「계사지의(繫辭志疑)」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소옹(邵雍)의 가일배법(加一倍法)으로 『주역(周易)』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하는 것이다. 윤동규는 「계사전(繫辭傳)」이 『주역』의 범례와 같으므로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사전」을 열심히 읽고, 그로부터 『주역』의 이치가 건괘(乾卦)·곤괘(坤卦)에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윤동규의 서법(筮法)에 대한 견해는 이익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익은 「시괘고(蓍卦攷)」와 같이 주희(朱熹)의 서법(筮法)에 의문을 가지고 많은 기록을 남긴 반면 윤동

규는 '자득(自得)'의 정도가 적어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짧은 글 몇 편만을 남겼다. 『태현경』은 한나라 때 만들어진 서적이다. 윤동규가 『태현경』을 연구한 본래 목적은 소옹과 주희를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확장하여 『주역』의 주석서로 만들었다면 좋았겠지만 소옹과 주희를 비판하는 언급에만 그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윤동규의 역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으므로 그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5) 함영대는 그의 논문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 = 」에서 초려 이유태(1607~1684)는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과 깊은 교유관계를 맺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예학과 경학은 물론 경세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유배기에 완성한 『庭訓』, 『四書答問』 등의 저작은 해당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율곡학을 계승한 당대의 학자로 평가되어 왔다. 그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관직을 수행한 적도 있으나 그 관력이 화려하지는 않았다. 그나마 1680년 이후로는 예송논쟁으로 인해 송시열과 사이가 멀어져 영변으로 귀양가기도 했다. 초려는 사계 김장생을 스승으로 섬겼다. 그러므로 사계가 스승으로 섬겼던 율곡의 경전해석을 계승한 것은 그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사서답문』은 이러한 학문적 맥락 속에서 저술된 것이다. 이 책이 집필될 당시 초려는 갑인년 예송에 휘말려 유배생활 중이었는데 그 당시 이미 칠십을 넘고 있었다. 손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서답문—맹자』는 사계 김장생 이후로 조선의 맹자해석이 전환되어 가는 의미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저작이다. 초려는 대전본을 활용하여 소주까지 비판

적으로 독실하게 읽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경제론 분야의 관심사와 문헌의 활용정도, 諺解에 대한 관심, 주석의 수준과 한계점 등을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초려에 이르러 대전본은 더 한층 충실하게 분석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유배지라는 저작의 환경으로 인해 문헌 활용의 범위는 한정적이었고, 손자에게 주는 답문의 형식이라는 저작의 성격은 본격적인 연구서로서의 성격을 다소 주저하게 만든다. 또 초려 자신의 한정적인 관심 분야도 맹자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석의 시야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사서답문—맹자』는 소주의 분석과 활용이라는 신선한 시도로서의 의미 외에 좀 더 본격적인 학술서로서의 평가는 조금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전본 소주의 충실한 독서물로서의 이 저작의 상징적인 의미를 다소 아쉽게 만든다.

4. 평가와 전망

이상 살펴본 결과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경학 관련 논문은 총 52편이다. 그 중 학위논문은 2편(석사 1편, 박사 1편)이고 나머지 이랍 학술지 논문이 50편이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논문은 조선 후기 유학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그 외의 논문도 포함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인물별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논문은 1)권근(양촌, 1352~1409) 3편, 2)정조대왕(조선 22대 왕, 1752~1800) 5편, 3)이황(퇴계, 1502~1571) 4편, 4)이익(성호, 1681~1763) 3편, 5)정약용(다산, 1762~1836) 13편, 6)정국채(조선후기?~?) 2편, 7)전우(간재, 1841~1922) 2편 등이 었고 나머지는 유학자들은 각각 1편씩 있음을 살펴보고 조사하였다. 전년도의 경우는 박세당(서계, 1629~1703), 신후담(하빈, 1702~1761), 이진상(한주, 1818~1886), 전우(간재, 1841~1922), 곽종석(면우, 1846~1919), 이병헌(진암, 1870~1940)이 각각 2편씩의 논문이 이었다.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룬 논문은 총 14편이 있었으며 시대순으로 나열해보자면 이황(퇴계, 1501~1570), 최명길(지천, 1586~1647), 윤휴(백호, 1617~1680), 김만중(서포, 1637~1692), 정제두(하곡, 1649~1736), 이만부(식산, 1664~1732), 이익(성호, 1681~1763), 김원행(미호, 1702~1772), 류정원(심산, 1703~1761), 안정복(순암, 1712~1791), 홍대용(담헌, 1731~1783), 정조대왕(홍재, 1752~1800), 정약용(다산, 1762~1836), 설태희(1875~1940) 등이 있었다.

둘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논문은 1)『대학』 5편, 2)『논어』는 7편, 3)『맹자』는 4편, 4) 『중용』은 2편, 5) 『역학』은 10편, 6) 『시경』은 6편, 7) 『서경』은 5편, 8) 『춘추』는 3편, 9) 『예기』, 『악기』는 2편, 10)사서 및 경서는 3편, 11) 기타는 5편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상을 살펴보자면 『역학』과 『논어』가 비교적 많은 편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중복된 경우도 있다. 전년도인 2020년에는 『중용』은 8편, 『주역』은 6편, 『대학』 5편, 『춘추』는 4편, 『맹자』는 3편, 『논어』는 1편, 『시경』은 1편으로, 2021년과 비교하자면 확실한 차이가 보인다.

셋째,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 5편을 선별하여 소개하여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1) 길태은은의 논문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2) 고윤숙의 논문 「정약용(丁若鏞) 역학(易學)의 수양론(修養論) 」, 3)배제성의 논문 「관봉 현상벽의 인물성동이론 연구 — 『맹자』 「생지위성장」과 『중용』 '솔성지위도' 해석을 중심으로 — 」, 4)서근식의 논문 「소남(邵南) 윤동규(尹東奎)의 역학사상 연구 」, 5)함영대의 논문「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사서답문(四書答問)—맹자(孟子)』 연구 = 」 등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넷째,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2020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경학 관련 논문은 총 30편이었다. 그 중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9편, 한국 유학자와 중국 유학자를 비교를 비교한 논문이 1편 있었다. 2021년은 총 52편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논문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

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희망한다. 한국 경학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수준 높은 한국 경학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와 한국 학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0장

한국 근대유학 연구

이원준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1년 한국에서 발표된 한국 근대유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학문별, 주제별로 종합 및 분석한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성과의 범위는 19세기 중반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활동한 유학자들의 사상과 해당 시기의 유학 관련 담론을 주제로 한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 발표논문 및 철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는 총 60편의 학술지 논문이다. 연구성과들을 계파적 측면에서 분류할 경우 성리학 논문이 43편, 양명학 논문이 7편, 기타 한국유학 논문이 10편으로, 작년과 비슷한 분량의 연구성과가 발표된 양명학 분야와 기타 분야에 비해 성리학 분야 연구성과가 작년보다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성리학 연구성과의 경우 노사학파, 간재학파, 한주학파, 화서학파 등 근대시기의 주요 성리학파를 기준으로 재분류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상술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유학 관련 담론"이라는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본고에서 언급한 "유학 관련 담론"이란 크게 "전통유학의 심화", "전통유학의 변동", "근대사유로서의 유학"이라는 세 가지 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유학의 심화"란 기존 한국유학 전통에서 이어지는 유학사상의 전개 및 심화를 뜻하고, "전통유학의 변동"이란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 유학에 대한 한계를 목도하고 이를 비판하거나 변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이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국권피탈에 대한 저항 담론의 기반으로서 유학사상이 점유하는 지위를 의미한다. 물론 상술한 세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고찰한 연구는 물론,

상술한 담론과 무관한 연구성과 역시 발표된 만큼, 상술한 세 가지 주제와 무관하거나 세 가지 주제가 혼재된 연구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2. 학문별 분류

1) 성리학

근대 한국유학 연구성과 가운데 성리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는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43편이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노사학파를 주제로 한 연구가 1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재학파 연구가 12편, 한주학파 연구가 7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이 밖에도 화서학파 연구가 4편, 상술한 학파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성리학 연구가 2편 발표되었다. 개인 성리학자의 경우, 간재 전우(艮齋 田愚, 1841~1922)를 주제로 한 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노사학파의 송사 기우만(松沙 奇宇萬, 1846~1916)이 4편, 한주학파의 회봉 하겸진(晦峯 河謙鎭, 1870~1946)이 2편이 발표되었다. 즉, 학파로서는 노사학파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면 학자로서는 간재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학파간 비교논문은 간재와 성재 유중교(省齋 柳重敎, 1832~1893)의 심설논변을 다룬 이상익의 논문이 유일한데, 해당 논문은 간재학파와 화서학파에 각각 배치하였다.

(1) 노사학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상현	삼산 권기덕의 성리설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3	김세오	浮海 安秉宅과 제주 蘆沙學派에 대한 小考	東方漢文學 89	동방한문학회

4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강학활동과 蘆沙學派의 확대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5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학문 활동과 蘆沙 性理說의 계승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6	박학래	기우만(奇宇萬) 문인들의 강학 활동과 노사 학맥(蘆沙學脈)의 지속.	儒學硏究 5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양순자	「외필(猥筆)」의 사상적 단초를 찾아서 — 기정진(奇正鎭)과 조성가(趙性家)의 문답을 중심으로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8	윤호진	農山 鄭冕圭의 蘆沙學 繼承과 學問世界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9	이향준	「외필(猥筆)」, 1902-외필논쟁(猥筆論爭)의 시작-	汎韓哲學 100	범한철학회
10	이향준	「외필(猥筆)」의 외침 —기사(騎士)는 죽었는가?—	儒學硏究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이향준	이직현(李直鉉)의 「호행일기(湖行日記)」 고찰	儒學硏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2	이향준	박로술(朴魯述)의 외필론(猥筆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이형성	대곡(大谷) 김석구(金錫龜)의 리일원적(理一元的) 사유(思惟)에서의 선악론(善惡論)과 경론(敬論)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4	이형성	東塢 曺毅坤의 처사적 삶과 天理 志向 양상	東洋古典硏究 82	동양고전학회
15	이형성	重軒 黃澈源의 蘆沙學 繼承에 의한 心性論 —攷 -明德과 人心道心說을 中心으로-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16	전성건	송산 권재규의 心性一體論과 向華背夷論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17	조우진	월파(月波) 정시림(鄭時林)의 주리설(主理說) — 교유관계(交遊關係)와 「외필(猥筆)」 논변(論辨)을 중심으로 —	東洋哲學硏究 105	동양철학연구회
18	조우진	石田 李最善의 理 중심적 실천의식	용봉인문논총 5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	조우진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	호남학 7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노사학파 관련 연구성과는 1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만, 이 가운데 이향준이 4편, 이형성과 조우진, 박학래가 각각 3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소수의 연구자가 특히 집중적으로 노사학파 관련 연구성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성과 가운데 노사의 대표작인 「외필(猥筆)」을 주제로 한 이향준의 논문 2편과 양순자의 논문을 제외한 16편의 논문이 노사학파에 속한 학자들을 발굴하고 그 사상적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외필」을 주제로 한 3편의 논문 가운데 이향준의 논문 1편과 양순자의 논문은 「외필」 그 자체의 철학적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이향준의 다른 논문인 「「외필(猥筆)」, 1902」은 「외필」을 둘러싼 성리학계의 논의를 "「외필」논쟁"으로 규정하고 1902년 이전의 「외필」 관련 문헌들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노사학파 개별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성과가 발표된 인물은 기우만으로, 박학래의 논문 3편과 김근호의 논문 1편이 발표되었다. 박학래의 논문은 송사를 매개로 한 노사 사상의 계승 및 전파양상을 고찰하였으며, 김근호의 논문은 송사의 학문이 단순한 노사의 조술에 그치지 않고 노사의 사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심학(心學)'과 위정척사의 측면에서 강조된 '부정척사(扶正斥邪)' 등을 제창함으로써 독자적인 학문을 구축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밖에 노사 후학 관련 연구는 각 인물당 1편씩 발표되었으며, 이들 연구는 크게 ①기존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노사 문인을 발굴한 연구, ②기발표된 연구성과가 있으나 해당 문인의 독자적 성리설 또는 노사학파로서의 특징을 고찰한 연구, ③노사학파의 전파 양상을 고찰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김상현, 윤호진, 조우진의 논문과 이향준의 박로술 관련 논문, 이형성의 논문 3편이 ①번에 해당하고, 김근호, 이향준, 전성건의 논문과 조우진의 논문 2편은 ②번

에 해당하며, 김새미오와 박학래의 논문은 ③번에 해당한다.

(2) 간재학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2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사상 고찰 — 상례(喪禮)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3	김혜수	간재 후학 입와(立窩) 김종연(金鍾淵)의 삶과 성리학설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4	도민재	송운 정운한(松雲 鄭雲翰)의 삶과 학문세계	율곡학연구 45	(사)율곡학회
5	선병삼	간재 전우의 신정통주의 성리학	人文科學研究 44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6	유지웅	간재 전우의 화서학파 성리설 비판과 문제의식	동서철학연구 102	한국동서철학회
7	이상익	간재(艮齋) 전우(田愚)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의 심설논변(心說論辨)에 관한 고찰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8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9	이승환	간재 전우의 미발론과 정좌관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10	이천승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본 간재 전우의 '혈구지도(絜矩之道)' 주석 분석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이형성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의 수도적(守道的) 유학계승(儒學繼承)과 심성합일적(心性合一的) 수양론(修養論)	退溪學論叢 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2	정종모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과 그 철학적 의의	東洋哲學研究 105	동양철학연구회

노사학파 연구가 노사 후학들의 면면을 발굴하는 데 집중되어 있

다면, 간재학파 연구의 경우 간재 본인의 사상의 다양한 면모를 발굴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전체 연구성과의 2/3인 8편의 논문이 간재 개인의 사상을 다루었으며, 성리설(선병삼, 유지웅, 정종모) 뿐만 아니라 경학(길태은, 이천승), 수양론(이승환), 예학(김현수), 역학(이선경)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 간재 연구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부분은 간재 사상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적다는 점이다. 길태은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는 간재가 속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언급이 드문 편이다.

간재 후학들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 3편(김혜수, 도민재, 이형성)은 모두 기존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간재 후학을 발굴하고 그들의 유학사상을 논의함으로써 현대로까지 이어지는 간재학의 계승 양상과 격동하는 세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유학사상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다른 성리학파와의 관계를 다룬 2편의 논문은 모두 심설논변의 상대 진영인 화서학파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다만, 유지웅의 논문은 간재의 화서학파 비판 양상을 다룸으로써 간재 본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상익의 논문은 간재와 성재의 학설을 대비적으로 비교하여 이들의 논의가 간재학파와 화서학파 양자에 미친 영향을 동시에 살펴보았다.

(3) 한주학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근호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의 성리설(性理說).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2	김낙진	허유의 심설 토론과 갈등의 양상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종석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해석을 둘러싼 쟁점과 맥락 — 이만인(李晩寅)과 윤주하(尹胄夏)의 논변을 중심으로 —	退溪學報 149	퇴계학연구원
4	이영숙	일제강점기 전통 지식인으로서 회봉 하겸진의 위상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5	전병철	자동(紫東) 이정모(李正模)의 한주(寒洲) 성리설(性理說) 수용 과정과 심설(心說) 논변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6	한길로	삼주 이기원의 삶과 한주학(寒洲學) 전승의 일면 고찰 : 독립운동 조력과 문집발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8	한국민족문화연구소
7	陳亦伶, 김은영	강유위의 경학사상에 대한 하겸진의 비판	인문과 예술 10	인문예술학회

한주학파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총 7편의 학술논문이 발표되었다. 한주학파의 연구 성과 가운데 『동유학안(東儒學案)』의 저자 하겸진을 다룬 2편의 논문과 이기원을 다룬 한길로의 논문을 제외한 4편의 논문이 한주학파와 타 학파 간의 성리설 논변을 주제로 하였다. 이 가운데 3편의 논문(김근호, 김낙진, 김종석)이 한주의 심즉리(心卽理)를 둘러싼 한주학파와 타 영남학파의 논변 양상을 다루었고, 전병철의 논문은 한주학파와 노사학파 간의 심설논변을 다루었다. 회봉을 다룬 두 편의 연구는 성리설보다는 근대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다루었다. 다만, 陳亦伶은 회봉을 한주학파의 일원으로 인정한 반면, 이영숙은 회봉의 사상은 한주뿐만 아니라 남명학적 가학연원이 혼합하여 영남 좌·우도의 사상적 맥락이 혼합된 결과라고 보았다.

(4) 화서학파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평화사상과 현실적 구현: 위정척사파의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11	인문예술학회
2	이상익	간재(艮齋) 전우(田愚)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의 심설논변(心說論辨)에 관한 고찰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3	이향배	추강(秋江) 백낙관(白樂寬)의 위정척사활동 연구	儒學硏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하윤서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과 '관일약(貫一約)'의 유학적 의미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화서 및 화서학파를 다룬 연구성과는 총 4편의 논문이 있다. 한주학파 관련 연구성과와 마찬가지로 화서학파 역시 화서 본인을 다루었다기보다는 화서 후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었으며, 심설논변과 관계된 이상익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이 구한말 항일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박태옥과 이향배의 논문은 화서학파의 위정척사 사상을 다루었고, 하윤서는 의암 유인석(毅菴 柳麟錫, 1842~1915)이 의병활동 과정에서 제시한 규범인 관일약(貫一約)의 유학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5)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성희	근대 호서산림(湖西山林)의 학문적 위기 대응 방식과 사상적 배경 —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과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2	정순우	19세기말 서원 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주리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상술한 학파 분류에 속하지 않은 성리학 관련 연구성과는 2편의 논문이 있다. 이 가운데 정성희의 논문은 연재학파라는 별도의 학맥으로 분류되는 연재 송병선(淵齋 宋秉璿, 1836~1905)과 심석재 송병순(心石齋 宋秉珣, 1839~1912)의 현실대응양상과 그 이론적 기반을 다루었으며, 정순우의 논문은 19세기 말엽 진행된 강회(講會)를 통해 퇴계학파, 한주학파, 노사학파, 화서학파 등 주리론 계열의 사상의 분화과정을 살펴보았다.

2) 양명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환	도덕함에 관한 박은식의 인식지평 연구	退溪學論叢 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	김우형	박은식 유교구신론의 철학적 기획: 구학(舊學)에서 신학(新學)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3	김우형	백암 박은식 양명학론의 독창성과 특색 —본령(本領)학문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孔子學 44	한국공자학회
4	박정심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5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주체 인식과 사회적 구현의 문제 —정인보의 '감통(感通)'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6	이대승	위당 조선학의 본심감통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7	임부연	박은식의 근대적 심학 — '진아(眞我)'의 구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4	대동문화연구

근대 한국유학 연구성과 가운데 양명학을 주제로 한 연구성과는 7편의 연구논문으로, 인물별로는 백암 박은식(白巖 朴殷植, 1859~1925)을 주제로 한 논문이 5편,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1892~1950)를 주제로 한 논문이 2편 발표되었다. 모든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근대 지식인으로서 박은식과 정인보가 양명학에 기초하여 제시한 사상이 지니는 근대적, 현대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박은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박은식 사상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박은식이 당대 중국 사상가인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의 영향을 받아 주자학적 격물치지설의 한계를 근대 과학기술과 결부하여 지적하면서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식탐구와 도덕실천의 융합을 도모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박정심의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에서는 주자학을 완전히 배척한 량치차오와는 달리 박은식의 경우 주자학과 양명학의 융합을 시도하였다고 보았으며, 이것이 량치차오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인보를 주제로 한 2편의 논문은 모두 정인보가 양명학에 기초하여 제시한 "감통(感通)"이 일제치하 조선인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한 바를 고찰하였다. 이대승은 정인보의 본심감통론이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1878~1967)를 필두로 한 일본 관학이 제시한 유학망국론, 조선인 무주체성론, 일본의 충효군국주의 등에 대한 대응의 논리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박태옥은 정이보 감통 철학이 지니는 당대적 의미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과 각자도생의 논리나, 이기적 주체로서 타자를 배제하는 습성에서 오는 '공멸하는 사회적 존재'에서 벗어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아 현대 사회에도 유의미한 사유가 됨을 지적하였다.

3) 기타 한국유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 –캉유웨이의 원시유학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汎韓哲學 103	범한철학회
2	김윤경	설태희의 실학관과 조선성리학 비판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3	김지은	근대전환기 석주 이상룡의 사상적 변화와 유교개혁론의 연원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4	오주연, 박민철, 윤태양	1910년대 유교비판의 담론지형: 신지식층의 『학지광(學之光)』 논설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5	이병태	한국 현대 사상사의 재조망과 '모더니티' : 20세기 전반 유학사 저술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8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6	정병석, 이오륜	명암(明庵) 이태일(李泰一)의 역학관	민족문화논총 79	민족문화연구소
7	한보람	19세기 경화학계 개혁론의 가치 지향과 현실 대응	韓國思想史學 67	한국사상사학회
8	허재영	근대 중국과 한국에서의 '격치(格致)' 개념 형성과 변화 과정	한중인문학연구 71	한중인문학회
9	황영례	硯山 道統祠의 孔敎運動과 1930년대 安淳煥의 朝鮮儒敎會 儒敎宗敎化運動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10	황지원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사상(孔敎思想)에 있어서 '심즉신(心卽神)'의 의미와 특성	동아인문학 55	동아인문학회

상술한 연구성과 이외에도 한국 근대유학을 주제로 한 연구로는 10편의 논문이 있다. 먼저, 김윤경의 논문들은 도덕실천을 근본으로 하는 유학적 본질의 회복을 주장한 오촌 설태희(梧寸 薛泰熙, 1875~1940)가 형이상학에 치중하였던 전근대 조선 성리학을 비판하고 캉유웨이(康有爲, 1858~1927)의 성선(性善) 해설과 명성(命性) 해설의 한계를 지적하는 과정을 살펴 본 것이다. 김지은의 논문은 석주

이상룡(石洲 李相龍, 1858~1932)이 신학문을 수용하는 과정을 정재학파와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전근대와 근대의 사상을 단절의 측면이 아닌 연속의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오주연, 박민철, 윤태양의 논문은 조선유학생학우회 회보인 『학지광(學之光)』에 나타난 유교비판을 통해 1910년대 일본유학을 통해 서구 지식을 습득한 신지식층이 어떻게 유교를 식민의 조건과 연결시켜 담론화했는지 분석한 것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1910년대 유교비판 담론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역사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 발생시킨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수행된 일종의 지성적 분투라고 평가하였다. 이병태의 논문은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과 하겸진의 『동유학안』 등 전통과 근대에 걸쳐 있던 인물들의 유학사 저작이 전통에 대해 타자화된 관점을 전제하는 일제강점기 이후의 유학사 저작에 비해 지적 전통의 내적 운동을 면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병석, 이오륜의 논문은 주자학적 역학을 기초로 하되 수(數)의 관점을 통하여 주역의 형성과 변화를 분석한 명암 이태일(明庵 李泰一, 1860~1944)의 독창적인 역학 사상의 면면을 살펴본 것이다. 한보람의 논문은 19세기 서울 지역을 기반으로 개화파 인물들의 인적 연결망의 범위를 18세기 노론 경화학계, 특히 연암학파로 확장함으로써 18세기 연암그룹의 인적 네트워크와 사상적 특징이 19세기 박규수 계열 개혁세력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허재영의 논문은 19세기 서구학문의 유입에 따라 전통적 "격물치지"가 근대 과학을 서술하기 위한 "격치(格致)"라는 용어로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근대 학문 형성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살펴 본 것이다. 황영례와 황지원의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유교의 종교화 운동, 즉 공교(孔敎) 운동

을 다룬 것이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안순환과 이병헌은 유교의 종교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유학의 사상적, 철학적 측면에서 개혁하고자 한 당시의 다른 유교개혁 운동과 구별된다고 보았다.

3. 주제별 분류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술한 연구성과는 한국의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통유학의 심화”, “전통유학의 변동”,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전근대 한국 유학의 주류 사상이 성리학이었던 만큼 “전통유학의 심화”와 “전통유학의 변동”은 사실상 “성리학의 심화”와 “성리학의 변동”으로도 볼 수 있다. 상술한 세 가지 주제와 무관하거나 세 가지 주제가 혼재된 연구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 전통유학의 심화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길태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독논어(讀論語)」를 통해 본 도의(道義)의 의미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2	김근호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의 성리설(性理說).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3	김낙진	허유의 심설 토론과 갈등의 양상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4	김상현	삼산 권기덕의 성리설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5	김종석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 해석을 둘러싼 쟁점과 맥락 — 이만인(李晩寅)과 윤주하(尹胄夏)의 논변을 중심으로 —	退溪學報 149	퇴계학연구원
6	김새미오	浮海 安秉宅과 제주 蘆沙學派에 대한 小考	東方漢文學 89	동방한문학회
7	김현수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예학사상 고찰 — 상례(喪禮)를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6	한국유교학회
8	김혜수	간재 후학 입와(立窩) 김종연(金鍾淵)의 삶과 성리학설 연구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9	도민재	송운 정운한(松雲 鄭雲翰)의 삶과 학문세계	율곡학연구 45	(사)율곡학회
10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강학활동과 蘆沙學派의 확대	동양고전연구 84	동양고전학회
11	박학래	松沙 奇宇萬의 학문 활동과 蘆沙 性理說의 계승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12	박학래	기우만(奇宇萬) 문인들의 강학 활동과 노사 학맥(蘆沙學脈)의 지속.	儒學硏究 57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3	선병삼	간재 전우의 신정통주의 성리학	人文科學硏究 44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	양순자	「외필(猥筆)」의 사상적 단초를 찾아서 — 기정진(奇正鎭)과 조성가(趙性家)의 문답을 중심으로	孔子學 43	한국공자학회
15	유지웅	간재 전우의 화서학파 성리설 비판과 문제의식	동서철학연구 102	한국동서철학회
16	윤호진	農山 鄭冕圭의 蘆沙學 繼承과 學問世界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17	이상익	간재(艮齋) 전우(田愚)와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의 심설논변(心說論辨)에 관한 고찰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8	이선경	간재 전우의 역학관 시론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19	이승환	간재 전우의 미발론과 정좌관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20	이천승	수기치인의 관점에서 본 간재 전우의 '혈구지도(絜矩之道)' 주석 분석	한국철학논집 71	한국철학사연구회
21	이향준	「외필(猥筆)」, 1902-외필논쟁(猥筆論爭)의 시작-	汎韓哲學 100	범한철학회
22	이향준	「외필(猥筆)」의 외침 —기사(騎士)는 죽었는가?—	儒學硏究 5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3	이향준	이직현(李直鉉)의 「호행일기(湖行日記)」 고찰	儒學硏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4	이향준	박로술(朴魯述)의 외필론(猥筆論)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25	이형성	대곡(大谷) 김석구(金錫龜)의 리일원적(理一元的) 사유(思惟)에서의 선악론(善惡論)과 경론(敬論)	동양문화연구 34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6	이형성	東塢 曺毅坤의 처사적 삶과 天理 志向 양상	東洋古典研究 82	동양고전학회
27	이형성	重軒 黃澈源의 蘆沙學 繼承에 의한 心性論 —攷 –明德과 人心道心說을 中心으로–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28	이형성	경와(敬窩) 엄명섭(嚴命涉)의 수도적(守道的) 유학계승(儒學繼承)과 심성합일적(心性合一的) 수양론(修養論)	退溪學論叢 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9	전성건	송산 권재규의 心性一體論과 向華背夷論	남명학연구 72	경남문화연구원
30	조우진	월파(月波) 정시림(鄭時林)의 주리설(主理說) —교유관계(交遊關係)와 「외필(猥筆)」 논변(論辨)을 중심으로 —	東洋哲學研究 105	동양철학연구회
31	조우진	石田 李最善의 理 중심적 실천의식	용봉인문논총 58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2	조우진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	호남학 7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33	정병석, 이오륜	명암(明庵) 이태일(李泰一)의 역학관	민족문화논총 79	민족문화연구소
34	정순우	19세기말 서원 강회를 통한 학파의 분화와 학설의 형성과정 —주리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35	정종모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심통성정론(心統性情論)과 그 철학적 의의	東洋哲學研究 105	동양철학연구회
36	전병철	자동(紫東) 이정모(李正模)의 한주(寒洲) 성리설(性理說) 수용 과정과 심설(心說) 논변	한국철학논집 70	한국철학사연구회

성리학 관련 논문 35편과 기타 한국유학 관련 논문 1편(정병석, 이오륜)은 전근대 학문 전통에 기반한 당대 지식인들의 철학사상을 주로 다루었다. 이 가운데 노사학파의 확산 관련 논문(김새미오, 박학래)과 간재 후학 관련 논문(김혜수, 도민재, 이형성)은 연구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이 시대적 상황에 조응하는 과정을 다루었으나, 논지 전개 과정에서 후술할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사상"이라는 특성이 확인되지 않은 까닭에 노사학, 간재학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유학의 심화"로 분류하였다.

2) 전통유학의 변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용환	도덕함에 관한 박은식의 인식지평 연구	退溪學論叢 38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	김우형	박은식 유교구신론의 철학적 기획: 구학(舊學)에서 신학(新學)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3	김우형	백암 박은식 양명학론의 독창성과 특색 —본령(本領)학문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孔子學 44	한국공자학회
4	김윤경	설태희의 실학관과 조선성리학 비판	동양철학 55	한국동양철학회
5	김지은	근대전환기 석주 이상룡의 사상적 변화와 유교개혁론의 연원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6	박정심	박은식 『王陽明先生實記』의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69	한국철학사연구회
7	오주연, 박민철, 윤태양	1910년대 유교비판의 담론지형: 신지식층의 『학지광(學之光)』 논설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100	한국동서철학회
8	임부연	박은식의 근대적 심학 — '진아(眞我)'의 구성과 특징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114	대동문화연구
9	허재영	근대 중국과 한국에서의 '격치(格致)' 개념 형성과 변화 과정	한중인문학연구 71	한중인문학회

박은식을 주제로 한 연구와 일부 논문은 "전통유학의 변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박은식의 양명학적 사유가 강화학파 등 기존 한국양명학의 맥락에 닿아 있다는 점을 논증한 연구성과가 있다면 그 논문은 "전통유학의 심화"로 볼 여지가 있지만, 상술한 논문들에서는 박은식과 기존 한국양명학의 연결점을 언급하지 않는 관계로 이들을 "전통유학의 변동"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기존 성리학 전통의 변용을 다룬 논문이 6편(김용환, 김우형, 김지은, 박정심, 임부연), 성리학사상에

대한 비판 양상에 초점을 둔 논문이 2편(김윤경, 오주연 등), 서구 학문의 유입에 따른 전통 학문용어의 변동을 다룬 논문이 1편(허재영)이다.

3) 전통유학의 변동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근호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	한국철학논집 68	한국철학사연구회
2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평화사상과 현실적 구현: 위정척사파의 철학사상을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11	인문예술학회
3	박태옥	근대 유교지식인의 주체 인식과 사회적 구현의 문제 —정인보의 '감통(感通)'론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99	한국동서철학회
4	이대승	위당 조선학의 본심감통론이 지닌 시대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74	한일관계사학회
5	이영숙	일제강점기 전통 지식인으로서 회봉 하겸진의 위상	남명학연구 71	경남문화연구원
6	이향배	추강(秋江) 백낙관(白樂寬)의 위정척사활동 연구	儒學硏究 5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7	정성희	근대 호서산림(湖西山林)의 학문적 위기 대응 방식과 사상적 배경 —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과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珣)을 중심으로 —	유교사상문화연구 85	한국유교학회
8	하윤서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과 '관일약(貫一約)'의 유학적 의미	퇴계학논집 29	영남퇴계학연구원
9	한길로	삼주 이기원의 삶과 한주학(寒洲學) 전승의 일면 고찰 : 독립운동 조력과 문집발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8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 근대유학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인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을 고찰한 논문은 총 9편으로, 노사학파와 화서학파가 주축이 된 위정척사를 주제로 한 논문이 3편(김근호, 박태옥, 이향배), 학술적 대응으로 저항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다룬 논문이 3편(박태옥, 이대승, 이

영숙), 의병활동 및 독립운동에 투영된 유학사상을 다룬 논문이 2편(하윤서, 한길로)이다. 정성희의 논문은 연재학파 인물들의 순도(殉道)로 구현된 저항정신의 유학적 배경을 다루었다. 저항담론으로서의 유학을 다룬 연구성과 가운데 2/3인 6편의 논문이 구한말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성리학이 외세에 대한 저항 담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양상을 다루었다.

4) 기타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윤경	설태희의 근대 유학연구 비판(I) –캉유웨이의 원시유학연구 비판을 중심으로–	汎韓哲學 103	범한철학회
2	이병태	한국 현대 사상사의 재조망과 '모더니티' : 20세기 전반 유학사 저술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85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	한보람	19세기 경화학계 개혁론의 가치 지향과 현실 대응	韓國思想史學 67	한국사상사학회
4	황영례	硯山 道統祠의 孔敎運動과 1930년대 安淳煥의 朝鮮儒敎會 儒敎宗敎化運動	퇴계학논집 28	영남퇴계학연구원
5	황지원	진암(眞庵) 이병헌(李炳憲)의 공교사상(孔敎思想)에 있어서 '심즉신(心卽神)'의 의미와 특성	동아인문학 55	동아인문학회
6	陳亦伶, 김은영	강유위의 경학사상에 대한 하겸진의 비판	인문과 예술 10	인문예술학회

상술한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연구성과는 총 6편으로, 이 가운데 조선 학자들의 캉유웨이 비판을 다룬 2편의 논문(김윤경, 陳亦伶)과 일제강점기 유학의 종교화 과정을 다룬 논문 2편(황영례, 황지원)이 있다. 이 밖에도 20세기 초반 인물들의 유학사 서술을 주제로 한 이병태의 논문과 19세기 박규수 계열의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18세

기 연암학파로 확장한 한보람의 논문이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우선, 이향준은 개인 연구자로서는 가장 많은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3편이 노사의 「외필(猥筆)」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노사의 사상과 「외필」에 대한 논자의 이해가 십분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는 논문은 「「외필(猥筆)」의 외침 —기사(騎士)는 죽었는가?—」이다. 이 논문은 주리/주기 이분법의 용례, 성리학적 사유 양식, 시대적 의의라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외필」의 철학적 성격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논자는 노사가 「외필」을 통해 이이의 성리학이 주기론이라는 반론에 맞서 주리적으로 해석하려 하였으며, 이이의 '리무위'의 포함도식적 사유를 주축으로 하면서도 리에 힘을 도입하려는 이황식의 발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외필」이 조선의 사족들에게 그들이 역사적 구성로서의 조선 위에 탄 "기사"라는 사실을 환기시킨 저작으로, 사족들이 자신들의 도와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내적 논리를 성리학의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논문은 「외필」이 근대 한국유학 주요 텍스트로서 점유하는 지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외필」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원용된 세 가지 틀의 경우 논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지점이 발견된다.

먼저 "주리/주기 이분법" 용례의 경우, 논자는 주리/주기의 구분법을 한국유학의 내재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퇴계의 이분법과 율곡 비판자의 이분법, 그리고 율곡학 내에서의 자체적 구분이라는 세 가지 용례를 제시하고, 「외필」은 이 중 세 번째 맥락에 닿아 있다고 보았다. 논자의 주장은 일견 합당해 보이나 논문에서는 논지 전개의 토대인 주리/주기 용례 구분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줄 선행 연구

가 제시되어 있지 았았다. 물론 논자는 윤사순의 관점에 기반하여 주리/주기의 틀을 원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리/주기의 이분법하면 연상되는 다카하시 도루의 규정에 대한 현대 학계의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축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리/주기 그 자체에 대한 현대 학계의 시각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으며, 설령 세 단계의 주리/주기 규정이 논자에게서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를 언급했어야 했다. 이어서, 논자는 노사가 율곡에 기초하면서도 퇴계의 논리를 일부 수용하였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퇴계가 "리약기강(理弱氣强)"을 부정하고 "리강기약(理强氣弱)"을 제시하면서 "리와 기의 관계를 일종의 힘의 강약관계를 통해 사유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후 인승마 비유 역시 "힘의 강약 관계의 사유 내용"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인승마 비유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기의 강약 문제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논자의 강약 이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필」의 시대적 의의에 대한 논자의 언급은 20세기 한국유학 저술의 사회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바이지만, 논자의 주장 자체는 별도의 중간 논의가 없이 말미에 간략하게 나온 까닭에 논리적 비약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부분이 과연 논자가 말한 「외필」의 철학적 의미를 규정하는 세 가지 축의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전통유학, 특히 전근대 지식인들의 주요한 사유의 틀이었던 성리학이 격동하는 근대시기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고찰하는 작업은 성리학이 현대사회에도 유의미한 사유의 틀임을 논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당대 성리학 그 자체의 철학적 맥락을 짚는 작업과 당대 사회에 놓인 전통지식의 역할을 고찰하는 작업을 동등한 비중으로 하

나의 학술논문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김근호의 「송사 기우만의 심학(心學)과 부정척사(扶正斥邪)」은 주목할 만하다. 논자는 송사의 성리설이 노사의 성리설에 머물렀다거나 그의 의병활동이 초기 의병활동에 한정되었다는 기존 학계의 평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에 송사의 학문이 노사의 성리설을 계승하지만 태극의 체용, 명덕을 본심뿐만 아니라 인의예지의 심(心)으로 확장하여 보는 심설(心說)을 통해 심학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심학의 현실적 실천이 사문의 인물과 그들의 공간들을 붙들면서 척사(斥邪)의 의리를 실천하는 부정척사의 형태로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논자의 주장대로 송사의 학문이 심학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필요한 데다가, 부정척사의 실천 양태에 대해서도 강학 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만큼 상술한 심학과의 연계가 드러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앞서 살펴본 이향준의 논문처럼 성리학의 철학적 면모에 집중하면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비중이 줄고, 반대로 당대 성리학의 사회적 역할을 논증하는 경우 또한 성리학의 철학적 맥락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소략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 양자를 균형 있게 고찰한 논자의 연구 방법은 향후 전통 성리학이 근대사회에 점유한 지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은 분명하다.

5. 평가와 전망

2021년에 발표된 한국 근대유학 관련 연구동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예년에 비해 성리학 분야의 연구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학계에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근대 유학자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이를 통해 근대라는 한국사의 격동기에 전통 지식인들의 고뇌와 분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순수한 철학적 영역에서 성리학을 다루는 경향이 우세한 가운데, 개중에는 일제에 대항하는 저항담론으로서의 성리학을 다룬 연구 성과도 다수 발표되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작년의 경우 비교적 미진하였던 각 학파 간의 비교 연구의 경우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각 계파의 사상을 동일한 비중에서 비교하였다기보다는 특정 계파가 상대 계파의 학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근대 한국유학의 양명학 연구와 관련하여 성리학과의 단절보다는 양자의 결합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연구자들은 대체적으로 박은식의 대조군으로 설정된 량치차오가 주자학과 양명학 양자를 분리한 상태에서 양명학을 채택한 반면, 박은식의 경우 주자학, 즉 전통 성리학적 맥락과 연계한 상태에서 양명학을 수용하였다고 보았다. 2021년의 근대 한국유학 연구 동향에서 파악되는 지점은 성리학이 당대 사회에 어떠한 형태로 조응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하는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대 성리학에 대한 근래의 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백년을 이어져 온 학문전통인 성리학은 근대라는 거친 풍파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 지성사의 큰 축으로 작용한 셈이다. 저항담

론으로서의 성리학 연구와 더불어, 성리학과 양명학의 결합 양상 연구가 활발해진다면 전근대 주류 사상으로서의 성리학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조응하는 성리학의 면모를 보다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